



4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4호

(루게 582)

◇◇◇◇◇◇◇◇◇◇

## 차 례



◇◇◇◇◇◇◇◇◇◇

축하문 .....	4
4 월의 봄날에 .....	7
만민의 하늘 .....	8
만수대언덕은 언제나 봄계절 .....	18
인민의 소원 .....	19
만경대 .....	24
노을속에 솟은 태양 .....	25
숲의 설레임소리 .....	30
뜻깊은 봄날이 전하는 이야기 .....	31
주체의 최고성지에 깃든 위인의 충정 .....	33
<b>김일성</b> 화와 <b>김정일</b> 화 .....	35
수령님 생각 .....	36
우리 당의 손길 .....	37
그리운 4 월(외 1 편) .....	38
눈물 .....	39
명제해설 .....	40

비워둔 첫자리 .....	41
발머리 .....	42
《혁명렬사릉》(외 2 편).....	44
묘주의 이름 적혀있지 않아도.....	44
혼장없는 반신상앞에서 .....	45
봄노래 .....	46
정깊은 구내길에서 .....	55
쇠물이 흐를 때(외 1 편).....	56
영원히 저 노을밑에서 .....	56
섬에서의 공연 .....	57
꽃강냉이 .....	59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한 충신의 성격창조.....	60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65
새벽이여, 우리 너를 앞세우고(외 1 편).....	66
한계절 .....	66
영원한 심장 .....	67
그날의 봄진눈까비 .....	74
쇠물을 두고서는(외 1 편).....	75
교대시간 .....	75
나는 언제나 병사.....	76
군대명절을 맞으며 .....	78
류다른 명절 .....	79

# 축하문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직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때에 조선문학예술총동맹창립 50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창립 50돐에 즈음하여 당과 수령의 경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적문학예술의 개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동맹조직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문학예술의 고귀한 전통에 기초하시어 1946년 3월 25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창립하시였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지난 5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경도밑에 주체적문학예술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으며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는 역사적시기에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예술교양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여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발전시키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문학예술총동맹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혁명적 대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동맹조직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에서 주체의 혁명적 수령관과 인생관, 미학관, 문예관을 밀접한 통일속에서 구현하여 《피바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각색한 영화, 가극, 연극들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와 같은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기념비적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 주체적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였다.

동맹조직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혁명적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문학예술총동맹은 문학예술지도사업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3위1체원칙을 고수하고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문학예술 창작과 창조활동에서 끊임없는 양양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당의 문학예술대중화방침과 예술선동방침을 관철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문학예술의 역할을 한층 높이게 하였다.

문학예술총동맹은 부문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여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고 동맹대렬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대오로 꾸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회주의사상진지를 튼튼히 지켜선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로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이 거둔 자랑찬 성과속에는 언제나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의 인전대, 예술교양단체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온 문학예술총동맹과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혁명적 창작가들, 예술인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고귀한 노력이 깃들어있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는 문학예술총동맹 일군들과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역사적흐름을 힘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앞에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떨치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에 보조를 맞추어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기여할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고매한 풍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 혁명적대작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충효일심으로 받들고 따르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이며 삶의 요구이다.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는 우리 문학예술의 생명선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결사옹위하는 근위대, 결사대, 친위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문학예술작품들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의도, 감정과 정서, 숨결을 그대로 담음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이 명실공히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문학예술로 되게 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에서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시대 자주적인 간의 전형적인 성격을 훌륭히 형상한 다양한 주체의 문학예술작품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를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사상미학적 안목을 가지고 생활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민족적감정과 시대적미감에 맞고 개성이 뚜렷한 특색있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 창작원칙들을 구현하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연속편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며 새로운 5대가극과 5대연극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문학예술분야에 쌓아올린 당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예술총동맹이 교양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문학예술총동맹 조직들은 창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방침, 불멸의 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며 우리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의 기치인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그들을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동맹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예술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창작현장에 깊이 침투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을 실속있게 도와줌으로써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동맹조직들은 문학예술부문에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조류도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강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이 앞으로도 주체가 확고히 선 당적이고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총동맹은 부문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예술교양의 믿음직한 거점으로 되게 함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더욱 큰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총동맹은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대외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며 세계 진보적 작가, 예술인들과의 친선과 협조, 교류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적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성かく으로수행함으로써 당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96년 3월 25일

## 4 월의 봄날에

김철후

소박한 생일상을 차려드려도  
못내 나무라시던 그날이옵니다  
안겨준 행복에 모두가 겨워  
거리마다 집집마다  
람홍색 공화국기 날리며  
수령님의 노래 부르면  
너무 그러지 말라고  
조용히 농장원도 나오지 않은  
포전에 나가시여  
박막에 맺힌 이슬 툭툭 터시고  
파랏파랏 자라는 랭샹모  
즐겁게 들여다보시던 그날이옵니다

이번만은 그저 못보내신다고  
일군들 고집쓰며 올린  
축배잔 받으신 그날마저도  
그 맑은 축배잔  
추연히 바라보시며  
먼저 간 전사들의 명복을 바라시던...

그날이옵니다  
그날은 예나 다름없이 찾아왔건만  
진정 이 아침  
우리에게 하시던 그 만류 들을수 없고  
자애로운 그 모습도 뵈을수 없나이까  
정히 엮은 이 꽃다발은  
어떤 심정 아뢰이며 드려야 합니까

너무도 큰 기쁨안고 맞던 날이어서  
너무도 사무친 그리움을 안고 맞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다려  
일시에 망울 터친 온갖 꽃향기도  
하나의 간절한 그리움에 넘칩니다

허나 이 아침  
저 산천은 유정한 물소리로 이 땅을 흔들고  
봄빛 넘친 대지우에  
온갖 새의 노래 펼친것은

오늘도 환히 웃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수령님을 뵈옵기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더 굳게 믿습니다  
보십시오 수령님  
수령님을 모시고 부르던 그 노래  
누구보다 먼저 부릅니다  
가슴 가득 받아안은 그 선물들은  
이 아침도 잊지 않고 보내시는  
수령님의 그 사랑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아침  
수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이렇듯 강산은 화창하고  
행복의 노래소리 넘치겠습니까  
수령님의 그 모습을  
변함없이 우러르는 인민입니다

아, 눈길을 드니  
정말입니다  
저 금수산기념궁전에  
여전히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수령님  
오늘도 조국의 앞길에  
밝은 노을을 뿌리십니다

받아주십시오 수령님  
이 꽃다발을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갈  
맹세로 엮은 꽃묶음이옵니다

아 천세만세  
수령님의 영생을 위하여  
삼가 드립니다  
삼가 드립니다

# 만민의 하늘

김명희

립촌이 지났음에도 겨울이 한창인듯싶은 북방의 찬대기를 헤가르며 비행기가 날아가고있었다. 방금 혜산비행장에서 떠올라 평양으로 날아가고 있는 특별비행기이다. 은백색날개우에서는 세상 만물을 빛나게만 하여주는 해빛이 무시로 반짝반짝 반사되고있었다. 아득히 떨어진 땅우에서는 흰눈 덮인 들판과 거뭇거뭇한 산밭들, 푸른 땡기 오리같은 연기를 상공에 등실 띄워놓은 공장지구들, 창문들을 무수히 번쩍이며 행복에 웃는 도시와 마을의 눈익은 전경들이 풍경영화의 화면처럼 수시로 엇바뀌며 서서히 흘러지나가고있었다.

년로한 아버지와 함께 비행기안의 중간좌석에 앉아가는 채국룡은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공명되는 비행기소리처럼 자기네 부자가 받아안은 영광을 온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만싶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머슴군의 아들이였던 자기를 군인민위원회 지도원으로부터 농업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으로 격임시켜주신 일만으로도 과분하기 그지없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수령님을 모시고 고지대농업문제를 의논하게 된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불러주시었다고 생각하니 신임이라는 신임, 영광이라는 영광은 자기가 다 받아안은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그는 이번에 량강도에 내려와서 도농업일군회의를 지도하고있었다. 회의에서는 량강도에서 해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자면 최고수확년도였던(특히 감자) 지난해(1976년)의 경험에 비추어 감자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경히 제기되였다. 채국룡은 고지대의 기후풍토와 자연지리적특수성으로 보아 무시해버릴수 없는 주장들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첫날 회의를 마친 어제 저녁에 당중앙위원회에다 실태를 반영하였다. 당중앙위원회의 해당부서로부터 그 실태를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깊은 사색에 잠기시다가 아무래도 량강도의 《감자박사》들과 진지하게 의논해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채국룡이더러 회의를 하루 휴회하고 각 군에서 감자수확고가 제일 높은 단위의 책임일군들을 한명씩 데리고 올라오게 하라시며 친히 특별비행기까지 보내주신것이였다. 채국룡을 더욱 목메이게 한것은 수령님께서 보정리에 살고있는 채창활로인이 건강이 허락되면 모시고 오라고 당부하시였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아버지 채창활은 한때 고지대 감자농사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팔순이 넘어서 그전날처럼 농사일에 극성을 부리지 못하였다. 그가 얻은 경험이라는것도

그전날보다 영농법이 비상히 발전된 지금까지 중시될것 같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님께서 친히 자기 아버지를 함께 불러주시었다고 생각하니 채국룡은 북받치는 감격과 더불어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지상에서는 눈덮인 지대가 더는 눈에 띄지 않았다. 포전으로 뒤덮인 구룡들이 장기관모양의 논판들과 무시로 엇바뀌면서 련연히 흘러가고있었다.

풍채좋은 백발채수염을 가슴팍에 폭포처럼 내려드리운 채창활은 2인용좌석에 다른 사람도 아닌 맏아들과 함께 앉아 가면서도 두허벅다리우에 올려놓고 부둥켜안은 트렁크를 굳이 내려놓으려 안했다. 그는 아까 승용차에서 비행기에 옮겨탈 때에도 목직한 트렁크를 거들어주려는 사람들에게 여보게들, 이것만은 부디 내가 들고가게 해주시오다, 이안에 별게 아니구 감자가 들어있수다, 갑자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반구보니 들고갈게 있더라구요, 두루 생각던끝에 감잘 들고가게는 상책일게다, 뭐니뭐니해도 우리고장 농민들의 식생활을 전번케 한 감자를 보여드리면 우리 수령님께서 제일루 기뻐하실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구 떠난게니 제발 이것만은 함께 가도록 해주오다 하면서 지어 아들이 트렁크에 손을 대는 것마저 허용안했던것이다.

채국룡은 괴벽에 가까운 아버지의 그런 처사가 저으기 못마땅하게 생각되였다. 결코 가볍지 않은 손집을 굳이 고령의 늙은이가 들고가야만 하겠는가? 이제는 50고개도 넘어섰고 또 도와 중앙기관에서 일해오는지도 어언 20여년이 되는 아들을 아직도 철부지 취급을 하는 아버지의 류다른 성미가 몹시 마음에 걸리였다. 이제 그 나이에 그 성미를 고쳐내기야 하라만 19년전의 그날처럼 아버지가 수령님앞에 가셔도 외람된 언행을 벌일가봐 심히 걱정되는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다름아닌 감자를 들고갈 생각을 해낸것만은 아주 다행스러운 장한 처사로 생각되는것이였다. 감자 면적을 대폭 늘이려는 문제가 물론에 오른 이때 무엇보다 현품을 들고가는것이 의논의 결실에 매우 실천적이고도 유익한 작용을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되여서였다.

그러한 생각은 곧 그의 머리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19년전의 잊지 못할 사연을 눈앞의 현실마냥 방불히 되살려놓는것이였다.

…진달래무렵의 어느날 이른새벽이였다. 량강땅의 무수한 골짜기들은 상기도 짙은 안개바다밑에서 굳잠을 깨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벌써 수



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쾌속으로 새벽길을 달리고있었다. 그 차의 뒤에 여라문대의 승용차들이 떼이어서 섰다. 량강도를 현지지도하고계시는 수령님께서 오늘은 수행일군들을 데리고 삼지연일대로 가시는것이였다.

승용차들이 안개바다속에 잠기기도 하고 그 기이한 바다를 눈아래로 굽어보기도 하면서 100여리를 달려왔을 때에야 날이 흰히 밝기 시작하였다.

길옆으로는 연분홍진달래로 무늬를 돋친 벼랑투성이언덕배기들과 《강녕이는 발곡식의 왕이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라!》라는 글발들로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말없이 웨치고있는 구호판들이 뜨문히 나타나군하였다.

도의 책임일군들과 더불어 수령님을 모시고 가는 도농산국장 채국룡은 그런 구호들이 시야에 안겨들 때마다 야릇한 불안에 사로잡히군하였다.

그렇듯이 수령님께서서는 맨 첫날 현지지도일정계획표를 보시면서 보정리라는곳은 XX에서 멀리나 되는가고 도의 책임일군들에게 물으시였다. 보정리는 일정계획표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고장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수령님께서 그 리명을 알고계시며 한번 가보시려는듯 리수까지를 물으시는것일까? 채국룡은 그 시각부터 남모르는 불안을 가슴속에 들여앉히게 되었다. 왜냐 하면 보정리에 살고있는 그의 아버지 채창활이 바로 저 구호들에 심히 모순되는 처신을 하고있기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소시적부터 보정리에서 농사일로 룽순을 넘긴 늙은이였다. 그러므로 그 일대의 농사일에 제나름의 일가견을 가지고있는것이였다. 축적한 경험도 적지 않을것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한뼘 두메산골의 한고장에서만 맴돌며 얻어낸 《경험》을 그렇게까지 절대시하며 완고히 들고 나와서 되겠는가. 들려오는 말에 아버지는 농작물배치에서 여간 말쑥하게 놀지 않는다고 하였다.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는 둘째아들 갑룡이는 두말할것 없고 조합관리일군들까지를 구슬리고 욱다지르고 해서 강녕이를 많이 심을데 대한 당의 요구를 거역하고 제멋대로 감자를 자꾸 심게 하여 야단이라고 했다. 참으로 야단은 야단이었다. 이제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앉아 자식들의 뒤배나 봐준다고 하여도 누가 시비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런데 늙어갈수록 기세를 돋구며 조합일을 관리위원장이상으로 주관하며 좌지우지한다고 하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농산국에 앉아있는 아들은 따분하기 그지 없었다. 국룡의 송아지친우인 XX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그에게 아버지 문제로 하여 세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었다. 처음에는 자네 아버지가 당정책도 몰라보고 이러이러하게 비틀고있는데 우리가 여게서 설복을 잘 해드릴테니 자넌 알고나 있으라는식의 전화였다.

다음번에 걸려온 전화는 자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번 내려와서 늙은이를 바로잡아주지 않다가는 죄는 샌님이 짓고 벼락은 막동이 맞다는격으로 자네의 운명에 그늘이 던져질수도 있을것이라는 위협기가 없지 않은 우려였다. 나중에는 아버지와 철없는 동생때문에 자네가 해를 입지 않게 하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린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는 최후통첩같은 전화가 걸려왔었다. 채국룡은 친구의 첫 전화를 받았을 때 즉시 동생에게 장문의 편지를 띄웠었다. 나는 몸뻔사이 없어 가지 못하는데 네가 아버지를 잘 타일러드려라, 너도 아버지풍에 놀지 말고 채심하고 살아가라는 절절한 부탁을 담은 편지였다. 그런데 편지를 띄운지 보름이 지났음에도 군에서는 그냥 독을 보고 쥐를 때리지 못한다는식의 볼부운 소리가 계속 날아올라왔다. 할수 없이 국룡은 시간을 내어 오래간만에 고향길에 올랐다.

《뭐라구, 너까지도 강녕이타령이야? 태버린 고장에 어떤 곡식이 잘 되는지도 모르는게 무슨 농산국장이야! 국장이구 뭐구 당장 건너치우구 내려와서 호미자루나 잡아라. 너같은 썰개빠진너석을 그냥 그자리에 앉혀두었다간 도내 농민들의 입에 거미줄을 치구말겠다.》

채창활은 무릎을 꿇고앉아 간청하는 아들을 가차없이 꾸짖었다.

《아버지, 아무리 자식의 말이라고 해도 자중하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강녕이를 발곡식의 왕이라고 하는것은 제 입으로 되뇌일뿐이지 제가 하는말이 아닙니다. 당의 요구에 도전하는것은...》

《듣기싫다! 당중앙에서야 그런 요구를 하겠냐. 제 애비나 고향사람들이야 먹든 굶든 아랑곳없이 그 무슨 상부에 발라맞춰서 제 몸뚱이만 무사하면 된다는거냐? 빌어먹을 자식, 이 마을 사람들은 그래두 너같은걸 두고 보정골에서 큰 간부가 났다구 기뻐들 한다.》

아버지는 그냥 불호령이었다. 파종지도랍시고 날마다 군에서 내려와 사람을 못살게 구는 작자들처럼 너도 마을청년들을 휘동해가지구 쫓아버려야 보정골정신력을 알텐가고 올려메는것이였다.

그러나 결심코 내려온 국룡이어서 물러서지 않고 소귀에 경읽기같은 력설이나마 끈덕지게 들어대여보지 않을수 없었다. 완고한 늙은이는 내치 도리머리를 저으며 아들의 말을 듣는동안은하다가 아무래도 내 당원으로서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올리는수밖에 없겠구나, 네말따마나 그네말만이 아닐터인즉 반드시 당중앙위원회가 알고있어야 할게 아니냐고 혼자말처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것이였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수령님께서 보정리의 리수까지 물으시여서 채국룡은 정말 아버지가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올린것이 아닐가 하는 우려를 느끼는것이였다. 올렸으면 일

이 레사치 않을것이였다. 벌방에 비하면 쌀에 뉘만큼도 안될 북부고지대의 농사일을 두고 수령님께서 심려를 하시게 될것이다. 물론 수령님께서 보정리에 가신다면 거기에 태를 묻은 국룡이로서는 그 이상 기쁜일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수령님앞에서까지 감자유익실을 완고히 주장해나설가봐 그것이 큰 걱정거리였다. 하긴 채국룡이도 보정리뿐아니라 도안에 강냉이보다 감자적지가 몇십곱절 더 많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렇다고 강냉이에 《왕》의 지위를 준당의 의도와 어긋나는 일이야 어떻게 하랴. 어느정도 물질적손실을 보는한이 있더라도 당정책을 외곡집행하는것과 같은 정치적 손실은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는것이 그와 도책임일군들의 굳어진 견해였다.

관목림으로 뒤덮인 협곡으로는 신작로와 나란히 흰갈기를 일으키며 시내물이 성급하게 흘러가고있었다.

승용차들은 굽인돌이가 많은 협곡을 벗어나 약간 산기복이 시원하게 밀려난 골안에 들어섰다. 곧추 뻗어간 신작로의 저쪽 굽인돌이에 차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보였다. 누르스름한 옷을 입은 그 사람은 늙은이인지 아니면 간밤에 어데가 마신 술이 아직 채 깨지 못한 젊은이인지 걸음새가 그닥 방정스러워보이지 않았다. 길북관으로부터 길설에 나서 걷는것으로 보아 차소리를 들은것이 분명한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어깨가 축 처져서 그냥 어기적어기적 걸어가고있었다. 두번째 차까지 옆으로 지나쳐보내고서야 그는 흠칫 멈춰서며 놀라운 눈길로 뒤돌아본다.

(아니 저녀석이 어떻게?)

채국룡은 초간한 거리였음에도 동생 갑룡의 얼굴을 첫눈에 알아볼수 있었다.

웬일인지 갑룡이를 지나쳐서 서른나문메터 달려나간 선두차가 속도를 늦추더니 아주 멎어서는 것이였다.

이어 차문이 열리고 회색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쓰신 수령님께서 길에 내려서시였다. 수령님께서 리정표마냥 우뚝 굳어진 갑룡이를 자신께로오라고 손짓하시였다. 갑룡은 자기 눈을 의심하는듯 얼핏 주위를 휘둘러보고 수령님께서 다름아닌 자기를 부르신다는것을 깨달은 모양 뉘그러한 사람처럼 달려갔다.

수령님께서 갑룡의 인사를 반갑게 받으시며 그에게 긴히 무슨 말씀인가를 하시였다. 갑룡이도 뭐라고 말씀드리는데 거리가 뜬데다 물소리때문에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수령님께서 심히 어깨가 처져서 무인지경 밤길에 이어 새벽길을 기맥없이 걷고있는 (읍에서 예까지는 30리 잘되므로) 갑룡이를 그저 지나쳐갈수 없어 차를 세웠다고 하시면서 옷차림을 보니 제대군인같은데 무슨 일로 그렇게 기가 죽었느냐

고 물으시었다는것이였다.

차에서 내린 채국룡이 수행일군들을 따라 거기에 당도했을 때에는 갑룡이가 어떤 멧멋지 못한 일로 군에 불리워왔는지는 대답물리기를 몹시 저어하면서 말마디를 더듬고있었다.

《군에 좀… 볼 일이 생겨서… 다녀오는 길입니다.》

《가만, 도농산국장동무가 어데 있소?》

수령님께서 모여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국룡이를 찾으시였다.

《네, 여기 있습니다.》

채국룡은 서둘러 대답을 올리며 일군들의 뒤견에서 앞으로 나섰다. 수령님께서 그와 갑룡이의 얼굴을 번갈아보시고 동무네 형제간이 아닌가고 물으시였다.

《수령님, 저의 동생이 옳습니다.》

채국룡은 면구스레 머리를 짓속이며 말씀드렸다.

《그러게 글썄!… 아무리 형제간이라고 하여도 어쩌면 그렇게 꼭 같이 생길수 있소!》

수령님께서 름름한 형제를 대견히 바라보시며 웃으시다가 채국룡에게 동무는 어데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다정스럽게 물으시였다.

채갑룡은 이제 조금만 더 가다가 신작로에서 갈라져 오른쪽 골안으로 25리쯤 들어가면 보정리라는 마을이 나진다는것을 아뢰이고 《제대후 저는 거기 고향마을 협동조합에서 작업반장을, 아니 저어… 양봉공이… 되였습니다.》하고 못내 서글픈 기색을 지었다.

《작업반장을 하다가 내리먹었소?》

수령님께서 놀라우신 표정을 띠시고 물으시였다.

《…》

채갑룡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며 발끝으로 땅을 실없이 문질렀다.

채국룡은 군위원회 부위원장의 세번째 전화를 상기하며 봐라, 아버지 장단에 춤을 추더니 그예… 하고 속으로 질책하면서 동생의 정수리를 민망스레 찢어보았다.

《일을 하다나면 필요에 따라 낮은 직급에 옮겨질수도 있는건데 뭘 그러나. 제대군인답지 않게.》

수령님께서 갑룡이의 서글픔을 지워주시려인지 위안조로 흔연히 나무라시였다.

《수령님, 그저 옮겨진것이 아닙니다. 철직되었습니다. 어제밤에 군에 불리워가서…》

채갑룡은 자애에 넘치는 수령님의 인품이 어찌나 너그러우셨던지 대뜸 어려움을 잊고 친아버지앞에 선 막대둥이처럼 응석투로 심적고충을 아뢰었다.

《철직이라니, 무슨 파오를 범했기에?》

《수령님, 물론 우리 아버지가 지내 파격하고 또… 별난 성미를 가진 늙은이인것만은 사실입니

다. 그렇지만 정당한 문제를 가지고 우기는것이 야 나쁘리 없지 않습니까...》

이녀석아, 제발 수령님께 외람되는 말씀을 올리지 말아다오 하고 채국룡이 속으로 기원하는 순간에도 동생의 울분에 찬 목소리는 중단되지 않았다.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우리 조합에 잘 되지도 않는 강냉이를 주작물로 배치하라고 강경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씨불임 지도사업이요 뭐요 하고 내려와서 그렇게 강요하는 일꾼들은 누구건 가리지 않고 다 쫓아버리군합니다.》

《응당 그래야지.》

수령님의 수구에 채국룡은 더욱 열기를 띠었다.

《그런데 군에서는 도리어 저희들을 가막꿀치기로 쫓아버리는데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

《<채래식농법>을 완고히 주장하는 고집불통이래서 그러는것일겁니다. 그리고 저에 한해선 말로는 군대에 나가 수고를 한 동무인데 산속에 들어가 몸이랑 돌보면서 쉬엄쉬엄 꿀벌이나 치라고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치레말이고...》

《쫓아버린다?》 수령님께서서는 뒤집을 지시고 서운한 기색으로 산발을 바라보시다가 다시금 채국룡에게로 돌아서시었다. 《그래 동무네 아버지는 강냉이를 배제하고 무슨 곡식을 심자고 주장하오?》

《우리 아버지는 감자밭에 모릅니다. 밀과 보리도 괜찮게 되는데 유독 감자를...》

《가만, 동무네 아버지가 채창활농민이 아니요?》

수령님께서서는 갑룡이의 말허리를 자르시고 물으시었다.

(아, 그예 아버지가 편지를 올렸구나. 참, 이일을 어쩌면 좋담?... 어쩌면 늑어갈수록 그렇게 경거망동이 심해질가?)

채국룡이 아버지를 원망하고있는동안 동생은 수령님, 우리 아버지가 채창활이 옳습니다! 하고 활기찬 대답을 드리는것이였다. 그는 수령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 이름을 알고계실가 하는 의혹이 실린 눈으로 수령님의 얼굴을 우려했다.

《음, 그렇구만! 이것 참 반갑소.》 수령님께서서는 채창활 당자라도 만나신듯 갑룡이의 등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옆을 돌아보시었다. 《농산국장동무, 그런걸 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소? 나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나 채창활농민을 기어이 만나볼 결심이었는데.》

《...》

채국룡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다시금 머리를 숙이였다. 그는 속으로 여간만 당황해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 보정리에 들러봅시다. 풍산이나 갑산지방에서 제기되던 작물배치문제가 여기에서도 제기되고있을뿐아니라 매우 심상치 않은 양상까지 띠지않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수행일꾼들에게 결연히 말씀하시었다.

부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이께 오늘 현지지도 하셔야 할 단위들과 그 거리들을 상기시켜드렸다. 삼지연립산사업소와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 걸음마를 타는 포대종합농장... 보정리에 들리시지 않고서도 하루해가 모자랄 형편이였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른새벽에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는데 외진 보정리까지 들리시면 그이의 로고는 얼마나 더 겹쳐여지겠는가.

채국룡은 아버지께 대한 원망만이 아니라 우연히 나타나 수령님의 발걸음을 지체시켜드리는 동생이 쥐여박고싶도록 알미웠다.

수령님께서 량강땅에 첫 발걸음을 옮겨놓으신 그 시각부터 얼마나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는가. 후치령에서부터 개마고원의 넓으나넓은 대지를 아니 돌아보신데가 거의 없었다. 늦서리 내린 오솔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황수원 등판에 오르시여서는 고지대의 축산전망을 활짝 열어놓으시였다. 갑산광산의 지하막장에 이르시여서는 나라에 동이 필요할 때마다 동무들을 생각한다시며 광부들에게 커다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 풍산과 풍서, 갑산 일대의 술한 농업협동조합들을 거쳐 도소채지에 이르시여서는 하루 휴식을 권고드리는 일꾼들에게 내가 하루 쉬면 갓 나래를 편 우리의 천리마가 열흘을 담보한다시며 혜산시안의 공장기업소들과 학교와 병원, 탁아소, 유치원, 상점, 식당들을 일일이 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지난날 그 어느 지방 인민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하면서도 항일유격대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준 인민들인데 이 고장인민들의 생활을 하루속히 향상시켜주자고 하시면서 그 실행방도까지를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던것이다.

《바쁘더라도 보정리에는 반드시 들러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우리가 인민들의 신상에 그들이 드리워진 사실을 알게 된이상 그저 지나가서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채창활농민부터 만나보아야 일손이 잡힐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채국룡은 가슴이 뭉클했다. 지금껏 솟아오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마음의 충격을 받은것이였다. ...

아버이수령님을 모신 보정농업협동조합은 환희에 넘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등성이포전에서 일하다가 만세를 부르며 달려내려와서 인사를 드리는 조합원들의 흠뻑은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조합일이 힘들지 않는가, 개인농때보다 일 재미가 어떤가, 지난해에 알곡과 현금분배는 얼마나 받았는가, 조합에 로력은 팔리지 않는가, 아이들은 학교에 다 보내고있는가, 병나면 치료는 제때에 받는가에 대하여 친아버지의 심점으로 다정히 물으시었다. 조합원들은 하늘같은 수령님의 보살핌에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사는 행복상을 자랑스럽게 여쭙어드렸다.

《여기에 채창활농민은 오지 않았습니까?》

수령님께서는 나이이지숙한 조합원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시었다.

《저기 옵니다!》

랑태머리처녀가 비물이 썰여놓은, 등성이발 중간쯤에 있는 반짝버들 흙타기를 지나 숨이 차서 가슴을 두드리며 달려오는 로인을 가리켜보이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채창활에게로 마주 걸어가시었다.

《수령님! 그 멀구 험한 길도 마다하시지 않으시구 이렇게!...》

허둥지둥 달려오던 채창활은 땅에 엎드려 수령님께 큰절을 드리며 걱정을 터치었다.

《로인님, 이러지 마십시오. 인사는 오히려 우리가 드려야 할가 봅니다.》

수령님께서는 급히 다가서시여 들먹이는 그의 어깨를 껴안아일으키시었다. 그러시고는 로인을 껴안으신채 수행일군들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동무들, 인사를 드리시오. 전쟁시기 하루같이에서 240가마니의 감자를 생산해낸 채창활로인입니다!... 하루같이에서 240가마니면 한정보에서는 20톤을 낸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20톤! 이 로인님은 감자대왕입니다!》

《수령님, 황송하옵네다!》

채창활은 눈을 습벅이며 사례의 말씀을 드리였다. 도당위원장이며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수행일군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아직 잘 모르며 어리둥절히 로인과 인사를 나누었다.

(아하, 아버지가 편지를 올린게 아니구 그래서... 그런데 수령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아시고 이처럼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하시는것일까?)

그것은 아들(국룡이)마저 명백히 알고있지 못하는 사실이 옳았다. 국룡은 적탄알이 비발치는 전호속에서 국룡아, 잘 싸우거라, 이 애비도 잠자를 많이 생산해내여 미국놈들의 정수리를 짓누르구 있으니 안심하구서... 이러루한 편지를 받아본것밖에 없었으니 그것이 전쟁때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그의 이해의 전부였다. 그나마 이즈막에는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린다고 자네 부친이 고망년적에 감자 몇톤을 낸걸 코에 걸구 그다지도 감자감자하느냐는 소시적친구의 칭원이 들구 스러워 감자소리만 나와도 이마살을 찌프려오던 참이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그에 거둬 찬사

를 보내시며 흘러간 세월의 갈피를 감회깊이 번지여보이시는것이였다.

《그때가 아마 52년도 가을이었던가봅니다. 우리는 그때 지방신문에 실린 <채창활농민의 감자다수확경험>이라는 기사를 읽고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채창활농민처럼 농사를 지으면 고지대 농민들도 얼마든지 식량을 자급자족할수 있을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였습니다!》

전쟁승리를 앞당기시는 순간의 여가없던 그런 상황에서도 지방신문까지를 다 읽으시며 오늘을 설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채국룡의 두눈에는 온 누리가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으로만 가득차있는것으로 보이였다.

수령님께서 일하다 달려내려온 마을사람들을 뜨겁게 맞이하고계시는 동구길어름에서는 닭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보정마을이 삼태기안처럼 들여다보이였다. 돌을 벌에 바빠맞은 안개와 땅김이 그들그를 기어다니고있는 길 옷권의 포전에서는 사처에서 오색기들이 소리없이 나뭇기고 어데선가 산촌의 봄정서를 돈구며 빼곡새의 구성진 노래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무슨 곡식인가를 갓 심어놓은 길 옷권의 포전에 올라서시었다. 목은 강냉이그루들이 뿌리를 안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포전에는 농쟁기로 씨앗을 묻어놓은 자리와 로동화자욱이 무수히 찍혀있었다.

《여기에 무슨 곡식을 올리심고있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손수 흙덩이를 집어드시고 비벼보시면서 조합관리위원장에게 물으시었다.

《감자를... 심고있습니다.》

젊은 관리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의 눈치를 보며 떠듬떠듬 말씀드렸다.

《감자를 심는다. 본시 모래기가 많은 부식토에 감자가 썩 잘되지. 이곳 포전들의 해발고는 몇미터나 됩니까?》

《1,050부터 1170미터입니다.》

《도위원장동무, 이 도에 해발고 900미터 이하인 포전은 총경지의 몇프로나 됩니까?》

수령님께서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물으시었다.

《모두 27프로입니다. 거기에서 논면적을 제외하면 11프로밖에 안됩니다.》

《11프로?... 그러니까 11프로바람에 73프로의 면적에까지 강냉이는 밭곡식의 왕이라는 구호를 내걸었겠습니까?》

수령님께서는 몹시 노여운 기색을 지으시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채국룡은 자못 놀랐다. 수령님께서 그가 추구하고있는바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기때문이었다.

수령님께서는 채창활에게 감자농사정형을 물으시었다. 종자선택으로부터 봄맞이처리, 심는 시기,

심는 방법, 김매고 가꾸는법, 비료주기에 이르기까지를 일일이 캐여물으시었다.

채창활이 기꺼이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할 일무장투쟁시기에 본 중국동북지방 농민들의 감자농사방법과 근사한데가 많다고 하시면서 감자다수확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비결이라구오다? 수령님, 저희들한테야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채창활은 놀라와하며 펄쩍 뛰었다. 《저희들은 그저 당에서 내놓은 정책대루 곡식을 심어서 가꾸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저의 소견에는 비결이 있었다며는 수령님께서 올바른 농업정책을 내놓으신데 있다구 보아집시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은 일찌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작물배치원칙이 아닙니까? 임자네들 생각은 어떻소?》

채창활은 동감을 바라는 눈길로 옆에 선 로인들을 돌아보았다.

이마가 시원히 벗어진 로인이 물음을 던진 채창활이 아니라 수령님앞에 나서며 정중히 말씀드렸다.

《수령님, 이 늙은이의 말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늙은이는 늘 저희들한테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기후에 맞추어 토질에 맞는 곡식을 심어야 대풍을 맞을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그 가르치심이 해방직후에만 해당된 거구 오늘날에 와선 해당되지 않는게 아니다, 그러니 정신들을 부쩍 차리구 일들을 해야겠다면서 우리들을 편달해주시오다!》

수령님께서는 채창활의 말을 속으로 되뇌여보시는듯 잠시 머리를 끄덕이시다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

《로인님들! 우리 당정책은 모두가 다 인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것입니다. 당정책대로 작물배치를 하니 농사가 잘되었다는것은 농민들의 의사가 매우 정당했다는것을 실증해주는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와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채창활로인님, 이제는 이고장 농사실태나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이 조합포전들에 무슨 곡식이 잘됩니다?》

《옛적부터 감자농사가 썩 잘되지오다!》 채창활은 수령님께서 자기 말을 긍정해주는지 기미여서 신바람이 났다. 《감자 다음으로는 밀, 보리가 꽤 잘게 되구오다. 강냉이는 정보당 오륙백키로를 겨우 내는것조차 한해건너루 미숙을 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감자농사는 세세년년 랑패를 본 레가 없습시다. 그러니 수령님, 부디 감자를 많이 심게 해주시오다. 그래야 이고장농민들도 자급자족을 할수 있습시다. 이 땅이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여보게 조합원들, 제발 내 품에다 감자를 심어주게나. 그러면 해마다 감자사태가 나게 해주지 않으리 이렇게 애원할것입니다. 참으로 감자를 심하는건 저희들 소원이자 이 땅의 소원이올시다!》

《나의 소원도 그렇습시다!》

수령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동의해주시었다.

《예? 수령님 소원두 그러시다구오다? 하, 이거 정말?...수령님, 고맙습시다!》

채창활은 어쩔줄 몰라하다가 눈물이 글썽해서 수령님께 다시금 큰절을 드리었다.

《동무들은 왜 벌방의 구호를 여기에 올려다 그대로 걸었습니까?》

수령님께서는 도의 책임일군들을 엄한 시선으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었다. 내내 봄시내물소리처럼 정겨웁게만 느껴지던 그이의 음성에서는 자식의 파실을 꾸짖어 편달하는 아버지같은 엄격성이 느껴지었다.

《수령님, 저희들이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집행하다보니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들의 요구를 귀담아듣지 않고 관료주의적으로 일하다보니 크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도당위원장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심각한 사죄의 말씀을 올리었다.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저으시다가 말씀을 떼시었다.

《아닙니다. 아무리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인민들의 요구를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하여도 동무들이 그래 이런 덕지대에 강냉이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것을 몰랐단말입니까? 문제는 알고있으면서도 강냉이는 발곡식의 왕이라는 벌방의 구호를 그대로 올려다 내건데 있습니다. 인민들이야 잘 먹건 못먹건 상관없고 동무네만 그 무슨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된다는식의 사고방식이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바른대로 말해보시오.》

수령님의 말씀에서는 걸핏하면 당정책을 흥정하려드는가 어찌는가 하면서 걸고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신주의를 부린 그들에 대한 강한 비판이 울리고있었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머리를 숙이고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다.

《자네두 수령님의 말씀을 명심해두라구. 상부에 맹종맹동하구 하부엔 큰소리치는 열간동이 행세랑 깊이 뉘우치면서...》

수령님앞에서 무례하게 아들을 꾸짖는 채창활이를 옆에 선 로인이 은근히 껄렷했다. 채창활의 날이 선 눈길이 그에게로 퍽 돌려졌다.

《임자네 잠자꾸 있으라구. 내 이 사람은 물론 군일군들이 정 우릴 못살게 굴면 당중앙위원회에 다 편지라도 올리려던 참이었네!》

그랬으니 좀 무례하기는 하여도 차리리 잘된셈

이라는 뜻으로 채창활은 그 로인을 제지시켜놓고 다시 수령님께 절절히 말씀드렸다.

《수령님, 제 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강냉이를 내리먹이는걸 눈을 번히 뜨구서 그냥 받아물수 없어 좀 완고히 나왔더랬습네다. 그랬다구 그 한심한 사람들이 저흰 보수주의자다, 당정책을 비트는 반혁명분자다 하면서 별의별 감투를 다 뒤집어씌우는게 아니겠습네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저합네다. 지대에 딱 들어맞구 소출이 높은 곡식을 심어가꾸자는 사람이 반혁명분자이면 쪽정이농살 내리먹이는 당신넌 무슨 혁명분자인가구 말입네다.》

수령님께서는 신중한 기색으로 채창활의 말을 주의깊이 듣고계시다가 도의 책임일군을 다시 불러보시었다.

《동무들이 이 로인의 물음에 답변해보시오! 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수령님, 정말 저희들 잘못이 큼니다. 아래일군들이 전횡을 부리는것도 모르고 앉아있었으니 수령님을 뵈일 면목이 없습니다.》

도당위원장이 사죄의 말씀을 올리었다.

《나한테 그럴것이 아니라 이 조합원동무들한테 사죄하고 용서를 비시오. 조합원동무들이 동무들을 용서하면 나도 문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수령님의 말씀은 수행일군들과 조합원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여주었다. 누구보다 감동이 큰것은 채창활이었다. 채창활은 국룡의 팔을 끼고 수령님앞에 다가섰다.

《수령님, 이 사람은 저의 맏아들입네다. 강냉이바람을 일군 책임을 지자면 저 도당위원장이나 도위원장 어른들보다 도농산국장이라는 이 사람이 처야 한다구 봄네다.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제가 먼저 수령님께 사죄를 드리는바입네다. 저희는 배운게 없다보니 이 아들이나 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조리있게 일깨워주지 못했습네다. 고작 욕설을 들켜워서 쫓아버리는 놀음만을 일삼아왔사오니 그게 그래 나살이나 먹은 사람의 처신이겠습네까.

수령님, 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사오니 수령님께서 부디 성정을 누그러시구 심려를 놓으십시오.》

채창활은 과격한 성미를 절절히 누우치며 사과와 말씀을 올렸다.

《보시오. 우리 인민은 이런 인민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수행일군들을 돌아보시며 격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이런 인민을 어찌면 그렇게 모독할수 있겠습니까.

이곳 일군들이 저들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물지 않는다고 하여 아래사람들의 목을 떼어 외진곳으로 쫓아버리는 놀음도 서슴지 않는것 같은데 알아보고 단단히 문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은 아래사람들이 설사 과오를 범했다 하

더라도 그들의 정치적생명만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채국룡의 손수건은 눈물에 흥건히 젖었다. 수령님께서 다름아닌 자기 아버지와 동생의 신상에 드리워진 그늘을 지워주시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구나 하고 생각하니 깊은 자책과 감동으로 하여 흘러내리는 눈물을 금할수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보정리 현지도가 있는 때로부터 이틀후에 열린 량강도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의 협의회에서는 북부고산지대에서 감자는 밭곡식의 왕이다!라는 구호가 제시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회의에서 감자면적을 총 부침땅 면적의 50내지 60프로로 늘이고 부식토와 퇴비를 많이 내어 감자수확고를 정보당 20톤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감자를 정보당 20톤씩 생산하여 10톤으로는 고기를 생산하고 10톤은 황해도 흰쌀과 바꾸어 이고장 인민들도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면서 별방사람들 부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었다.

그 가르치심은 그해 가을부터 당장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냈다. 백옥같은 황해도 흰쌀이 마대채로 집집에 들이쌓이게 되였다. 그리하여 흰쌀밥이란 구경조차 할수 없던, 조상의 제상에마져 고작 조찰밥이나 기장밥밖에 올릴수 없던 이고장에서 거의 매끼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되었던 것이다.

비행기는 어느덧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였다.

이날 오전 량강도 일행은 당중앙위원회 응접실에 앉아 수령님께서 나오실 시각을 가슴조여 기다리고있었다. 그들가운데서는 탁자에 검은 트렁크를 올려놓고 근엄하게 앉아있는 채창활로인의 하얀 모습이 유묘하게 눈에 띄이였다.

미구에 내실로 통한 문으로 해빛같은 미소를 띄신 수령님께서 응접실에 나오시었다. 채창활은 방안이 그이의 미소에 더구나 환해지는듯싶었다.

채국룡은 수령님을 뵈게 될 때마다 그러하듯이 가슴 뭉클한 충격을 느끼며 정중히 일어서서 수령님의 분부대로 량강도 일행을 데리고 왔다는 보고를 드리였다...

《수령님, 귀체만강하십네까!》

채창활이 은발의 채수염을 날리며 그이앞에 다가서서 격정에 넘친 어조로 인사를 올리였다.

《아, 채창활로인님!... 이게 몇해만입니까!》

수령님께서는 두팔을 크게 벌리시고 다가서시여 채창활을 뜨겁게 포옹해주시었다.

《나는 인민들의 덕분에 언제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로인님께서 먼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수고한게 없습네다. 수령님께서 문앞까지 고급승용차를 보내주시구 차에 이어서 특별비행기

까지 타고오게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셨는데 수고했을리 있겠습니까. 수고한게 아니구오다. 피땀한 두메농은이가 난생 처음 특별석에 앉아 하늘을 휘잉 날아서 평양엘 오구보니 신선이 되어 하늘나라에 온게 아닌가만싶습네다!》

《허허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됐습니다. 나는 아직도 패기왕성한 <감자대왕>을 대하게 된것이 무척 기쁩니다!

<감자대왕>께서 감자를 가지고 오시었다는데 어디 좀 구경합시다!》

《거뿔 변변치 못한겁네다.》

채창활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치하를 바라며 선생에게 숙제장을 펼쳐보이는 학생같은 심정으로 자신만만하게 저고리안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트렁크 자물쇠를 잘각 열었다.

트렁크안에는 알알을 흰종이로 정성껏 싸 감자 일곱알이 들어있었다. 그다지 작은 트렁크가 아님에도 그이상 더 들어갈 자리가 없게 감자알들이 컸다.

《감자는 감자인데 이렇게 크단말입니까?! 하하하, 과시 <감자대왕>이 들고다닐만한 농작물이 솟습니다!》

수령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감자를 랑손에 하나씩 집어드시고 무게를 가늠해보시었다.

《수령님, 이건 2키로 350짜리입네다!》

어깨가 으쓱해진 채창활은 배개같은 감자를 정히 집어들고 수령님께 보여드리었다.

《2키로 350그람이나 나갑니까. 어디 좀 봅시다. 정말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이 감자가 무슨 품종입니까?》

《<백두고원시험장> 연구사선생들이 <포태5호>라고 이름지은 감자입네다!》

《전분 함유량은 얼마입니까? ...17프로면 무게로나 전분 함유량으로나 농업전람관에 전시된 감자들보다 월등합니다!》 하고 수령님께서 뒤에 선 일군을 돌아보시며 분부하시었다. 《농업비서동무, 이 감자를 농업전람관에 가져다 전시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던지는격이긴 하겠지만 월등한 제품이 언제나 상좌를 차지하기 마련이 아닙니까!》

당중앙위원회 농업담당비서가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하겠습니까 하고 감자들을 넘겨받았다.

이윽고 수령님께서 랑강도 일행을 데리시고 소회의실로 들어가시었다. 거기에서는 관계부문의 중앙기관일군들이 이미 와앉아 기다리고들 있었다.

《랑강도 농업일군회의에서 감자면적을 대폭 늘이자는 논의가 분분하다지요. 보고를 받고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수령님께서 랑강도 일행과 무릎을 마주하고 앉으시며 랑해를 구하시었다.

채국룡은 드디어 고지대에서의 대규모 감자농사가 막을 올리게 되는구나 생각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랑강도의 전 경지에 목침같은 감자가 한벌 쪽 깔릴 가을철이 방불히 떠올랐다. 개울가마다에 가득가득 놓인 감자가공그릇들이 보이었다. 팔짜기마다에서 시허연 감자거품을 뒤집어쓰고 흘러내리는 개울물들도 기분 좋게 안겨왔다.

그는 보정협동농장에서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 동생을 비롯한 랑강도의 믿음직한 농업근로자들이 감자농사를 더욱 통이 크게 벌리어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게 될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았다. 아울러 자기가 그 시발점으로 되는 도 농업일군회의를 성과적으로 이끌어가고있다는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었다.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랑강도 농장들의 살림살이 실태를 알아보시고나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자료를 보니 동무들은 모두 지난해에 감자를 정보당 30톤이상 생산한 단위들에서 온 동무들이네 감자농사가 그렇게 잘되게 된 비결이 어데 있는지를 먼저 찾아봅시다.》

채국룡의 머리속에는 문득 19년전의 봄날이 떠올랐다. 그날도 수령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하루같이에서 240가마니의 감자를 생산해 낸데 대한 비결이 어데 있는가고 물으시였던것이다. 그때 찾은 비결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작물배치원칙을 철저히 지킨데 있었다는것이였다. 하지만 감자수확고에서 그때보다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집단적인 혁신을 이룩한 오늘날에는 그 비결이 어데 있겠는가?

채국룡은 도 농업일군회의에서 열변을 토하던 토론자들의 주장을 한마디한마디 되새겨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수령님께서 답변을 기다리고계시는줄 뻔히 알고있으면서도 누구하나 선뜻 대답을 올리는 사람이 없었다. 수령님께 가장 정확한 대답만을 드려야 하겠는데 그들의 머리속에서는 비결로 내세울 어금지금한 문제들이 저마끔 머리를 쳐들기때문이었다.

수령님께서 수긋하고 앉아서 부단히 사업노트를 뒤적이고있는 몸매 다부진 사람을 은근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물으시었다.

《보천군에서 온 관리위원장동무,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까?》

얼굴이 새빨개진 관리위원장이 자신없는 거동으로 일어섰다.

《저는 농장원들의 비등된 열의에 풍작의 비결이 있지 않았을가 하고 생각합니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상공세를 들이던 결과...》

《지나해에만 그했습니까? 해마다 농장원들의 열의야 비상히 높았지요. 좋습니다. 앉아서 더 연구해보시오.》

수령님께서 알맹이를 쥐지 못한채 일반적인

소리만을 하는 그의 말을 자르시고 좌중을 둘러 보시었다.

도안의 농사를 책임진 당사자가 정확한 답변을 올려야 하리라는 자각으로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이 노트를 펼쳐두고 일어섰다. 그는 지난해에 그 어느때보다도 씨불임으로부터 수확철에 이르기까지의 감자비배관리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킨데 비결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몇가지 사실을 레증하였다. 감자종자 팽상처리 100프로, 철저한 포기농사, 병해충예찰과 집중적인 구체작업, 과학적인 시비체계 등을 언급한데 비결이 있다는 것이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런 노력들이 풍작에 기여는 하였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군적인 평균 수확고가 27톤인 군이 있는 반면에 14톤 군도 있는데 그러면 14톤을 낸 군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겠는가고 반문하시며 설명을 가하시었다.

《우리가 비결을 찾아보려는것은 그것을 일반화하여 올해에 더 큰 성과를 거두자는것입니다. 그런데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동무가 찾은 비결에는 더 큰 성과는 고사하고 27톤군과 14톤군의 현격한 차이를 줄일수 있는 담보도 없습니다.》

《수령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창활이 움쭉 일어서며 청을 들었다.

순간 채국룡은 난색을 지었다. 한다하는 관리위원장도,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도 명중하지 못한 비결을 자기 아버지가 감히 찾아내겠다고 하는것이 경망스럽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제 옷자락을 끄당겨 앉힐수도 없어서 부디 수령님께의 람된 말씀이나 올리지 말아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다.

《 좋습니다. <감자대왕>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로인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수령님께서 앉아서 말씀하라고 거듭 이르시였으나 채창활은 한사코 앉지 않고 풍채좋은 은발의 채수염을 내리썰어 비다듬으며 말씀드렸다.

《제 소견에는 새 품종의 감자종자를 심은데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새 품종인 <포태5호>를 제작년에는 종자가 모자라서 60프로밖에 심지 못했습네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00프로 <포태5호>를 심었습네다. 그랬더니만 지난해에는 제작년에 비해 감자정보당 수확고가 무려 7톤씩이나 꺾충 뛰어오르지 않았습네까! 제 다른 군의 실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립농장들을 더러 넘겨다본데 의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새 품종을 받아들인데 비결이 있는것 같습네다!》

《어버이수령님, 채창활할아버지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채창활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백암군의 처녀분 조장이 당돌하게 일어서서 종달새 우짖듯이 말씀

드렸다.

수령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며 그를 대견히 바라보시었다.

《우리 분조에서도 <포태5호>가 은을 냈습네다. 제작년에도 그전해에도 열의는 다 높았습네다. 주체농법대로 비배관리도 똑같이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해에 감자수확고가 부쩍 뛰어 오른것은 감자면적 21정보에 몽땅 <포태5호>를 심었기때문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화색이 돌아 채창활이와 처녀분조장을 갈마보고있는 학자풍의 사람에게 시선을 멈추시었다.

《고지대분원 원장동무는 어떻게 생각하고있습니까?》

원장은 두툼한 노트를 펼쳐두고 확신성있게 일어섰다. 그는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최근 몇해 동안 우량종감자인 《포태5호》와 《포태6호》를 도입한 정형과 그에 따르는 년차별 수확고의 장성비율, 우량품종을 많이 받아들인 농장과 적게 받아들인 농장, 일련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농장들의 수확고를 수령님께 대비분석하여 드리었다.

이제금 지난해의 감자농사에서 거둔 성과의 비결은 다수확품종을 받아들인데 있었다는 사실이 일목로연해졌다.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그것 보시오. 나는 그래서 인민을 스승이라고 하는것입니다! 내가 감자농사하면 언제나 채창활로인을 먼저 생각하군하는것은 고지대농사에 채창활로인만큼 밝은 사람이 드물기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었다. 그 격찬의 말씀에서는 채창활을 진정으로 기리여주시는 그이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감정이 맥맥히 굽이치고있었다.

《수령님,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만 곡식을 심어서 가꾸는 과정에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업정책이 아주 정당함을 실증했습네다.》

채창활은 눈을 습벅이며 감동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그의 말은 수령님이 곧 스승이시라는 것이었다! 수령님께서 일찌기 전국도처에 농업 과학연구기관들과 농사시험장들을 꾸려주시고 새 품종의 농작물이 태어나면 그것이 제때에 확신되어 수확고를 높이는데 이바지되도록 요소요소에 육종채종농장들을 꾸려주시어 감자뿐아니라 모든 농작물의 우량품종을 얻어내게 하여주시었으니 천하지대본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이 곧 스승이시고 대지이시고 하늘이신 것이 아니겠는가!

수령님께서는 화제를 돌리시어 고지대협동농장들의 현물분배에서 알곡과 감자를 어떤 비율로 주었는가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인민봉사위원회 량정총국장이 최근 5년간의 고



지대협동농장들의 현물분배정형을 년차별로 차근 차근 말씀드렸다. 이를테면 7대 3으로부터 해마다 감자수확량이 늘어나는데 따라 감자분배비율도 늘어가다가 최고수확년도인 지난해에는 감자와 알곡비율을 5대 5로 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중앙에서 하달한 지령은 그렇고 집행단위들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운흥군의 모범농장원과 백암군의 처녀분조장 그리고 삼수군의 중년 작업반장은 현물분배비율을 전혀 모르고있었다. 협동농장 살림살이의 주부인 관리위원장(보천군)만이 수령님께 량정총국장과 똑같은 대답을 드릴수 있었다.

채국룡은 수령님께서 감자와 알곡분배비율문제에 각별히 모를 박아 물으시자 은근히 가슴이 저러났다. 감자면적을 늘리려는데만 치중하고 수확물처리에 한하여서는 생각조차 없이 도농업일군회의를 지도하였으니말이다. 량강도 농업일군들의 일치한 주장대로 감자면적을 대폭 늘이어서 감자사태가 나게 되면 처리난에 봉착할것이 불보듯 뻔했다. 따라서 회의를 성과있게 이끌어가자면 주민소비기준을 더 늘이게 하는것 등으로 수확물처리문제도 동시에 제시해놓고 토의에 붙였어야 했을것이였다.

《량정총국장동무, 인민봉사위원회에서는 왜 감자분배비율을 5대 5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수령님의 물으심은 현물분배에서 왜 감자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였는가 하는 문제이시였다. 그러나 채국룡은 생산자들이 감자를 많이 소비하기 마련일것이라는 관념이 너무 강하던 나머지 그이께서 왜 5대 5에 머무르게 하였는가라고 나무라시는것으로 잘못 듣고 회의지도를 폭넓게 하지 못한 자신을 계속 뉘우치고있었다.

《오래동안 보관해낼수 없는 감자를 처리하기 곤란해서 그렇게 하였습시다.》

수령님께 량정총국장이 이렇게 말씀드려서야 채국룡은 자기가 수령님의 물으심을 잘못 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령님께서 자기가 쫓아오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사실에 내심 놀랐다.

《보관하기 어려우면 썰어서 말리우게 하든지 전분가공을 하게 하든지 했어야지요. 총국장동무는 감자를 많이 분배받은 농장원들의 식생활형편이 어떠하리라는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수령님의 어조에서는 시종 외지에 나가 고생하고있는 자식의 소식을 듣는 어머니같은 아픔이 절절히 느껴졌다. 채국룡은 어리둥절해졌다. 감자를 직접 소비하고있는 저 모범농장원이나 처녀분조장, 중년작업반장도 식생활에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기때문에 감자분배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지조차 않은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수령님께서서는 감자분배비율이 높은데 대하여 나무라고계시니 채국룡이로선 선뜻 그이의 뜻을 리해할수가 없는것이였다.

《수령님,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인민성이 결여된데로부터...》

《좋습시다. 목은 덩불을 들추지 맙시다.》

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농업담당비서의 사과를 자르시고 결연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올해 가을부터 덕지대 농장원들의 현물분배에서 감자량을 이전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알곡비율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시다.》

수령님께서서는 량강도에서 감자면적을 늘일데 대한 토론이 분분하다기에 어제 저녁식사때 감자를 찌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오래간만에 감자를 맛보았더니 확실히 감자는 주식물로선 가치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에는 감자로 끼니를 에운 날이 적지 않았습시다. 그런 날들은 대원들이 허기들어 하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전후에도 우리는 북부고지대에다 밭곡식의 왕은 감자라는 구호를 내걸게 하였습시다.

그러나 오늘에야 무엇때문에 감자생산자들이라고 하여 감자위주의 식생활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전날과 판이하게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감자고장 인민들도 쌀위주의 식생활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대대로 물려받은 소원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면서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 살아보자는것이 아닙니까? 나는 우리 대에 기여이 그 소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속타산을 해보시다가 결연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감자면적을 줄이고 그 대신 고지대에 맞는 밀과 보리를 많이 심어 알곡작물면적을 늘여야 하겠습시다. 현재 고지대에서 주작물로 심고있는 밀, 보리의 정당수확고가 꽤낮은편입니다.》

그러므로 감자면적을 총 경지의 40프로정도로 줄입니다. 그래도 감자밭 전면적에 <포대5호>와 같은 다수확품종을 심으면 지난해의 총수확고에는 얼마든지 도달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돌아가서 감자면적을 늘일 토론을 할것이 아니라 줄일데 대한 토론을 하고 정당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일 방도를 찾아내야 하겠습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도당책임비서와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이 연이어 일어서서 수령님의 의도를 잘 알겠습시다, 돌아가서 꼭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하겠습시다 하고 말씀드리는데 채창활이 황황히 일어섰다.

《수령님, 우리는 수령님 덕분에 지난날의 지주놈 부럽잖게 살아가고있습네다! 감자를 5대 5

쥼 먹는다고 해서 식생활이 허하거나 궁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밥에다 감자를 툇 터쳐서 섞어놓으면 구수한게 댜 쌀밥보다 맛이 퍽 좋습네다!》

채창활의 의도는 부디 감자면적을 줄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것이였다.

《과시 <감자대왕>다운 말씀입니다! 감자면적을 줄이는것이 무척 아쉬우신 모양인데… 로인님, 감자를 섞은 밥이 아무리 구수하기로서니 고기를 섞은 비빔밥보다야 낫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로인님을 건강이 허락되면 기어이 모시고 오라고 하였습네다. 섭섭해하실 로인님을 리해시켜드리려구 말입니다. 우리의 의도를 잘 리해하지 못하고 감자유익설을 주장하시다가 또 어떤 편협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분자라고 락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령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시름놓이시는듯 크게 웃으시였다.

《수령님!》 채창활의 눈에는 미음이 핑 돌았다. 《한생을 다 산 저의 신상에 설사 그 무슨 문제가 제기된다해도 그게 무슨 그리 중한 일이겠기에… 팔순이 넘도록 수령님의 하해같은 은총을 받아안기만 하고서… 한번도 보답해드리지 못한 저희온데 다시 또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십네까!》

채창활은 다잡던 감격을 락 터치고 두어깨를 세차게 들먹이며 흐느껴울었다.

(아, 한생을 다 산 두메늬은이의 신상에 십중팔구는 제기되지도 않을수 있는 문제까지를 다 우려하시고 미연에 막아주시는 수령님! 인민들자신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식생활상 허점까지를 다 헤아려보시고 말끔히 지워버려주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하늘이 아니시랴. 그렇다. 인민이 하늘이라면 우리 수령님은 하늘의 하늘이시다! 만민의 하늘!)

채국룡은 속으로 이런 탄성을 울리고있었다. 그러던 그는 문뜩 심한 자격지심을 느끼며 흐느낌에 휩싸여있었다.

가사

## 만수대언덕은 언제나 봄계절

김선지

만수대언덕은 꽃바다 꽃향기  
온 나라 꽃들이 여기 와 피네  
수령님을 못밋는 인민의 마음  
천만송이 억만송이 꽃을 피우네  
만수대언덕은 언제나 봄계절  
사시절 꽃바다로 향기풍기네

만수대언덕은 꽃바다 꽃향기  
온 세상 꽃들이 여기 와 피네  
수령님을 못밋는 세계의 마음

꽃다발로 엮어져 평양에 피네  
만수대언덕은 언제나 봄계절  
사시절 꽃바다로 향기풍기네

만수대언덕은 꽃바다 꽃향기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피네  
눈보라 일어도 락엽이 저도  
인민들의 정성이 사계절 피네  
만수대언덕은 언제나 봄계절  
사시절 꽃바다로 향기풍기네

## 인민의 소원

김원종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제 나름의 소원이 있으며 또 그 소원을 이루어보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과정이 곧 그의 한생을 이룬다고도 할수 있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부와 온갖 사회적복리도 다름아닌 그 소원의 산물이다. 그래서 어느 한 시인도 바라는것 없이 무슨 인생이라, 소원이자 곧 삶이요, 복된 삶은 소원의 꽃핀 동산이라고 하였는지 모른다. 결국 인생이란 소원의 홍망사이기도 한것이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하소할곳도 없고 그것이 실현되리라는 희망과 기대조차 품을수 없었다.

어머니들은 귀한 옥동자를 낳아놓고도 그것들을 먹여살릴 걱정, 입히고 공부시킬 걱정때문에 방구석에 돌아앉아 웃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냈으며 달덩이같은 딸을 낳아도 장차 키워서 시집보낼 일이 하도 막막하여 이런 딸자식이 더는 태어나지 말라고 필너, 완너라는 이름까지 달아주었다.

인민들은 자기의 소박한 소원이거나 이루어보려고 끊임없이 싸워왔다.

자주성을 위한 인류의 오랜 투쟁력사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온갖 착취와 압박, 무권리의 쇠사슬을 벗어던지고 인간답게 살고싶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로 역사를 그려놓았는가.

크건 작건 원하고 바라는것에 그닥 어렵지 않게 현실로 되군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나서자란 새 세대들은 소원이라는 말의 엄청난 의미를 잘 모를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 공기가 희박한곳에 들어가보아야 비로소 공기의 진가를 똑똑히 깨닫게 되는것과 같은 리치이다.

지난 세월 우리 인민들은 오늘과 같은 세상을 꿈속에 그려보면서 참으로 수많은 소원들을 품어왔었다. 착취도 압박도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며 인민이 주인행세를 하는 그러한 제 나라, 제 세상에서 살아보았으면 하던 소원, 당장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은 더 말할것 없고 자식들을 마음껏 공부시켰으면 하던 소원, 돈없어도 병을 고쳐보았으면 하던 소원, 자기의 온갖 재능을 다 꽃피워보았으면 하던 소원...

지금은 응당한것처럼 되어버린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원, 우리 민족사에 피로써 아로새긴 인민들의 그 천만가지 소원을 다 풀어주시려고 갖은 고난을 다 겪으시며 한평생을 바쳐오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서거하시는 그 절통한 순간까지도 민족의 최대의 소원인 조국통일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밤늦도록 집무실에서 일을 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굳게 믿으시였으며 한평생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실로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은 우리 인민의 온갖 소원들을 필생의 혁명과제로 삼으시고 그것을 다 풀어주시려고 고스란히 바쳐오신 고결한 생애였다.

그리하여 그 기나긴 나날에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소원이 쌓이고 덧쌓였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을 천년만년 길이길이 모시고 사는것이였다.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이 없고 그것없이 삶이 무의미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 소원, 바로 이 크나큰 소원을 한몸에 지니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는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여 우리 인민의 모든 소원을 한몸에 맡아안으시였다.

례사로운 어느 하루 어버이수령님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인민들은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년로하신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려고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다 말아보시며 분초를 쪼개여 일하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날도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어버이수령님앞에 서계시였다.

그러나 전과 달리 그이께서는 색안경을 끼고 좀 멀찌기 서시였으며 되도록이면 말쑤도 적게 울리려고 애쓰시였다.

다심하신 눈길로 그 모습을 찬찬히 살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윽고 그 까닭을 아시게 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실 매일밤 새다싶이 일을 하시였다. 집무실이나 저택이 따로 없고 때로는 문건을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차안에서 보고 처리하기도 하시였다. 어느 간이역 대피선에 세워놓은 열차칸, 농촌길을 달리는 승용차안, 현지활영에 나간 영화배우들이 휴계실로 쓰는 찬바람이 들락거리는 천막안, 그 모든곳이 그이의 집무실이였다.

그러니 무죄로 된 인간이 아닌 이상 어떻게 견디여내겠는가. 너무 무리하게 일하여 입술이 부르트고 눈이 충혈되고 목까지 쉬었는데 그것때문에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릴가봐 될수록 멀리

서서 말씀을 삼가하시는것이였다.

그 진정을 헤아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가슴이 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그러나 **김정일** 동지께서는 제때에 휴식할것을 권고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이제 인민생활이 유족해져서 수령님께서 기뻐하실 때 발편잠을 자겠다고 대답올렸다.

원목소리를 감추려고 애쓰시며 이런 말씀을 올릴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무도 가슴이 뜨거워 잠시 아무 말씀도 못하고 생각에 잠기시였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만나 의복도 고급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멋쟁이가 되어 다니는데 **김정일** 동지만은 아무때보나 우리 방직공들이 짠 수수한 천으로 잠바옷을 지어입고 다니며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과 이른새벽에도 문건을 보고 현지지도를 다니며 차안에서 켜기밥을 들고 쪽잠을 자고있다고 생각하시니 걱정을 누를수 없으시였다.

동서고금에 이런 충신, 이런 효자가 어데 있는가. 실로 나라와 인민에게 충성을 다하고 수령에게 효성을 다하는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추었다고 말할수 있다. 파시 충신중의 충신이요 효자중의 효자이다. 이런 령도자를 맞이한 우리 인민은 참으로 복중의 복을 받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무도 기쁘고 대견하시여 당의 령도밑에 끝없이 번영하는 우리 시대를 **김정일** 시대라 부르시였고 친히 주옥같은 송시를 써주시였다.

실로 문무충효를 겸비하시여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희망의 별, 소원의 상징으로 간직된것은 인제부터였던가.

아마도 그것은 항일혁명투사들이 백두밀림의 아름다리나무들에 뜻깊은 글발을 새겨넣던 그때부터였으리라.

《백두산에 **김일성**대장 계승인 탄생》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

항일의 전사들이 백두산밀영의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적들을 멀리멀리 유인해가다가 쓰러지게 된 그 마지막 순간에 품은 피를 적시여 써놓은듯한 이 뜨거운 글발에 우리 인민의 온갖 소원이 다 담겨져있지 않았던가!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안고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고통받던 인민과 더불어 성장해오신분.

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는 그때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생을 많이 겪으며 성장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그마한 귀틀집에 어리신 아드님을 혼자 남겨두고 자주 훈련과 공작에 나가곤 하시였으며 그때는 식생활도 참 곤란해서

잡술것을 제대로 대접 못하여 끼니를 건들 때가 많았다. 그리고 옷도 제대로 못입으시였다. 모름지기 이 세상의 위인들가운데서 **김정일** 동지처럼 유년시절에 먹을것, 입을것때문에 고생한 위인이 없을것이다. 우리 녀대원들은 그 정상을 보며 가슴을 저머내는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안타까움에 눈물짓곤하였다.

그런속에서도 **김정일** 동지께서는 백두산의 아들답게 곳곳이 성장하시였으니 우리는 그분의 답차고 영특하신 성품과 새별같은 눈빛에서 일체를 타승하고 승리할 래일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곤하였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시고 희망이시였으며 승리의 상징이시였다.》

그 간고한 시절에 그이께 차례졌던 요람이란 천조박들을 모으고 군복숨을 뜯어내여 만든 《쪽무이》포단이였고 그이께서 드신 첫 음식은 소금을 둔 통강냉이죽이였다.

그러기에 한 녀성항일혁명투사는 평양산원이 개관되었을 때 그 상상밖의 화려한 아기방을 돌아보다가 너무도 감격하여 침대곁에 주저앉으며 목메인 소리로 말하였다.

《언젠가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녀대원들에게 녀성들의 소원풀이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왕궁이면 이런 왕궁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

여기에 어느 한 외국의 명망높은 문인이 쓴 글을 더 인용하지 않을수 없다.

《나는 조선동해기슭에 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만난 어린이들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

야영소의 매 침실마다 4~6개의 침대와 텔레비존수상기, 랭동기, 전화기가 놓여있다.

그 전화기로 국제전화도 할수 있다. 야영소에는 전자오락실을 비롯한 여러가지 활동실들과 화려한 회관과 식당이 있다. 지어 집을 떠나 야영생활을 하는 기간에 생일을 맞는 어린이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생일식당도 있다. 어린이들의 야영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후대들에 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랑과 배려가 특별하다는것을 엿볼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령도자의 인덕에 따라 정치와 민족의 넓이 좌우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21세기의 탁월한 수령의 귀감으로 되실것이며 주체의 사회주의는 우리의 행성을 고통과 불행, 무지와 빈궁의 나락에서 구원해낼것이라고 격조높이 찬양하였다.

인민의 소원이 그대로 령도자의 소원으로 되고 그것이 대중의 힘과 지혜로 전환되어 현실화되자면 령도자의 정치리념, 정치철학이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백두산밀영에 서리꽃 하얗게 피던 반세기전 2월의 그 아침부터 오늘에 이르는 **김정일** 동지의 한생은 무한한 인덕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 오직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걸어오신

은인의 한생이다.

지난날 락랑벌의 시뻘건 진창길과 미림벌, 문수벌의 쑥대밭을 걸어본 사람들은 오색장식등이 령롱하게 비치는 한밤중의 큰 거리를 걸어가다가도 문득 걸음을 멈추고 두리를 살펴보며 이것이 과연 꿈이 아닌가 하고 자문할 때가 있다.

꿈과 리상은 세월이 흐른다고 실현되는것도 아니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소원이 풀리는것도 아니다. 급세기의 시초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인민들이 대를 이어오며 술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세워놓은 사회주의, 인간이 황금의 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일떠세웠던 그 소원탑들이 어떤 나라들에서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집권자가 수령과 인민을 배반한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슴아픈 붕괴로 하여 인민들의 온갖 소원은 폐허로 돌아갔다. 그 소원탑의 폐허에서 인민이 통곡한다.

시골의 소박한 할머니가 제기하는 의견도 정책에 담아 집행하는 우리 당,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지만 군중우에 군림하여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하시며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우리의 **김정일**동지.

우리 수령님의 평생소원은 인민의 행복이었다.

수령님의 소원속에 가득 담겨진 인민의 소원, 바로 그것을 함몰에 맡아안으시고 풀어나가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끝없는 로고의 자옥자옥은 수령과 인민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기념비, 충효비, 은덕비가 되어 락원의 이 강산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평양산원, 빙상관, 경기장, 체육관들, 학생소년궁전들 그리고 평양과 지방의 수많은 기념비적대건축물들과 웅장한 거리와 마을, 도로들, ...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참모습과 위용을 떨치며 수풀처럼 일떠선 거창한 공업기지들과 농업시설들, 부강번영하는 내 조국의 자람이며 보배인 그 모든것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품에서 태어났다.

언젠가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황해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다가 신천군에 있는 수영장에 들리신 일이 있었다.

신천수영장은 온천물을 그대로 끌어들이 큰 크지 않은 수영장이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수영선수들은 이곳에서 겨울철훈련을 하였다.

수영장을 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심려어린 안색으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우리의 체육인들이 세계무대에 나가서 우승을 쟁취하고 공화국기발을 날림으로써 조국의 영예와 기상을 떨칠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수영선수들이 사시절 마음껏 훈련할수 있는 좋은 수영장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비도 변변치 못

하고 온천물냄새가 나는데서 선수들이 훈련을 해가지고야 어떻게 이기겠는가, 이제 돈이 생기면 우리 선수들에게 수영장을 하나 잘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 간곡한 말씀을 받아안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로지 인민만을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눈굽이 젖어오시였다.

외국방문의 수만리 먼길을 걸으실 때에도 그 나라의 큰 경기장과 빙상관 같은것을 보시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것을 마련해주어 마음껏 축구도 하고 빙상무용도 하게 해주고싶어하시는 수령님.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도 어버이수령님의 그 소원을 가슴깊이 새겨두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시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우에 창광원이라는 건설대상이 자리잡게 되였다.

수영경기장과 관람석은 물론 목욕탕을 비롯한 온갖 현대적인 편의봉사시설들이 최신형으로 다 갖추어진 우리 식의 창광원.

그러나 설계일군들은 물문제가 걸리기때문에 위치를 대동강기슭의 동평양으로 옮기거나 그러지 않으면 한번 채운 물을 계속 정화해서 쓰는 방법을 적용하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 문제를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였다.

...창광원을 동평양으로 가져가면 인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처럼 한번 쓴 물을 계속 정화해서 다시 쓰게 하면 아무래도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인민들의 건강에 해로울수 있다. 인민들의 소원을 풀어줄바에야 왜 그렇게 하겠는가. 인민이 바란다면 강물이 산이라도 넘게 하여야 한다. 로력과 자금을 아끼지 말고 통이 크게 작전해서 대동강의 맑은 물을 끌어와야 한다....

강물이 높은곳으로부터 낮은곳으로 흐르는것은 자연의 리치이다. 인민이 바란다면 그러한 자연의 리치도 뒤집어엎어놓는것이 그이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설계일군들은 그 의지에 끝없이 고무되어 대담한 작전에 달라붙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4월 15일이였다.

그날 이른새벽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불쑥 창광원건설장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4월의 봄명절을 맞는 건설장의 일군들을 축하하시교나서 대동강물을 끌어오는 문제가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뜻을 받들고 대담하게 방도를 탐구하여 곧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씀올렸다.

일군들의 힘있는 대답을 들으시자 그이께서는 큰 시름이 놓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더니 가까이 에 선 일군의 손목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고맙다고, 자신께서는 지금 수령님께 생신날 아침인사를 올리러 가던 길인데 이 사실을 보고드리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하

시며 동무들이 내가 명절날 수령님께 올릴 큰 선물을 마련해주어 정말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시었다.

잠시후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는 새벽어스름속에 우렁이 룡박을 나타내기 시작한 보통문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그 승용차를 멀리멀리 바라우며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일군들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조상전래의 풍습이나 레의법절로 보아도 옷사람의 생일날에는 아래사람이나 친지들이 큰 상을 차려올리고 선물을 드리는것이 상식이다. 또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레절이다. 하물며 온 세계가 우러르는 우리 수령님의 생신날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이런 날에조차 인민들에게 차례지는 엄청난 혜택이 수령님께 올리는 큰 선물로 되었다고 그것을 그리도 기뻐하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

나라의 령도자는 차려진 권한과 법으로 국민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수천년 굳어진 통치개념과 통치방식을 송두리채 뒤집어엎고 우리 수령님의 정치철학, 정치방식을 최고의 높이에서 집대성하시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신성불가침의 구호를 추켜드신분.

그 거대한 사상, 천재적리론을 고요한 서재의 탁상우에서가 아니라 새 생활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념원과 지향속에서 발견하시고 또 실천해나가는 **김정일** 동지.

실로 하찮은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엄청난것에 이르기까지 인민이 바라는 모든것에 빈틈없이 스며있는 친애하는 그이의 세심하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어느해 설날아침에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앞에서 축배잔을 드시고 그이께서 하신 첫 말씀도 지난해 우리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수많은 처녀들이 영예군인들에게 스스로 시집을 간것이라는 것이였다.

영예군인이 된 자식의 일신상문제를 놓고 남모르게 속태우던 어머니들의 애모뿐 심정이 풀린것, 그것이 한해동안 당과 국가가 이룩한 첫째가는 성과라고 기쁨에 넘쳐 언명하시시는 우리의 령도자.

그이께서는 고열로동에서 해방되고싶어하는 용해공들의 소원을 담아 대야금기지에 막대한 당자금을 몽청 때내어 전면적자동화의 새 일터를 펼쳐주시고 광부들을 찾아 수천길 지하막장에도 내려가시였으며 비내리는 눈두렁길과 남새포전길도 걸으시고 방직공녀인들의 출퇴근길이 넘쳐되시여 저녁무렵 뺨스정류소에도 걸음을 멈추시였다. 온 도시가 아직 새벽단잠에 들어있을 때 거리의 뒤 골목에서 들려오는 알릴듯말듯한 종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식료양점판매원의 남다른 봉사성을 그토록 높이 치하해주실 때 온 나라 가정의 녀성들은 그 친아버이사랑에 목매여 울었다.

인민들이 바라는것,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하

늘의 별이라도 따오실 우리의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는 인민생활을 위한 대용단으로 수실리날바다를 단숨에 막아 세계를 놀래운 서해갑문 건설의 기적을 창조하시였고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 지구의 반대쪽까지 려객기를 날리시였다.

참으로 이제는 그 모든것이 범상한 일처럼 되어버린 우리 세상.

그러나 남조선에서 들어온 한 정치인은 이 현실이 너무도 놀라움과 얼른 믿어지지 않아서 어느날 제철소의 한 로력혁신자용해공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주신 환갑상을 받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것을 어떻게 하면 억척하고 무마하고 포기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안출해내는것이 력대로 이남 위정자들의 정치과제였습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폭동진압경찰의 수가 그것을 실증해줍니다. 농민들이 물과 비료를 달라거나 농산물가격을 올려달라고 제기를 하면 <대통령>이라는자는 화를 벌컥 내면서 너희들더러 누가 농사를 지어먹으라느냐, 이민으로 가든지 품팔이를 하든지 채간것 빌어 먹을것이지 왜 성화를 멕이느냐, <대통령>은 그런 촌놈들의 아우성이나 듣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국민들의 소원같은게 뭐 말라빠진것냐 하는 태도입니다.

이북은 그야말로 별천지입니다. 령도자가 친부모가 되어 자식들의 크고작은 소원을 다 맡아안고 풀어주시려고 온갖 애를 다 쓰시니 어느 누가 이런 령도자님을 하느처럼 받들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민심이 천심이여서 이제 **김정일** 지도자님께서 통일조국의 령수로 등단하시게 될것입니다.》

한때 남조선의 정치무대에 나서보았던 사람의 이 말에는 추호의 가식도 파장도 없다. 그가 체감한 모든것은 오직 진실일뿐이다...

자나깨나 우리 인민이 품고사는 가장 큰 소원은 조국통일이다.

그것은 풀어주기 위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전에 머리에 흰서리 내리도록 심려하시며 잠을 못이루시였다.

오늘 통일을 비라는 겨레의 마음은 수많은 강줄기가 바다로 모여들듯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로 달려오고있다.

《통일대통령 **김정일**》이라는 대형현수막이 서울바닥의 고층건물에 걸리고 사시장철 남해바다가에 **김정일** 화가 피어난다. 도교와 오사까의 달리는 전차안에서 우리 동포들이 **김정일** 동지의 전기를 읽으며 로스안젤스의 동포음악단이 《따사로 온 그 품이 그림습니다》를 흠모의 정에 넘쳐 열정적으로 연주한다.

겨레의 통일념원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뜨거운 손길에 이끌리어 《통일의 꽃》 립수경이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겼고 문익환목사가 복행길을 단행하였다.

그이의 대해같은 도량과 우주라도 그러안을 포용력에 매혹되어 지구의 한끝에 튕겨났던 곡절많은 망명자들이 참조국의 품을 찾아와 인생전환을 하였고 애국심을 간직한 남녘의 수많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들이 평양으로 달려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례의 절절한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북과 남, 해외에 널리사는 우리 동포모두에게 통일의 밝은 앞날을 밝혀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다.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민족최대의 소원의 체현자로서의 **김정일** 동지의 위인상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한 하나의 사실은 여기서 되살려본다.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이 거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인민들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이 뜻깊은 날 주체의 최고성지에 쏠려있었다.

아직 공식추대를 받지 않으신 **김정일** 동지의 모습은 어떠하며 또 어떤 연설을 하시겠는가, 개관식은 대체 어떻게 진행되며 요인들은 어떤 순서로 나오겠는가 하는데 세계의 관심사가 집중된 것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정치동향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모으고 그어 된 변화의 징조라도 나타나기를 은연중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과 국가의 공식수위가 1년이 되도록 빈자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엿갈리는 의욕과 추측을 버리지 않고있었다. 그러니 이 력사적인 시각, 이 전환적인 의미를 가진 마당에서는 대체 어떤 말, 어떤 장면이 중점을 이룰것인가?

동서방의 위력한 통신수단들이 평양에 파장을 맞추고 예민한 촉각을 도사린 이 순간,

실로 만인의 상상을 뒤집어엎는 장면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펼쳐갔다.

수만의 군중이 궁전앞광장에 모여서서 엄숙히 기다리는 가운데 이윽고 **김정일** 동지께서 테프를 꿇으러 나오시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이께서는 남녘땅에서 온 하얀 소복차림을 한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와 해외에서 찾아온 지평이를 짙은 교령의 한덕수의장을 좌우에 대동하시고 붉은 테프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시는것이였다.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은 그뒤를 따랐다.

순간 각이한 사상과 리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수그리였다. 어떤 열풍이 가슴에 와닿는듯한 느낌이였다.

두말할것 없이 지금 **김정일** 동지께서는 남녘과 해외에 사는 동포들모두를 드넓은 한몸에 안으시고 이 자리로 나오신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단순한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만 보겠는가. 이 의미심장한 화폭의 밑바닥을 뜨겁게 굽이치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 저 교령의 두 로인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였으며 인류의 대성인이시였던 경애하는 수령님을 찾아 이곳으로 달려오는 남녘과 해

외동포들의 열화같은 심정의 대표자들이다.

분계선장벽이 막히고 제국주의 봉쇄의 바다가 막히여 오지 못하는 수천만 거례의 눈물겨운 소원을 헤아리신 우리의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는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수령님앞에 우리 거례모두를 안고오시여 민족의 큰 소원을 풀어주신것이다.

그리하여 세계는 다시금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오직 **김정일** 동지만이 조선민족의 어버이이시고 유일무이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민족의 최대소원을 풀어주실분이라는것을 거듭 확인하였다.

이것은 세상에 널리 공개된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은 세상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인민들속에 전설처럼 퍼져가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인간,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정일** 동지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떻게 비상한 애국애족의 나날로 흘러가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애도기간이 계속되던 어느날 밤 보도부문에서는 그이께 정상적인 통신자료를 올린 일이 있었다.

그가운데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된 외신보도가 있었다.

…최근 남조선에서 련달아 일어나고있는 대형사고들은 그곳 《정권》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있다.

대형객선의 침몰로부터 시작하여 특대형의 참사들이 이해 들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것은 한강성수대교붕괴, 서울 룡산과 대구에서의 가스관폭발로 이어지다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 이르러 실로 참사의 극치를 이루었다.

여러 사회계의 여론은 이것을 《정권》붕괴의 명백한 조짐으로 평하고있다.

이것 쏘련의 붕괴전야가 그러했다. 발찌끄해에서의 대형합선침몰사건이후 크고작은 사고들이 련발하다가 드디어 체르노빌의 대참사에 이르렀다. 이 거대한 방사능의 방출사고는 지난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입은 원자탄피해의 거의 10배도 넘는 극히 참혹하고 엄중한 지구적재난이다.

이 만회할수 없는 재난이 하나의 방조이기라도 한듯 그후 쏘련은 붕괴일로로 줄달음쳐 오늘과 같이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말았다.

인재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결코 미신적견해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끔찍한 특대형 참사들은 김영삼 《정권》이 종말에 가까왔다는것을 예고한다....

이 객관적보도는 랑철한 눈으로 남조선사회를 들여다본 한 외신기자의 과학적예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글귀들은 향간의 술한 말밭에 오르고 정계에 파문을 던져 여당의 그릇된 정치를 비난하는 야당정객들의 손에 쇠뿔등을 쥐여준것처럼 되였다. 남조선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통신자료를 올린 다음날 새벽, 해당부문의

한 일군은 갑자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걸어 오시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전과 달리 무척 침중하고 갈리신 음성으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었다.

...어제밤 통신을 보았는데 삼풍백화점붕괴로 인한 피해정형과 구조대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알려줄수 없겠습니까?

민족의 의사를 배반한 그런 《정권》이야 아무 때든 응당 무너지고 말것이지만 지금 희생되고있는것은 모두 우리 동포들이 아닙니까. 저녁시간에 저자보러 나왔던 가정부인들이 수백명이나 파묻혔다니 이런 큰 변이 어디 있습니까! 술한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고 울고있을텐데 그애들이 누구보다도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새벽 6시에 퇴근하여 잠간 쉬려고 누웠는데 잠을 이룰수가 없어서 전화합니다...

그 일군은 뜨거운 걱정이 치밀어올라 수화기를 가슴에 붙안은채 눈굽을 적시며 아무 말씀도 울리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의 생각이 이 순간 그의 심장을 휩싸고있을뿐이었다.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7천만 우리

겨레모두는 친애하는 그이의 친어버이사랑의 한 품속에 안겨왔다.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소원이였고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소원인 조국통일의 새날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그 위대한 품에서 밝아올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함께 영생하신다.

어버이수령님의 간절한 소원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었으며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계승으로 하여 더욱 황홀한 현실로 펼쳐질것이다.

이 복된 날을 맞이하여 우리 겨레모두가 한마음되어 바라는 크나큰 소원은 무엇인가.

꿈결에도 바라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통일된 내 조국이 다가오는 새 세기에 주체의 강국으로 이 행성우에 우뚝 솟아오르게 하기 위하여 인민은 기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여, 부디 영생하시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시라!

## 만경대

김정곤

만경대

만경대를 노래에 담으면  
노래가 아름다워집니다  
이 하늘 가슴에 비끼면  
가슴이 밝아집니다

만경대를 안고 공상하면  
세계가 황홀해집니다  
이 트랙을 지나며 자란 아이들  
꽃갈피도 고와집니다

봄의 단비처럼 만경대는  
만물에 싱싱한 생명을 주고  
사람들 마음에 오가며  
화목한 형제로 이어줍니다

때로는 사향가에 스며  
고향의 시내물로 돌돌 흐르고  
때로는 때루름장 들부시는  
우뢰로 터져  
혁명의 열풍을 일킵니다

만경대  
이 말은

무딘 호미로 고랑을 굽으며  
피눈물뿌리던 운명의 노예들을  
시대의 주인으로 내세운 새  
세계의 탄생이란 말

이 말은  
굽힘을 모르는  
신념과 의지로  
세계가 가야 할 창창한 미래란  
말

아아  
수수천년을 녹일수 없었던  
압제의 얼음장에  
봄시위를 터뜨려  
양춘을 불러온 인류의 성지

여기 한줄기 오솔길은  
혁명의 만리길에 굽이쳐가고  
여기 울바자에 터친 한송이  
꽃은  
사회주의 대화원을 펼쳤습니다

내 땅 한복판에  
만경대가 있어

저렇게도 위엄차게 백두가  
솟아있고  
사품치는 격랑에도 끄떡없이  
동방 내 조선이  
저렇게도 누리에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독소에도  
오염을 모르는 만경대의  
바람이  
그 어떤 광풍에도  
질줄 모르는 만경대의  
꽃망울이  
설레이며 터지며 만발하며  
바야흐로  
자주의 꽃천지로 지구를  
덮으리니

오, 만경대  
만경대는  
이 나라의 혈맥에 굽이치는  
자주의 숨결을 안고있습니다  
온 인류의 양춘가절을  
안고있습니다



## 노을속에 솟은 태양

리 석

1

열려진 창문으로  
별빛이 흘러드는 방에서  
뚜벅- 뚜벅-  
그 몇번이던가  
뒤짐을 전채 오락가락하기를

이밤  
김책의 눈앞에  
다시 펼쳐지여라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가까이 뵈고저  
발돋움하며 물결치던 그 모습들

그치지 않아라  
공설운동장은 예서 멀어도  
한낮의 그 열풍이  
아직도 인민의 환호성을 실어와라

얼마나 장군님 뵈고싶었으면  
얼마나 장군님 그리웠으면  
5천년 력사의 세파를 뒤흔치며  
온 강토가 들끓었으랴

한결음이라도  
더 가까이 뵈고저  
초저녁부터 자리를 잡고  
한밤을 꼬박 새운  
강서로인의 눈물에 젖은 목소리

얼마나 가슴뜨거운 환호였던가  
동해천리 어장에서  
련사홀 걸어서 당도한  
배군의 목메인 그 목소리

지우지 못하리  
장군님 지나실 길에 짙아드리려  
무명필 안고 달려온  
강동녀인의 불같은 그 목소리

잊지 못하리  
단상 가까이 다가서던 모습들  
눈을 비비고 바라보던 모습들  
발돋움하며 눈물젖던 모습들

이 나라 끝에서 끝까지  
파도쳐 달려와 웨치는  
민중의 거세찬 숨결이  
온 강산에 굽이치고있거니

공설운동장을 백배로 넓힌다 한들  
장군님 영상을 뵈우려는  
인민의 그 열망을  
어찌 다 풀어줄수 있으랴

온 나라가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실태이는 이밤  
그이를 가까이 뵈지 못한 아쉬움  
얼마나 클것인가

아, 이 순간  
김책은 보았어라  
태양의 영상을 뵈고저  
파도치며 키쫓구던 그 인파  
한결같이 흔들던 그 손길들

김책은 들었어라  
이 나라 강산에  
광복의 봄을 안고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뵈고싶어  
온 나라에 차넘치는  
흠모에 찬 목소리를

지체할수 없어라  
인민앞에 장군님의 영상을  
태양의 모습으로 내세우는 일  
이 한생각에 잠겨  
김책은 걷고있어라  
뚜벅- 뚜벅-

2

해방의 환희로 넘치는 거리에  
아직 장군님의 개선연설이  
방송으로 울려퍼지고있을 때  
김책은 들어섰다  
소문난 경성골 사진관으로

사진관에 들어선 김책

따뜻이 인사를 건넨다

- 수고합니다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증절모를 쓰고

무척 점잖고 허물없이

인상좋은 첫 손님 맞이한 기쁨에

사진사는 흥이 나서 대답한다

- 예, 해방이 되니 많이 옵지요

글쎄 요즘엔 사진관이 터질 지경입니다

- 그렇습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김책은 사진관안을 들여다본다

청류벽기슭을 그린 배경이며

량요의 조명등이며

세발사진기며

- 사진사아바이

어제 공설운동장에 갔었습니까?

김책은 기대어린 얼굴로

사진사의 대답을 기다렸다

한동안 묻는 뜻을 가늠해보고

사진사는 자랑하듯 터놓는다

- 예, 갔었지요

반가워하는 김책

- 그럼 연설하시는

장군님의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순간

사진사아바이 굳어진채

말없이 덤덤히 서있어라

어찌된 일인가

사진사의 얼굴표정이 달라짐은

혹시 장군님 가까이예

가닿지 못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피치 못할

그 무슨 실수라도 있었던 말인가

다급한 생각속에

김책은 다시 물어라

- 사진사아바이

사진기는 가지고 가셨겠지요?

- 그야 물론이지요

빼앗겼던 내 조국을 찾으시고

평양성에 입성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내 어찌 사진기를 잊고

그이를 맞이하러 갔겠소

돌이킬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사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듯

천정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사죄하듯 말을 이었다

- 어제밤 나한테 《평양민보》사에서

사장이라는 사람도 왔었수다

그 사람은 이자 당신이 물어보듯

그렇게 물었다우

김책은 자기보다 한발 앞서온 사람을

여기서 알게 된 기쁨도 컸지만

사진사의 다음 말이 더 기다려졌다

- 자기네 사진사가 찍은것보다

혹시나 더 좋은 필름을

내가 가지고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길을 마다하고 찾아온 사람에게

난 실망을 안겨주었수다

내가 사진을 못찍었다고 하니

사진기술에서 제노라하는 사람이

그 무슨 실책인가 하며

간다온다 말없이 가버렸수다

사진사의 죄스런 마음이

김책의 가슴에도 옮겨왔다

공설운동장의 인산인해를

사진사가 끝내 헤치고 들어서지 못한것이

자기의 실책인것만 같아라

사진사의 길을 퇴위주었다면

이렇듯 크나큰 실망을

그에게 주지 않을수 있었으리란 생각이

이 시각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진사아바이

다시 가슴속 아쉬움을 터놓아라

- 내 이젠 사진이구 뭐구

썩 그만두자는 생각까지 했었수다

위대한 장군님을 뵈고싶어하는

만백성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고

내 이제 무슨 체면으로

이 일을 다시 하라 생각했지요

난 해방된 이 땅에서

첫걸음부터, 헛디뎠수다

사진사의 그 목소리가

김책의 가슴을 쳤다

평범한 사진사의 이 마음이

이 나라 인민의 마음이 아니라

장군님의 초상을  
온 나라에 모시는 일은  
더 미룰수 없는것임을  
자기에게 깨우쳐준것이 아닌가

그 마음 깊이 새기며  
김책은 조용히 말하여라  
- 사진사아바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은 필름, 좋은 인화지를 준비해놓고  
기다려주십시오. 다시 오겠습니다

김책은 사진사의 두손을 잡고  
한참 흔들어주고나서  
중절모를 약간 들어올려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  
사진사는 놀라움 절반  
기대와 희망 절반으로  
따라나서며 다시 또다시  
절을 하며 바라본다  
-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때나 불러주십시오

### 3

《평양민보》사에 들러  
김태욱사장을 만나고  
인쇄설비도 돌아보고 오는 김책  
아직도 마음은 가볍지 못해라  
(이번엔 장군님께서 허락하실가?)

이제 장군님만 허락하신다면  
만사는 풀려나갈수 있건만  
쉽게는 그 일이 풀릴것 같지 않아  
마음은 더욱 번거로워져라

김책은 되새겨본다  
당창건을 선포하기 며칠전  
마음 다잡고 일어나  
장군님 집무실로 들어가  
조용히 아뢰던 그 말을

- 우리들이 것처럼 갈망하던  
당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는  
력사적인 날에  
아무때도 장군님의 초상화를  
회의장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던가  
- 그게 김책동무의 생각이요?  
또 한밤을 지새우신  
갈리신 그 음성

- 우리모두의 생각입니다  
그제는 안길동무에게서  
오늘은 최춘국동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쪽지편지도 보내왔습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선  
그런 일이 있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으시건만  
선뜻 받아주지 않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다

- 다시 생각해보오  
아직 인민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했는데  
그 일이 그렇게  
바쁜 일이겠소  
모든 일엔 선후차가 있지 않소?

인민들앞에 낯내기부터 해서는 안된다고  
굳이 사양하신 그 말씀  
이 시각 다시 울려왔어라

하건만 김책은  
또 물려설 마음이 아니였어라  
그는 지금 미더운 전우들의 얼굴을 그려보며  
혼자 중얼거리고있어라  
(동무들 이젠 마음놓소  
장군님께서 인민들앞에 첫 인사를 하셨으니  
다시 청을 올리면  
이번엔 승인하실거요)

김책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마음에 날개가 돋힌듯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속으로  
활개치며 뿔뿔 걸어가있어라

### 4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안길, 강건, 최춘국  
김책의 뒤를 따라  
장군님 집무실로 들어서고

사진사 서인호는  
집무실 옆방에서  
가슴 들먹이며  
대기하고있어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무실에 불쑥 나타난 투사들을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 놀라워하신다  
- 무슨 일이요?  
무슨 급한 정황이 생겼소?...

김책이 장군님께 말씀 올리여라  
- 장군님 오늘은 사진을 찍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소망일뿐 아니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입니다

- 그렇습니다 사령관동지  
김책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린듯  
세 투사 한목소리로  
집무실을 찌렁 울렸여라

그러자 장군님께서  
창문가로 다가가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여라

- 우린 당창건을 선포했지만  
아직 인민정권도  
혁명무력건설도 하지 못했소  
어찌 그뿐이겠소  
산에서 함께 싸우던 동지들의 부락도  
아직 그대로 안고있소  
그런데 우리 초상부터 내면 되겠소?

그이께선 창문을 여시고  
밖을 내다보시며 말씀을 이으신다  
- 김책동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오?  
그이의 뜻밖의 물음에  
주춤거리며 대답드리는 김책  
- 조국이 해방된지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다정하게 웃으시며  
- 그거야 나도 아오  
오늘이 바로 박록금동무가  
감옥에서 희생된지 5년이 되는 날이요  
지금도 함흥형무소에서 그가 부르던  
《유격대행진곡》이 울려오는것만 같소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장군님  
피우지 않던 담배를 드시며  
갈린 목소리로 말씀하시여라  
- 그들의 희생으로  
조국은 해방되었는데  
우린 그들의 사진 한장 못가지고있소  
나라를 찾고보니  
그들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지오

떠나간 혁명동지들을 추억하시여  
가슴아파하시는 **김일성** 장군님  
언제면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으실것인가

안길이 한결을 나선다  
- 사령관동지  
돌아오지 못한 그들도  
해방된 3천리강산에  
장군님의 초상화를 방방곡곡에 모시면  
마음놓고 눈을 감을것입니다

그래도 장군님은 말씀이 없으셨다  
이때라 김책은 정히 싸가지고온  
보자기를 책상우에 풀어놓았다  
- 이건 장군님의 초상화를 어서 뵈게 해달라고  
각 도 인민들이 보낸 청원입니다

그래도 장군님께선 말씀이 없으시다  
김책은 다시 말씀을 올려라

- 장군님  
동녘하늘에 노을은 피었는데  
해가 쏙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을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쏙지 않습니까?  
지금 인민들은 평양하늘을 우러르며  
민족의 태양을 뵈고저  
발돋움하며 기다리고있습니다

그 말에 더는 마다하지 못하시는듯  
장군님께선 돌아서시였다  
- 그렇단 말이요?  
나야 ,인민의 아들인데  
사진을 찍읍시다

그 순간  
조였던 탕개가 풀린듯  
투사들은 기쁨을 터쳤여라  
- 뵈었습니다 장군님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환성을 울리며 집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고나며 서둘러라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듯  
류달리 키 큰  
사진사 서인호 들어오며  
허리굽혀 장군님께 인사올려라

마주 걸어나가신 장군님께서  
서인호의 손을 잡아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시여라  
- 아바이

해방된 조국땅에서 이렇게 만나니  
참말 기쁩니다  
내가 백두산시절에  
아바이와 같은 사진사를 만났다면  
아마 업고 다녔을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조국을 찾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우리 동무들의 사진을 다 남겼을것이 아닙니까  
아бай를 만나고보니  
그 동무들의 얼굴이 더 그립습니다

물러선 투사들의 눈에도  
앞에 선 사진사아바이의 눈에도  
뜨거운것이 흘러라  
해방된 조국땅에 함께 오지 못한  
전사들을 찾으시는 장군님의 말씀에  
아바이는 말씀올려라

- 장군님  
장군님의 모습만 뵈오면  
인민들이 그 투사들을 다 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군님의 품속에서는  
영영 떠나간 전사는 한명도 없는줄로 압니다  
장군님 어서 사진을 찍읍시다

- 아바이 고맙습니다  
인민들이 나의 모습에서  
함께 오지 못한 동무들의  
그 모든 얼굴을 다 본다면  
사진을 찍읍시다!

아 력사의 순간이여  
우리 장군님께서 사진기앞에 서시였어라  
혁명렬사들이 가슴깊이 지니였던  
해방된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안으시고

## 5

해방의 기쁨으로 숨쉬는  
《평양민보》사  
잘카닥 잘카닥...  
물아가는 인쇄기앞에서  
마지막 완교지를 뽑아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김책과 김태옥, 서인호

눈길 모아 우러른다  
젊으신 청년장군의 초상화를  
삼도 왜적들 벌벌 떨게 하신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김책은 두눈 습벅이며  
두볼에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을  
하냥 견잡지 못해라

마치 밀영의 깊은 밤  
조국진군의 작전을 끝내시고  
통나무의자에서 일어서시며  
피창을 여시던 그날의 영상인듯  
눈보라 울부짖던 새벽  
적구로 먼길 떠나가는  
투사들을 바라워주시며  
령마루에 서계시던 그날의 영상인듯

- 이만하면 내놓을수 있습니다  
어서 장군님께 보여드립니다  
김책의 두손에서  
장군님의 초상화를 넘겨받은  
민보사 사장 김태옥  
끓어오르는 걱정을 진정 못해라

개선연설하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사진에 담지 못한 죄스런 마음으로  
후회하고 또 후회하던 서인호도  
한을 푼 기쁨으로 하여  
가슴은 높뛰기만 하여라

김책의 손을 와락 잡아쥐고  
서인호아바이는 절을 하여라  
천추에 씻지 못할 대죄를  
이렇게 씻게 하여준 은인에게  
거듭거듭 절을 하여라

그 순간  
태옥의 눈앞에 떠올랐어라  
장군님께서 개선연설하신 날  
민보사에 하얗게 모여왔던 사람들이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신문 한장이라도 가지고 가야  
마을에 들어갈수 있다고  
전차길이 뻗어간 큰길까지  
홀어지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태양을 기다리는 인민들의 마음  
그 마음들을 다 헤아려보며  
김책은 서두른다  
앞장서 걸어간다

- 빨리 갑시다

동무들이 꼭 올려야 합니다  
 김책은 활기있게 문을 나서라  
 하늘의 눈부신 햇빛아래  
 량쪽에 서인호와 김태옥을  
 나란히 세우고  
 붉은 천에 초상화를 정중히 싸서  
 두손에 받쳐든 일행이  
 해방산기슭으로  
 장군님 집무실을 향해 가고있어라  
 이 나라 인민들을

새 조선의 주인으로  
 온 세상에 내세워주신  
 영원한 태양의 품으로 가고있어라  
 삼천만이 꿈속에서도 그리던  
 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님의 초상화를  
 집집에 높이 모시고  
 그이와 한식술이 되리라  
 아, 하늘은 천만리로 열리고  
 대지는 꽃물결로 설레여라  
 조국의 무궁한 미래여  
 어서 마중오라 웃음소리도 높이...

## 숲의 설레임소리

한용결

매일 가꾸고 돌아보아도  
 성차지 않아라  
 대성산혁명렬사릉의  
 푸른 잣나무숲  
 어버이수령님 몸소 가꾸시던  
 저택의 나무들  
 정이월 겨울에도  
 여름 한철에도  
 수령님 반기며 설레이던  
 그리도 소중한 정원수  
 하기에 내 진정을 못하노라  
 창끝인양 쳐든 연록의 바늘잎새  
 주작봉과 속삭이는 그 소리 들으니  
 더더욱 뜨거워지는 마음  
 바로 여기였어라  
 위대한 수령님 주작봉에 오르시여  
 잣나무숲으로 온 산을 뒤덮어  
 사시장철  
 혁명선렬들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하시던곳이  
 몸소 키우신 정원수였기에  
 몸소 키워오신 전사들결에 심으시여  
 낮이나 밤이나  
 벗삼게 하시려는 그 깊으신 마음  
 더듬을수록 뜨거움에 젖어들고  
 영생하는 전사들  
 붉은 기폭에 싸안고도 모자라

백두의 푸른 정기 넘쳐나게 하시려  
 기울이신 그 사랑  
 자꾸만 눈앞을 흐리게 하누나  
 정녕 이 길이어라  
 온 나라의 푸른 숲 그리시며  
 문수봉에 오르시던 그날처럼  
 못내 발걸음 떼지 못하시던곳이  
 어버이수령님  
 곁을 떠난 전사들 한품에 안으시며  
 마음속에 두고간 조국의 산천을  
 머리맡에 펼쳐주시려  
 그리도 감회에 잠기시던곳이  
 어찌 산으로만 보이리까  
 어찌 숲으로만 알리까  
 하기에 내 여기 서니 다 보이노라  
 수령님 품에 안긴  
 투사들의 그 억세고 젊은 모습들이  
 다 보이노라  
 사랑과 의리에 목매여  
 눈시울 적시며  
 영원히 한모습으로만 서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밤이면 별들과 속삭이고  
 낮이면 바람결을 타고  
 아 푸른 숲이 설레여라  
 푸른 숲이 말하여라  
 이 세상 어디 가도  
 우리 수령님같은분은 없다고

## 뜻깊은 봄날이 전하는 이야기

만물이 소생하는 봄계절이 왔다. 어딜 둘러보나 고층살림집들사이로 연분홍빛, 노란빛, 연두빛의 색깔들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방불케 한다.

만경대로 향한 광복거리 양견으로는 노란 나리꽃이 흐늘어졌는데 고향집으로 줄지어가는 궤도 전차며 버스안에서는 우렁찬 노래소리가 그칠새 없다. 4월의 봄을 맞으며 고향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물결속에는 손에 손을 잡고 노래부르며 가는 유치원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의젓한 대학생들도 있고 가두에서 온듯한 늙은이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피부며 언어, 옷차림새가 서로 각이한 5대륙의 벗들의 모습도 보인다.

걸음걸을 숨엄해지는 마음을 안고 들어서는 만경대고향집, 그 옛날 이 나라의 보통집과 다름이 없는 이 추녀났은 초가집에서 우리 수령님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한 첫걸음을 떼시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쉬임없이 걸고 또 걸어오시었다.

못건디게 그리워지는 마음으로 고향집에 들어서는데 우줄우줄 뻗어간 기복들우에 웅장화려하게 솟아오른 광복거리의 모습이 비쳐들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인민의 락원을 안겨주시려 가는 세월 오는 세월 순간의 휴식마저 아끼시며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돌이켜진다.

정녕 우리 수령님 항일의 피어린 나날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해방된 조국땅에서도 인민을 위해 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그 얼마나 많은 심혈을 바치시였던가. 그 길에는 당을 창건하는 큰 위업도 국가를 건설하고 정규무력을 건설하는 거창한 사업도 있었다.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였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 복잡다난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시었다. 하여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백전백승의 당을 가진 인민으로 그 이름 떨치고 영웅적이며 혁명적인 자기 무력의 보호하에 붉은기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감으로써 이세상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된것이다.

고향집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레복을 정중히 차려입은 인민군장령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들을 바라보노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충실히 받아들여갈 자신의 사명감을 더욱 깊이 간직하시고 그 숭고한 뜻을 새세대 일군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모습이 우뚝이 안겨온다.

새 세대 일군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

승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모든 로고를 바쳐가시던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1972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계시게 된 기회에 조선인민군 창건 40돐이 되는 4월 25일을 맞으며 진행하게 될 조선인민군 룡해공군열병식과 평양 시내 7만명 청소년학생들의 대집단체조 등 행사준비정형에 대하여 말씀드리시고나서 이렇게 건의하시었다.

《**지금 로항일투사들이 이번 4.25명절을 계기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회포를 나누고싶다고 거듭 제기해오고있습니다. 만일 로투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실 기회가 계시면 그자리에 새로 자리난 군중, 병종 사령관들도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그들이 4.25행사에 참가하려고 모두 평양에 와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제의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생을 함께 해온 혁명전사들이 생각되시는듯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하긴 우리가 일에만 몰리다보니 가까이 있으면서도 조용히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 이전 몇사람 남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시면서 오늘 마침 시간을 낼수 있으니 항일투사들과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을 불러 그들과 하루를 보내시겠다고 하시었다. 이리하여 이날 새세대 군사간부들은 뜻밖에도 항일의 로투사들과 함께 아버지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항일투사들과 새 세대 군중, 병종 사령관들을 데리시고 꽃구름 피는 만경대로 가시었다.

뜻깊은 이날을 축복해서인지 날씨는 류달리 화창했다. 만경봉술술에선 새들이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부르고 사방 그 어디서나 만발한 꽃들이 짙은 향기를 풍기었다.

고향집뜨락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흘러간 옛시절, 고난겨웠던 소년시절과 시련 많았던 청년시절을 회고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함께 싸우다가 먼저 떠나보낸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시며 아까운 동무들을 잃었다고 너무 일찌기 떠나보냈다고 못내 애석해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우리는 희생된 동지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이 다하지 못하고간 혁명을 마지막까지 잘하고 또 혁명의 계승자들도 옹계 키우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혁명은 순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며 대를 이어 영원히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계승자문제를 중요하게 보시고 이처럼 간곡하게 말씀하신것이다.

돌이켜보면 력사에는 혁명의 계승자들을 옳게 키우지 못하여 치욕을 당한 나라들이 많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시며 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렀다.

만경대에서 조선혁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장구한 반세기의 력사를 감회깊이 회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칠골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칠골에 이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으니 사진이나 찍자고 하시며 항일혁명투사들을 몸가까이 불러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투사들의 기념촬영이 끝나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세대 젊은 일군들을 손저어 부르시며 **《새 세대 병종사령관들 다 오시오. …이번에는 동무들이 앞에 와서 앉으시오. …우리가 처음 시작했고 우리가 40여년간 해온 혁명사업을 계승해나갈 동무들인데… 동무들은 우리의 혈통을 이어나갈 교대자들이요.》**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품에 안아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우신 젊은 일군들에 대한 다함없는 믿음과 기대가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그 믿음, 그 기대를 심장에 깊이 아로새기며 새 세대 군중, 병종 사령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가운데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앞에 나란히 앉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뜻밖의 영광과 감격으로 하여 가슴이 한껏 부풀은 새 세대 일군들을 따로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오늘 동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촬영을 하여주신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새 세대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이 위한 투쟁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입니다.**

**항일혁명선열들이 수령님을 모시던 그 자세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절마다 깊은 뜻이 담겨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군들은 친애하는 그이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오늘의 이자리를 마련해주시였음을 뜨겁게 느끼였다. 그럴수록 일군들의 마음속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대로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충만된 결의가 불길처럼 황황 타올랐다. 그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고각기 자기 단위로 돌아간 군중, 병종 사령관들은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전달하고 그 관철으로 군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하여 며칠후인 4월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된 조선인민군 룽해공군열병식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따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할 우리 시대 군인들의 사상정신적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일대 정치적시위로 되였다.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보낸 만경대의 하루, 그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교대자들이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참으로 뜻깊은 하루였다.

자나깨나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훌륭히 받드시려는 일념을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 서거이후 맞은 새해 첫날부터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고 수령님의 제자, 수령님의 전사답게 일을 더 잘하자고 굳은 고무의 말씀을 해주셨으며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깃든 군부대들을 차례로 돌아보시며 가슴 뜨거운 일화들을 전설처럼 남기시였다.

이런 뜻깊은 하루하루가 력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져있기에 민족의 어버이를 뜻밖에 잃고도 우리 혁명무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어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우리 수령님 한평생 타셨던 인민행렬차는 종착역이 없이 영원히 달릴것이며 수령님 품들어 키우신 우리 새 세대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바라시던대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것이다.

생각도 깊이 고향집뜨락을 나서는데 갓 입대한 듯한 빨간 령장의 신입병사들이 또다시 고향집에 들어선다.

그들이 갈 길은 멀고 험하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없이 그 한길에 들어설것이며 예돌지도 멈춰섬도 없이 굳은 길을 따라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갈것이다.

우리의 마음처럼 푸르게 창창 열린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은 4월의 그 봄날을 영원히 전하려는 듯 대지를 더더욱 파스하게 품안은듯싶어졌다.

본사기자 리종성





## 주체의 최고성지에 깃든 위인의 충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리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시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존함과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떠받들려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 이 성지처럼 절세의 위인이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셔지고 위대한 사상이 누리에 빛발치며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그러한 성지는 이 세상에 없다.

1994년 10월, 금수산의사당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장에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충정에 넘치신 말씀이 절절히 울리였다.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신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지 못했것이 마음에 걸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그이의 목소리는 몹시 갈리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수령님을 생존해 계시는 때보다 더 잘 받들어모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기념궁전의 높은곳에 생전의 모습 그대로 조용히 누워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기념궁전건립의 한해는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모습만을 영원히 안고살려는 우리 인민과 인류의 최대소원을 성취시켜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결심과 의지, 로고가 하늘에 닿고 산천초목을 울려준 충효의 나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비치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충정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것은 금수산의사당에 기념궁전을 꾸릴것을 명철하게 확정해주신 데서 잘 알수 있다.

기념궁전을 세우는 문제가 나섰을 때 일부 일군들과 설계가들속에서는 단군릉가까이나 인민대학습당앞, 만경대지구에 새로 건설하자는 안들을 제기하고있었다.

여러가지 안들을 다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금수산의사당에 어버이수령님을 영생

의 모습으로 모셔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랜 기간 계시면서 사업하신 금수산의사당에 수령님을 영원토록 모셔야 한다는것은 참으로 충정넘치는 말씀이시였다. 정녕

금수산의사당처럼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모실수 있는 최고성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을수 없었다.

오늘 금수산지구에 우리 식의 기념궁전이 그 웅좌를 자랑하며 일떠서고 우리 인민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뵈올수 있게 된 거기에는 후세에 길이 전할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수없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한달이 되는 1994년 8월 8일, 아직도 인민들의 슬픔과 곡성이 하늘땅에 차넘치고있던 그날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 일군을 찾으시여 기념궁전을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 날부터 보름후에 또다시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기념궁전설계안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매 건설대상들을 밝아보시고는 구체적인 방향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기념궁전건설을 착공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받게 되였다.

초기의 형성안에는 립상홀이 따로 예견되어있지 않았다.

어느날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홀을 따로 내고 거기에 우리 수령님의 립상을 모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립상을 모시는 홀은 정중하면서도 룡맛이 나게 무게있게 꾸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홀내부를 아치형주랑으로 처리하면 교회당같은 감이 나므로 조선식건축형식인 단식천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개관식을 며칠 앞둔 날에 몸소 현지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립상홀에 음향설비를 설치하여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숭엄한 선율을 타고 울려나오게 하시였다.

립상홀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대리석상에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충정이 뜨겁게 어려있다.

온 나라 인민들이 비애의 언덕과 슬픔의 강을 넘고 헤치며 힘과 용기를 내면서 일어서고있던 1994년 10월 중순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날도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립상홀배경문

제와 함께 대리석립상을 잘 형상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날 대원수복을 입고계시거나 손을 높이 쳐드신 수령님을 형상한 립상도안들을 보시고는 인위적으로 상상을 형상하지 말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그이께서는 대리석립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수산의사당에서 활동하시던 때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과 외국손님들을 접견하시거나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수령님께서 뒤짐을 쥐고 서계시던 자세가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모습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하나의 대리석립상을 형상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들이 혼연일체속에서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기념궁전을 찾는 사람들은 립상홀에 들어서서 첫순간부터 친아버지가 계시는곳으로 들어서듯한 감을 느끼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립상을 숭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게 되었다.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뵈옵기 위하여 오르고 또 오르는 대계단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충정은 깊이 어려있다.

1994년 8월 10일,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설계진척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는 넓은 계단을 새로 만들어 수령님께서 두팔을 벌리시고 찾아오는 우리 인민들을 한품에 안는것처럼 계단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그러자면 기본건물의 구조에 구애됨이 없이 계단폭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더 넓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어느날 또다시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신발치수를 기준으로 계단바닥면의 폭과 넓이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여러차례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가장 알맞는 폭과 높이, 너비를 알려주시었다.

그리하여 기념궁전의 계단은 건물의 계단으로서는 건축력사에 없는 18미터폭의 대계단을 이루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1995년 6월 27일 기념궁전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이미전부터 관심해오시던 조도문제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람들은 맑은곳에서 어두운데로 갑자기 들어서면 한동안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것을 헤아려보시고 조도를 점차적으로 낮추어주도록 하시었다.

참으로 여기에는 립상홀로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이르는 동안에 시력조절이 다 원만히 되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똑똑히 뵈옵게 해주시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있었다. 또한 그때까지 기념궁전에는 노래소리가 울리지 않게 되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대리석립상홀로부터 시작하여 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홀에 이르기까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노래소리가 은은히 울리도록 음향설비를 설치하게 하시었다.

하여 방문자들은 누구나 기념궁전에 들어서서 계단실을 오르는 사이면 위대한 수령님을 똑똑히 볼수 있게 시력조절이 될뿐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마음에 안고 우리의 수령님은 영생하신다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되었다.

참으로 대계단은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멀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한없이 경건한 마음을 안고 되새겨보게 하는 혁명의 대로로 되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잘 꾸려 인민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손길은 계단실 한쪽옆에 특별히 마련된 승강기에도 깊이 어려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교령의 몸이거나 육체가 불편하여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의까지 헤아려주시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여기에 더 와보고 싶어할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불러주시며 승강기를 놓아 그들과 같이 나이많은 사람들이 리용할수 있게 하라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실로 기념궁전의 매 세부들에 대한 세심한 구상은 위대한 충정의 화신이 아니고서는, 동서고금의 건축사와 인류가 창조한 모든 건축유산들을 환히 깨든 건축예술의 대가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것들이었다.

**김일성**광장의 두배의 인원을 수용할수 있는 기념궁전광장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가.

어버이수령님서거 100일 중앙추모회가 진행되던 날이다. 그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금수산의사당에 모여와서 자리가 모자라게 되자 잔디밭에도 들어서게 되었다. 움푹 패어들어간 자리에 선 군중들은 뜨겁게 충혈된 눈굽을 찍으며 발돋움으로 수령님 계시는 금수산의사당쪽을 보고 또 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날 잔디가 못쓰게 되는것을 걱정하는 일군들에게 잔디가 귀한것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인민의 저 충성스러운 마음이 더 귀중하다고 하시면서 금수산의사당앞을 모두 광장으로 만들데 대하여 뜨겁게 가르쳐주시었다. 그리하여 오늘과 같은 기념궁전광장이 생겨났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의 최고성지에

《주체사상로작관》을 꾸리도록 하신 그 높으신 뜻에서도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그이를 높이 우러르게 된다.

《주체사상로작관》을 잘 꾸려 금수산기념궁전을 력사에 전무후무한 사상의 성지로 만들게 하여주신 **김정일** 동지!

불멸의 주체사상의 총서인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을 집대성한 백과전서, 참으로 이 불후의 위대한 고전들은 변함없이 인민들의 혁명의 등대, 투쟁의 화불, 승리의 기치로 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나 우리 곁을 떠나가신 지금에나 변함없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주체의 진리를 받아안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가르치심에는 충효를 겸비하신 위인의 품모가 얼마나 력력히 비껴있는것인가.

주체의 최고성지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더불어 전진하는 자주시대에 영원히 빛나는 휘황한 등대이다.

주체의 최고성지건설의 나날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성과 효성으로 이 땅을 더욱 뜨겁게 덥혀온 력사의 나날이었다.

때로는 이른새벽에, 때로는 깊은 밤중에, 때로는 식사시간에 경애하는 그이께서 기념궁전건설장을 찾으신적은 몇십번인지, 몇백번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일떠세우는 한해사이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사무치게 품어온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은 절세의 위인과 위인사이의 고결한 료리도덕적관계, 동지적관계의 분출이었다.

실로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산갈이 쌓이는

그러한 그리움을 기념궁전건설에 깡그리 쏟아부으신 희세의 충신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였다.

엄숙히 거행된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에서는 추도가가 아니라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히 주악되였다. 상례를 깨뜨린 이 사실에는 참으로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을 한달 앞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군들앞에서 이번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에는 인사만 드리게 하고 추도가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영생하기를 기원하는 행사로 되여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울음보다도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것이 기본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 충실하고 인민과 혁명에 충실한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만이 이런 충성의 화폭을 펼쳐놓을수 있었다.

주체의 최고성지의 출현, 이 위대한 기적적사변으로 하여 인류는 거대한 진리를 받아안았으니 그것은 혁명의 수령을 생존시에만이 아니라 서거후에도 어떻게 높이 우러러모셔야 하며 수령에게 바치는 참다운 혁명적의리와 료리도덕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셔진 금수산기념궁전, 이 주체의 최고성지는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께서 펼치신 길을 따라 승승장구하여 나아가는 시대를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인간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 유서깊은곳이다.

본사기자

##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게. 데. 베르디쉐브

붉은 꽃 두송이 활짝 피었네  
보는 사람들 마음 숨앎해지네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인듯  
인민의 마음 덥혀주네

항일전에 부르던 밀림의 우등불  
백두산에 타올라 꽃으로 폈나  
투사들의 그 신념  
그들의 흘린 피 한몸에 지녔나

타오르는 우등불과 함께  
격렬한 싸움의 나날은 지나가고

그날의 우등불  
승리의 화불로 타올랐으니

내 영원히 안고사네  
붉은 장미보다 더 붉은 꽃  
평양과 함께 가슴에 안고사네

희망도 붉게 피여라  
백두산의 꽃  
조선의 꽃  
인류의 미래 안겨주네

(필자는 우크라이나 끼예브종합대학 교수임)

## 수령님 생각

최성진

나는 어제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웠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에 넘치며, 피로운 일이 있으면 피로와서 어버이수령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민 누구에게나 이미 굳어진 관습이라고 할수 있다.

어버이수령님 탄생일을 앞둔 자정이 가까와오는 무렵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원고지앞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글은 한문장도 나가지 않았다. 사색이 중단된것이었다.

어찌된 일인가? 내 나이에 정력의 쇠진이란 도대체 당치 않은것이다. 지식의 고갈인가? 적어도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싶지 않다. 그것은 나쁜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창작적종말의 문어구에라도 올라선듯 불안하기만 했다. 드문히 겪는 일이지만 그밤 나는 피로왔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저 생활상의 일로 피로운것이라면 가까운 친구들에게 터놓고 피로움을 함께 나눌수도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만 이 일을 어이한단 말인가. 동료들앞에서 창작적 량심과 열정에 대하여 끝잘 력설하던 나였다. 이것이 부진이 아닐까? 이제는 나한테도 그런 시기가 온것이 아닌가? 이 일을 누구한테 가서 고백한단말인가?

동료들앞에서도, 가까운 친지들앞에서도 터놓지 못할 이 일을 두고 고민할 때 나의 눈앞에 우렁치 떠오르는 자애로운 영상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정녕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할일을 다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이 시각에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떠오르다니! 좋은 일만을 많이 한 사람들도 그분을 생각할 때면 부끄럽고 죄스러워 자책감에 모대기는데 내 이 일을 어이하면 중단말인가! 그래도 자꾸만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그리워지고 그이의 가까이에 가고싶은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과연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싹터올랐던가.

내가 무척 어렸을 때의 일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인민학교 첫 교복을 타입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자그마한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한테 걱정을 끼쳐드렸다.

숙제공부는 안하고 강가에 들러 고기잡이를 하다가 늦어서야 돌아온것이다. 푸른색 격자무늬

의 새 교복엔 흙물이 튀기고 한손엔 서너마리 되는 버들치꺄미를 든채 나타난 나를 보며 그때 젊었던 나의 어머니는 이렇게 꾸짖었다.

《이게 뭐냐? 아버지수님께서 주신 교복을 입은 애가 숙제공부도 안하는 나쁜 아이가 되다니. 아버지수님께서 아시면 뭐라하시겠니!》

어머니의 말씀은 나의 가슴에 맺히었다. 내가 나쁜 아이가 되다니! 나는 슬그머니 방안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보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계시였다. 그분께서는 어머니의 속을 태워서 안된다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타이르시는것만 같았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 나가 일하던 나는 어느해 겨울 닭공장 건설장에 이동작업을 가있다가 집에 도망쳐와 사흘을 놀았다. 그 일때문에 나는 작업반장령감한테 불려워갔다. 외지에 나가 일하다가 집에 좀 일보러 왔는데 뭘 그러느냐고 하는 나에게 작업반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것부터가 틀렸어, 이너석아! 어버이수령님께서 너희네 세대들을 크게 믿고계시는데 기껏해서 한다는 생각이 그게 다냐?》

나는 그때 덩석부리 반장령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늘 듣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런 일이야 얼마나 많았으랴.

나는 지나온 나날의 그 모든 일들을 참으로 뼈아픈 자책속에 돌이켜보게 될 기회가 있었다. 정말이지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여 온 겨레가 눈물로 낮과 밤을 보내던 그때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을 찾은 수천수만의 조객들속에는 나도 있었다. 추도곡의 비장한 선율이 울려나오는 그곳에서 나는 어릴적 숙제공부를 못하여 어머니한테서 종아리를 맞아야 했던 그 일도, 이동작업장에서 도망쳐왔던 그 일도 생각했다. 나는 나의 길지 않은 생애에서 몇몇치 못했던 모든 일을 생각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엔 그저 레사롭게만 지나쳐보냈던 일들이 가슴아픈 자책속에 돌이켜지는것이였다. 후회는 이미 영원히 풀리지 않을 피로움의 덩이였다.

그때부터였다. 분명 그때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인간이 부활한것 같다. 나는 심중에 고여있는 모든것- 부끄러워 친지들앞에서조차 말

못하는 사연까지도 어버이수령님앞에 마음속으로 아뢰이는 습관이 생겨났다. 하여 나는 지난밤에도 만수대언덕으로 올라간것이였다.

고요한 평양의 밤, 온 인민이 요람속에 잠들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불이 환히 켜진 만수대언덕우에서 자애로운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

나는 정중히 머리숙여 어버이수령님앞에 인사를 올리였다. 순간 머리우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아니, 나는 분명 그분의 우렁우렁하고 친근하신 음성을 들었다. 어이하여 이밤에 잠들지 못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는 음성을 들었다.

어버이수령님! 저는 벌써 지치고 재능도 모자라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민한 자식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뢰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밤만은 나의 종아리를 치셨으면, 그랬으면 속이 후련할것 같았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전히 자애로우시였다. 사람이란 먼길을 가느라면 때로 지쳐 쓰러질수도 있고 아득한 그 길이 더욱 멀게만 생각되어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 때도 있는거라고, 하지만 마음속 신념만 든든하다면 다시 일어나 인생의 구만리길을 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아들아, 어서 힘을 내거라,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나는 혁명의 무기로 틀어잡은 붓글이 잠시나마 방황했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 운명의 매 걸음을 지켜보시며 먼먼 앞길을 축복해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등불이 빛나고있지 않는가. 그 등불은 나를 참된 인생의 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그분, 나의 운명의 보호자이시며 스승이시며 마음의 억센 기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이시다.

가사

첫걸음을 떼여 주던 어머니 손길인가  
바람 세찬 길을 가도 마음은 든든해라  
아 우리 당의 손길이 가리키는 그 길은  
내 삶의 걸음을 곧바로 이끄는 길

한번 잡은 내 손길 영원히 놓지 않고  
천만리를 함께 가며 나갈 길 열어주네

그렇다면 나는 정녕 무엇때문에 이밤 잠못들고 있는것인가?

나는 머리를 들었다. 거연히 서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그분의 거룩하신 눈빛! 아, 나는 정녕 부끄러웠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서있을수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서 올라나오는 량심의 목소리! 나는 아직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 무엇을 서슴는가. 우리 당과 어머니조국을 위하는 내 마음속에 한점 티라도 없었던말인가? 우리 앞을 걸어간 수많은 충신들처럼 내 가슴속에도 열화가 타번지고있단말인가? 그런 불길이 있었다면 어찌 가야 할 천만리를 앞에 두고 인생의 도중역에 잠시나마 주저앉을수 있단말인가!

《어버이수령님!》 나의 속죄의 목소리는 뜨거운 오열의 뭉치가 되어 목안을 짖 메우는데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 나의 심장을 두드리며 아득한 하늘가로 물리간다. 아들아, 힘을 내거라! 인생의 먼길을 힘있게 걸어가거라!

나는 다시 머리를 들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불빛에 싸여 잠든 도시! 안식의 깃을 내린 고요한 집들! 사람들은 아직도 판꿈을 꾸고있다. 어머니조국을 위해 흘린 땀이, 바친 로력이 없다면 어찌 저렇듯 단잠에 들수 있으랴. 일을 하자,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뭐가 되랴. 나는 이제 내려가면 글을 쓰리라. 열정의 붓끝을 가다듬어 나의 창작의 빛나는 《탑》을 쌓아가리라. 그 빛나는 《탑》속에 내 나라, 내 조국의 영광을 수놓으리라.

무엇이 두려우랴.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멀어도 두려울것이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밤도 나의 먼 인생길을 축복해주시지 않는가. 그렇다. 우리는 모두 어버이수령님의 축복을 받는 김일성민족의 자손들이다.

나는 열정의 부활을 느끼며 만수대언덕의 아득한 층계를 내리였다.

## 우리 당의 손길

김수은

아 우리 당의 손길이 가리키는 그 길은  
내 삶의 숨결이 뜨겁게 이어진 길

위훈안고 따르면 사랑을 더해주어  
비와도 눈이 와도 충효일심 따르는 길  
아 우리 당의 손길이 가리키는 그 길은  
내 삶의 운명을 영원히 이끄는 길

박용봉동무의 시를 보고 기쁜것은 남의것을 흉내내지 않고 제 나름대로 쓰려고 노력한 생동성과 소박성, 감정의 진실성입니다. 뛰니뛰니해도 시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성을 떠난 모든것은 거짓입니다.

이 두편의 시는 진실성이 흘러넘치는것으로 하여 이채롭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필자가 시를 전문적으로 쓰는 시인도 아니고 량강도의 한 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는 나이 지숙한 사람이라는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시 《그리운 4월》은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4월의 뜻깊은 날을 맞는 아침에 눈물이 그렇그렇 솟아오를것만 같아 애써 비분을 삼키는 필자의 심중이 보여오며 그 심중을 소박하고도 진정에 넘쳐 노래하고있습니다.

시 《눈물》은 농촌 선동원처녀의 소박한 눈물을 통해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는 우리 인민의 감정을 깊이있고 따뜻하고 다감하게 노래하고있습니다.

니다.

시 《그리운 4월》의 마지막편에서 《꿈같은 오, 생시같은》이라는 표현을 도출해냄으로써 시 전반에 흐르는 언어의 정서적색깔을 더 한층 돋구어주면서 탐구의 흔적을 뚜렷이하고있습니다.

시 《눈물》도 소박하고도 정찬 언어로 자기 감정을 엮어가다가 시의 마지막편에서 《저런 눈물 없는 사람도 사람일텐가!》로 맺음으로써 흔히 쓰는 요란한 웨침보다 더 뜻이 깊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있으며 시의 무게를 담보해주고있습니다.

두편의 시는 부드러워서 좋고 다정다감해서 좋고 언어표현의 생동성으로 개성이 살아나서 좋고 소박성속에 진정이 흘러 시는 뜨거워서 좋습니다.

좋은 시작품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시인 박호범

## 그리운 4월 외 1편

박용봉

류다른 4월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랑하시던 꽃을  
저저마다 고이 피워 들었건만은  
류다른 4월입니다

그렇게도 밝은 얼굴로 찾던  
수령님동상앞에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건만  
가슴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에 젖고  
꽃들은 추억에 젖은 애모쁜 이 4월

여든네번째로 맞는 4월의 이 봄이  
어이하여 이전같지 않습니까  
꽃은 예보다 더 많이 피여 향기를 풍겨도  
추억에 젖은 계단우에  
금시 그 무엇을 터뜨려놓을것만 같은...

나는 물어봅니다 대답없는 하늘을 붙들고  
세상에 눈물없는 사람도 있을가 하구요

나는 대답합니다

그리움에 사무친 강산을 흔들며  
은정에 우는게 사람이라고요

아 하늘이 높다지마는  
우리 수령님 인덕엔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령님을  
하늘이라 믿고 따랐습니다

바다가 제아무리 넓다지마는  
우리 수령님 자애의 기슭엔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그이를 구세주로 따르고  
어버이라 부른것 아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월은 무정하게도  
세상 아까운것을 다 실어가려 하지만  
몇백만년이 흐르고 번저도 못가져갈것은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4월입니다

그 4월에 삽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같은 웃음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천세만세 모시고  
 그날처럼 그 품에서 뛰놀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수령님 슬하에서

함뼉 젖은 꽃들은 이슬을 털고  
 깃을 내린 새들은 정적을 흔들고  
 사람들은 숙였던 고개를 들어

그리운 그리운 4월에 삽니다  
 장군님 빛내주신 그 4월에

모두다 손잡고 다시금 일어나  
 수령복을 받아안은 그 4월을  
 천추만대로 지켜갑니다  
 우리의 행운을 길이 지켜줄  
 꿈같은 오, 생시같은  
 영생하는 4월에 우리 삽니다

## 눈 물

들판을 웃기기도 하고  
 바람같이 빠르고  
 시내물처럼 즐거웁던 선동원처녀  
 당보를 내려읽던 그 눈에 오늘 또다시  
 유혼이란 글줄을 읽으며  
 가랑가랑 맺히는 눈물을 나는 보았네

선동원의 눈물은  
 맑고도 깊어  
 바람에 떨어지지도  
 별에 말라 없어지지도 않아라

오늘은 포전머리에  
 수령님 오시였던 바로 그날!  
 해님도 기쁨에 겨워 하늘에 뛰놀고  
 구름도 내리고파 햇숨같이 드리웠던  
 그날처럼 들판은 싱싱 푸른 이랑인데

논고에 앉아 물온도 짚어보던 그 손을 올려  
 손채양 고이하고 동구길을 살피도  
 중천에 해가 걸리도록 소식이 없으니  
 눈물에 실린 처녀의 그리움이  
 어찌 바람에 흔들리랴

아니 떨어지리 처녀의 눈에 고인  
 그 눈물은 뿌리가 있어  
 수령님의 은정 잊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추억  
 목메이도록 샘솟고 또 샘솟으니

그것을 어찌 무른것이라 하랴

두손 모아 받아보라 그러면  
 다음해 이맘때 다시 오마 하시던  
 수령님 말씀 새기고  
 들을 비움이 없이 땅을 걸구어온  
 처녀의 진정이 천금처럼 실려올것이다

깨끗한 수건으로 짚어보라 그러면  
 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효성을  
 위대한 장군님께 더해드리고저  
 포기농사에 움해온 처녀의 량심이  
 수정샘처럼 젖어들것이다

나무람 말자 그것은 값진것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만 삼가 올릴수 있는  
 더없이 간절한 전사의 아뢰임  
 딸의 가슴에서 흘러넘친  
 의리의 샘, 감사의 맹세

아낌을 말자  
 어머니들이 시켜서도  
 스승들이 가리켜서도 생긴것 아닌  
 오, 수령님을 잊지 않고  
 생존처럼 효성을 다해가는  
 저런 눈물없는 사람도  
 사람일텐가!

## 명제해설

《작가와 인물의 심리를 기본으로 하는 형상수법은 인물의 심리적체험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와 작가의 내면독백을 많이 펼쳐놓는 수법이다.》

###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명제는 작가와 인물의 심리를 기본으로 하는 소설에서 묘사대상과 형상수법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소설에서 작가와 인물의 심리를 기본으로 한다는것은 묘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작가와 인물의 심리라는것이며 심리에 대한 개방을 통하여 생활의 진리를 보여준다는것이다.

그러나 심리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의식의 흐름》 파를 비롯한 모더니즘소설들에서처럼 인간 심리를 반동적인 정신분석학의 원리에 따라 그리거나 현대수정주의자들처럼 병적으로 떠오르는 부정형적인 애매몽롱한 생각을 제멋대로 늘어놓음으로써 모더니즘에 동조하는것과는 인연이 없다.

다만 객관세계를 인간의 심리에 굴절시켜 보여줄뿐이다.

심리를 기본으로 하는 형상수법의 소설에서는 인물의 심리적체험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를 많이 펼쳐놓는다.

심리적체험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는 생활을 체험하는 복잡한 심리과정과 상태를 다양한 시점에서 다면적으로 의미깊게 그려주는것이다.

외형적인것, 현상적인것만 그려가지고는 복잡한 내면세계를 가진 현대인들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으며 작품을 통하여 인간생활의 진면모를 보다 깊이 음미해보려는 사람들의 요구와 지향을 충족시킬수 없다.

외형적인것, 현상적인것과 함께 인간의 내면세계에 직접 묘사의 각광을 돌려 분석적으로 그려냄으로써만 보다 내심적인것, 본질적인것을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보여줄수 있다.

인물의 심리적체험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에서 중요한것은 심리적체험을 철저히 생활의 논리와 사유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그리는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머리속에 얼핏얼핏 떠오르는 표상의 파편들과 잡다한 생각들을 제멋에 겨워 늘어놓거나 누구도 알수 없는 표현으로 황설수설하게 될것이며 결국에는 반동적심리문학의 전철을 밟게 될것이다.

심리를 기본으로 하는 형상수법의 소설에서는 작가의 내면독백도 많이 펼쳐놓게 된다.

작가의 내면독백에 대한 개념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처음으로 정식화해주신것이다.

지금까지 내면독백이라고 하면 극작품에서 등장인물이 자기 혼자 속으로 하는 말로 리해하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소설에서의 작가의 내면독백에 대하여 밝혀주신것은 우리 소설문학이 현대인들의 지성과 미학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로 발전할수 있는 방도를 명시해주신것으로 된다.

작가의 내면독백이라는 개념은 문학작품일반을 작가의 말로 보는 견해에 기초하고있다.

종래의 관념에 의하면 서사적묘사방식의 대표적인 형태인 소설에서는 객관적으로 묘사하는것이 기본원칙이었다. 작가는 판사가 아니라 평정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나 작가는 자기 감정을 작품에 섞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주장 등이 그런 표현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소설에서 객관적묘사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형상을 자유롭게 창조하는데 지장을 주고 작품의 진절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객관적묘사라는 소설의 묘사방식적틀에 얽매어 작품형상에서 구속을 받거나 독자들에게 친절하지 못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문학작품은 독자들에게 하는 작가의 말인것만큼 작가의 직접적인 말인 작가의 내면독백을 널리 쓰면 작품형상에서 구속도 받지 않고 작품의 진절성도 보장할것이다.

작가의 내면독백은 작품의 철학성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작가의 내면독백은 작가 자신이 직접 하는 말이므로 지성도에서 자기의 격이 있는 작중인물처럼 구속을 받지 않고 작가가 준비된것만큼 철학적인 미를 담아 토로할수 있는것이다.

내면독백은 대화인것만큼 문답의 형식을 띠는데 일정한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주정토로로 표현된다.

주정토로는 지금까지의 소설들에서 흔히 쓰였으나 작가가 작가 자신과 하는 대화형식의 내면독백은 극히 적었다.

작가의 내면독백이 명백한것은 1인칭소설이다.

그러나 1인칭소설이라고 하여 심리를 기본으로 하는 소설로 되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심리적수법들을 많이 펼쳐놓는가 놓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3인칭소설에서도 작가의 내면독백을 얼마든지



펼쳐놓을수 있다. 그런 실례로는 단편소설 《가을》에서 찾아볼수 있다.

작품에서는 주로 땅에 대한 인물의 심리적체험과 작가의 내면독백을 능숙하게 맞물리어 많이 펼쳐놓음으로써 정서성과 철학성을 높이고있으며 친절성을 보장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소설창작에서 인물의 체험세계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와 작가의 내면독백을 많이 펼쳐놓는 수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심리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식의 소설을 훌륭히 형상하여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더 풍부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 비워둔 첫자리

김해연

한장 또 한장...  
친팔자식의 모습인듯  
대견히 지으시는 미소가 비낀다  
한페이지 또 한페이지...  
그이께서 너병사의 사진첩을 보아주신다

생각하면 꿈에나 있을번한 일이던가  
얼마전엔 글씨  
먼 바다가 포진지에까지 오시여  
너성해안포병들의 군무생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은정어린 선물도 보내주시고

무엇을 못다 주신듯  
초소의 낮이나 밤이나  
너전사들 언제나 그려보던 평양으로  
중대를 모두 불러주신  
**김정일**장군님

수도에서의 즐겁고 깊은 순간순간  
행복한 모습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천연색 화폭속에 달아주라고  
군사복무의 기념이 되게  
사진첩으로 만들어주라신 장군님

기쁘시여 변지신다  
웅장화려한 무대에서  
황홀하여 노래부르는 모습  
참관지들에서  
유희장에서  
밝게 웃는 그 사진

열장...  
스무장...  
산해진미로 차려진 생일상앞에서  
감격의 눈물짓는 모습  
그 다음은  
공백으로 남아있는 몇페이지...

어째선지 마음이 허전해지시는듯  
그 무슨 생각이 깊으신듯  
맨 첫장을 되번저보시고  
다시 마지막 공백의 페이지들에  
눈길을 주시더니  
일군들에게 이르시는 말씀

너전사들의 사진을 더 찍어  
공백이 없이  
다 채워주자고  
사진첩의 첫 장은 비워  
이다음 애인이 생기면  
함께 찍어 부치도록 하자고...

아 이 나라에 딸자식을 둔  
그 어느 어머니라면  
이런 다심함이 있을가  
그 어느 아버지라면  
이런 속깊은 응심이 있을가

그가 누구이든  
뜨겁게 안아 새기라  
축복받은 생활의 그 자리  
사연깊은 사진첩의 첫머리에  
나란히 설 사람은

눈같이 하얗게  
그 첫장은 비여있어도  
너전사들의 친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  
끝없는 은혜로움이 가득차있는  
사랑의 첫 장  
은정의 첫 페이지

영광넘친 삶의 그 위치에 들어서논이  
한생토록 장군님 받들어  
목숨바쳐 나서야 하리  
심장으로 지켜야 하리  
충성의 첫자리  
보답의 첫자리

# 발머리

김흥권

예로다  
내 어린시절 속아 머슴이 되고  
자라며 지주의 위선을 알게 된곳이,  
작인들의 긴 한숨소리와 무거운 호미소리뿐  
나무있 설레는 소리도 내것이 아니던 발머리,  
나를 두고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도 야속하던 발머리,  
해방의 날도 예서 맞고  
우리 당 창건의 날도 예서 맞았거니  
《개》로 불리우고  
《놈》으로 통하던 이름이  
《동지》로 바뀌어 불려질 때  
내 네우에 덩굴며 얼마나 울었던가  
노예의 종국이 찍혀진 발머리,  
인간된 첫걸음이 옮겨진 발머리,  
잊을수 없구나 어머니 밥함지 이고  
기빠 춤추듯이 오시던 그 하얀 길  
바가지로 떠주시던 막걸리의 그 향긋한 냄새  
내 밥을 먹는동안도 못참으시여  
가마목처럼 살뜰히 어루만지며  
치마폭에 돌을 담아 추어내던 발머리  
오 기쁨의 첫 보금자리  
예서 시작되지 않았던가  
참된 삶의 흐름, 거창한 이 나라 땅의 서사시가

여기 이 돌은 아마도  
내가 이름 지었으리 《돌상》이라고  
집에서 두리반에 차려놓고 먹은 밥보다  
더 많지 않았던가 이 돌우에 차려놓고 먹은 밥이  
살아온 이야기, 살아갈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 민주에 대한 이야기  
어벌쪽지 크게도 여기에 장군님 모셔볼 이야기  
희열에 넘쳐 서로 나누며  
때로는 그 무슨 모임터같이  
때로는 그 무슨 교실같이  
때로는 그 무슨 잔치집같이  
웃으며 떠들며 온 마을이 모여오던 발머리  
쌈지를 돌리며 한심할 때면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한담도 혼담도 너스레도 있는 발머리,  
당원증을 받은 그날 아버지는 곧추  
이 발머리로 오시지 않았던가  
- 녀석아 너도 이제는 공부를 해야겠다,  
발머리여 너는 그날 알지 않았더냐  
산천은 해가 나서 밝아지는것 아님을  
당원 한사람만 생기면 거기는 벌써  
불도가니! 사람도 눈보라도 뜨거워지고

초라한 초가집도 정답게 보여지는곳  
밤이슬은 떨어지고 낡은것은 청산되고  
혁명은 굽이쳐  
모든것은 어느새 변하여지는것을,

발머리를 보면 주인을 안다고  
박씨일가는 두말 없이 섰듯  
귀하게 기른 딸 나에게 주지 않았던가  
장군님 주신 하늘같은 땅,  
이를 석자 썩여진 표말을 안고 빙빙 돌며  
춤이랄가 흥이랄가 흐느낌이랄가  
부엌새 다 울도록 그냥 어께 들먹거리며  
온밤을 못떠난 발머리  
예서 삼천만을 먹여 살리리라 마음먹은 사람이  
제 안해 한사람 건사하지 못할가  
그래도 안해는 끈질기게 일하고 또 일했더라  
이웃들모두가 시샘이 나도록 발머리에 붙어서  
발머리가 사랑인듯, 사랑이 발머린듯,  
오 낱알도 사랑도 꿈도 허실없이 익혀주던  
발머리

씨 붙이는 날에도  
김을 매는 날에도  
가을걷이 드바쁜 그런 날에도  
나는 항상 발머리에 먼저 나와 안해를 불렀더라  
- 여보, 이젠 좀 쉬자구!  
웃음으로 버티고 그냥 일하면 나는 다시  
불렀더라  
- 여보 물을 좀 떠오라구!  
안해를 쉬게 할 수단은 오직 그것뿐  
일하고 또 일해도 더 하고만싶으던 그때,

그 무엇이 나를 불려냈던가  
이 발머리에서  
가대기에 메운 소 벗길새도 없이 고삿을 놓고  
발고랑 건너 뛰며 내달리게 하였던가  
어찌 잊으랴 전쟁의 그 포성울,  
장군님 방송연설이 울리던 그 느티나무를,  
뽕비던 역전, 쭈셔넣는 밥궈기들  
불 없는 렬차에 뛰어올라  
기적없이 정거없이 내달리던 그밤을  
지체없이 창격전에 날아들던 그 전호력을  
내 안해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지 않았던가

소영댕이 갈기던 거친 손으로  
미국의 《영예》이며 《사랑》이던  
캠프리치대학 출신 그 《장군》들에게

버릇을 가르쳤다고  
 망상에서 건져준 매짚의 은혜나 알겠는지,  
 나에게 남아있는 농민적인 린색을 용서하라  
 한치 땅, 한포기 풀을 두고도 양보없는 《구두쇠》  
 오 화선입당! 안해여 수호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편지 끝에는 여담으로 물을 좀  
 떠오라고...  
 그러면 안해는 발머리에서 지체없이  
 회답편지 써보내주지 않았던가  
 자기 말은 별로 없이  
 시부모님 이야기만 수두룩 적어  
 제가 할 말조차도 아버지 말씀으로 바꾸어  
 용맹을 떨치라고  
 당원의 영예를 고수하라고 엄숙히 적어  
 그리고 공연히 덧불이듯이  
 무섭게 갈개던 품앗이반 등글소는  
 녀성들 손에 들어 이제는 색시처럼  
 고분고분하다고,  
 고삐를 사리여서 잔등에 얹어주면  
 제길로도 끈추 발머리에 간다고...  
 전선이 멀어질수록 가슴속 더 깊이 안겨지며  
 눈물이 나도록 힘을 주는 발머리  
 이것이 과연 나를 키운  
 어머니조국의 젖가슴 아니겠는가!

분여받은 제 땅  
 개인의 농토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지경 없는 사회주의 땅우에 돌아왔다  
 내 낫을 갈아주던 아버지  
 아래집 머느리 낫을 갈아주고  
 어머니 오시던 그 하얀 길로  
 이웃집 아낙네 밭갈지 이고 온다  
 어느새 생겼는가  
 트랙토르 운전수앞에  
 큰 밭그릇 놓아주는 버릇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온 분조가 모여들어 이름짓는 습관이,  
 누가 달려오지 않았으랴 저 조합종이 울릴 때  
 누가 마다했으랴 이즈러진 고독에서 벗어나  
 드넓은 땅의 주인 대가정의 한식술 되는것을,  
 아침저녁, 사람들은 발머리에 모여앉아  
 하루일 분공받고 하루일 총화하며  
 로력일 평가를 받지 않는가  
 늙으신 어머니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발머리  
 - 내 늙은게 무슨 일 많이 했겠니 마음뿐이지  
 비료를 잘못쳐두 그렇구, 물을 잘못봐두 그렇구  
 수령님 테제를 어길가봐 욕을 했을뿐,  
 - 어머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주의의 기둥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 어머니 어찌 다 알고 지키셨으랴  
 자신이 서있는 발머리가 바로  
 세계가 지켜보는곳,

불패의 당, 위대한 령도자의 손길이 이끄는  
 사회주의혁명의 한 초소였음을

기쁨이 설레는 발머리  
 여기로 그 어느 마음 달려오지 않았으랴  
 외국방문하시는 아버지수령님  
 먼먼 길에서 전화를 드시고 작황을 물으실 때,  
 대풍이 들었다고, 농민들 간절히 기다린다고  
 친애하는 그이께서 대답을 올리실 때,  
 아버지수령님 돌아오시여  
 려로의 피로도 푸실새 없이 찾아주신 발머리  
 너무도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여기서 한밤을 자고싶다 하실 때,  
 오 백발의 아버지는 만발한 국화꽃 꺾어드시고  
 덩실덩실 춤추지 않았던가  
 이 모든 기쁨이 다 장군님 덕분이라 하시며  
 늙으신 어머니는 농속의 수저를 꺼내 닦으시고  
 정녕 그 어느 마음이 달려오지 않았으랴  
 수령님 이 발머리 떠나시기 아쉬워  
 강녕이 한이삭 더 달래드시고  
 - 내 이것을 평양에 가지고 가겠소  
 로동자동무들도 보이고  
 우리 집 손자들도 보이고  
 전원회의에 오는 동무들도 보이겠소...  
 뜨거이 뜨거이 말씀하실 때,  
 오 농토를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이슬길 헤치시며 위대한 농법을 안아다주시고도  
 우리 가꾼 한이삭에서 평생소원 푸시는듯  
 품속에 간직하신 그것이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으랴 어찌  
 밤마다 밤마다 차정을 넘기시며  
 경애하는 장군님 기다리시면  
 이슬에 젖어  
 아버지수령님은 오시지 않으셨던가-  
 온 세상 축원의 물결이 밀려오는 생신날  
 장군님 문밖에 나서시여 기다리신 수령님도  
 발머리에서 오시는 수령님  
 그 어떤 구상을 하시고  
 그 어떤 전략을 세우시고  
 그 어떤 비결을 찾아내시여도 발머리  
 백두의 무변대지에서도  
 열두삼천리벌에서도  
 두분이 만나신곳은 발머리  
 나누신 첫 말씀도 밭에 대한 이야기  
 맺으신 그 말씀도 밭에 대한 이야기  
 오 인민이 배부른 그 기쁨 보시자고  
 걸으신 한평생...  
 명절에 명절이 이어지는 오늘  
 아버지수령님 못모시고 지새시는 밤  
 맞으시는 아침마다

장군님 마음 얼마나 간절하시라  
그 발자욱소리,  
발머리에서 돌아오시는  
수령님 이슬젖은 그 발자욱소리...

오 발머리  
황금이삭 물결치는 너를 보고는 말 못하리  
아버이수령님 언제신다고  
이 나라 인민이 아버이를 잃었다고  
이 나라의 땅, 이 나라의 하늘이  
슬픔에 젖어있다고  
너를 보면 인민을 알수 있고  
살아계신 수령님 볼수 있어  
아침에 뜨는 해도 먼저 비쳐보는 발머리  
이 나라 땅이며 거울이며 량심이며  
농민의 뉘인 발머리  
황금이삭 물결치는 너를 보고는 정녕 말 못하리

수령님 펼치신 땅의 력사가 담기고  
슬픔을 백배 용기로 바꾸어 이끄시는  
장군님 신념이 비낀 발머리  
한이삭 강냉이처럼  
나도 네 등에 업히여 자란 시인  
어찌 조국의 땅 다 보아 노래한다고 하라  
네 한이랑 조국으로 쓸어안고  
네 한이삭 땅의 손길로 부여잡고  
이 땅을 노래하거니  
설레이라 발머리여 락원의 한 언저리어  
근면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이 나라 인민에게 바쳐진  
아버이수령님의 로고를 길이길이 전하며!  
주체의 조국을 만대로 빛내시는  
진리와 영예와 덕의 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땅  
우리 당의 농터임을 높이높이 자랑하며!

## 《혁명렬사릉》 외 2 편

천일수

여기서 사는구나  
제 나라 제 집에서  
제 이름 석자 문패도  
한번 땃땃이 못걸어본 투사들

어찌 꿈이 없었으랴  
안해를 맞아 아들딸 낳으며  
제 집 기둥에 제 이름 써걸고  
남들처럼 살고싶은 그런 꿈이

사랑과 가정  
그보다 먼저  
조국광복성전에  
웃으며 목숨던진 투사들

살았으면 살았으면  
우리 수령님 손수 문패도 달아주신  
해빛밝은 화려한 집에서  
손주들을 안고 여생도 즐기련만

아 그것이 가슴아프시여  
우리 장군님 세워주신 집  
우리 수령님 친필로 써주신 문패  
《혁명렬사릉》

온 나라가 다 알고  
온 인민이 다 불러보는 글발이여  
혁명렬사릉 대문우에  
승엄히 걸려있는 금문자여

사람의 생은 대를 바꾸어  
세월과 더불어 문패는 달라지건만  
무궁한 세월에도 바뀌지 않을 글발  
《혁명렬사릉》

아 장군님의 은덕으로 새겨지고  
투사들의 이름으로 빛나는  
영생의 문패 《혁명렬사릉》앞에  
나는 지금 서있다, 끝없는 감사에 젖어

## 묘주의 이름 적혀있지 않아도

한점 혈육도  
남기지 못하고 간 투사여서

화강석묘비에  
묘주를 조아박지 못했던가

남의 집 문전에  
어린 자식을 맡기고 갔던  
가슴아픈 그것이 죄스러워  
차마 그 이름 못새겼던가

다만  
임대한 년월일  
전사한 년월일  
그날의 군사직무만 써여있을뿐

아 빼앗긴 조국의 슬픔을  
피로 덮고  
목숨과 바꾸어 조국을 찾은이들에게  
술 한잔 부어줄 피줄이 과연 없단말인가

아니구나 제 부모 산소에는  
추석날에만 가도

정한 날 따로 없이  
줄지어 찾아오는 사람들

아침에는 한 인민반  
한낮에는 온 구역이 찾아와상돌우에 꽃을 놓는  
사람들  
어찌 한혈육이 아니라 하라

천이라 만이라  
혈육보다 가까이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 이름  
하나의 묘비에 다 새길수 없거니

아 오늘도 래일도  
인민이 묘주가 되고  
민족이 묘주가 되여  
쉽없이 찾아올 혁명렬사릉이여

## 훈장없는 반신상앞에서

여기에는 없다  
제 목숨 아낀 사람이  
여기엔 또 없다  
우리처럼 훈장을 번쩍이는 사람이

오 피는 누가 흘리고  
행복은 누가 누리는것인가  
목숨은 누가 바치고  
훈장은 누가 받은것인가

조국이여 이 혁명선배들앞에서 말해달라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으며  
사령부의 비밀을 지켜 혀를 끊으며  
투사들이 무엇을 바랐던가를

말해달라  
공훈이란 무엇이며  
영광이란 무엇인가를  
그리고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를

여기 대성산혁명렬사릉  
투사들의 반신상앞에 무릎을 꿇고  
내 달고온 훈장의 무게를 재어볼수 있도록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수 있도록

오 조국은 말하고있구나  
렬사릉의 그 숭엄한 입을 열어  
-오늘의 빛나는 행복이 바로  
투사들의 훈장이라고

## 봄노래

박춘섭

## 1

작곡가 리운성은 견장없는 군복차림으로 근 한 달째 전선을 종군하고있었다.

준엄한 전쟁은 그의 창작과 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창작적개성이 뚜렷한 유능한 작곡가이다.

전쟁전 그가 창작한 노래들은 대부분 정서가 질고 향토미가 강하게 풍기는 서정가요들이었다. 그 노래들은 조국의 푸른 하늘을 비껴안고 고요히 흐르는 시내물처럼 맑고 부드러웠으며 그 색채가 선명하였다.

그렇게 조용히 흐르던 시내물에서 갑자기 여율이 생기고 락차와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전쟁의 총포탄은 그의 오선지우에서 먼저 터진듯싶었다.

...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천길 낭떠러지에서 내리박히는 폭포처럼 걱정과 호소성으로 충만된 노래의 선율은 전사들의 심장을 격동시켰고 서리발총창끝에서 회오리쳤다. 그의 노래는 배낭처럼, 총처럼 언제나 전사들에게 묻어다녔다.

그는 오선지우에 병사들이 흔히 말하는 《콩나물대加里》를 총알처럼 박아넣었다. 쏘라! 복수하라! 죽음을 주라! 분노와 절규, 그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분출은 터진 화산처럼 거세차고 뜨거웠다. 선한 일에는 빼없는 사람처럼 노근노근하다가도 악한 일을 보면 참대와 같이 곳곳해지는 그의 성미가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듯싶었다.

전쟁은 그가 생각했던것처럼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와 재진격 그리고 수십차례의 전선순회공연과정에 윤성이가 느끼고 판단한것은 이 전쟁을 교향곡에 비유한다면 이제야 겨우 1악장을 넘긴 셈이었다.

전선에서는 찰거마리마냥 달라붙는 적들과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있었다. 전선도 후방도 힘겨운 고비를 겪고있었다. 이런 때 전쟁초기와 같은 그런 노래를 다시 짚을릴수 없을까?

불같은 욕망으로 가슴태우며 모태기던 윤성은

전투가방을 둘러메고 나섰다. 가자, 전선으로 가자, 피아노건반이 아니라 싸우는 전사들의 심장을 두드려보자! 그렇게 떠난 종군길이었다.

근 한달에 걸치는 종군생활은 그에게 귀중한 체험을 안겨주었다. 철도의 유개화차안에서, 고지의 엄폐호안에서, 군의소의 천막안에서 그려넣은 악보들은 윤성에게 있어서 귀중한 재보들이었다.

가는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윤성을 떠받들고 다녔다. 그런 후더운 환대와 기대에 윤성은 눈굽을 적셨다. 이런 전사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승리의 노래를 지으리라.

윤성이가 부득부득 우겨서 박달령고지로 가는 이길도 바로 그런 결심때문이었다. 사단장은 교통조건이 나쁘고 전선형편이 어렵다고 한사코 말렸으나 그의 옹고집에 끝내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신새벽에 직접 자동차에 태워서 공습전에 가도록 떠나보내었던것이다.

해뜰무렵, 박달령쪽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윤성은 내렸다. 적재함우에 실은 절인 고등어가마니우에 풀잎을 깔고 앉았던 전사들이 저마끔 정념친 목소리를 터치었다.

《아바이, 좋은 노래를 팡팡 써주시우다.》

《선생님, 우리 중대에두 오시라고.》

《쏘구역을 조심하십시오. 작곡가동지.》

윤성은 코등에 흘러내린 안경을 밀어올리며 자동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저어주었다. 전사들의 부락과 다심한 녀려는 팀파니의 여운처럼 오래도록 윤성의 마음을 흔들었다.

자동차가 휘뿌리고간 절인고등어의 비린 냄새가 서늘러운 숲속향기로 바뀌자 윤성은 가방을 추출러메고 걷기 시작했다.

동부산악지대의 산골길은 호젓하기 그지없다. 전선이 코앞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총소리 한방없다. 이른아침이어서 그런가? 다행히도 그 정적이 걷고있는 윤성이의 사색에 도움을 주었다. 그는 벌써 이슬이 가랭이를 흠뻑 적시는 오솔길이 아니라 오선지우를 걷고있었다.

리듬이 흐르고있었다. 지심을 쿵쿵 울리는 금관악기들의 거세찬 리듬에 팀파니까지 합세한다. 장엄한 선율을 예고하듯 호른이 웅골찬 소리로 빼여져나오며 기본선율으로 유도한다. 콘트라바스와 첼로가 중저음에서 움썹거린다.

윤성의 걸음은 빨라지기 시작했다.

땅크를 실은 무개화차, 폐성강도하장, 비행기의 공급, 솟구치는 물기둥, 웨침소리, 화광에 드러나는 푸릿한 얼굴들, 어둠을 찢는 고사포의 불줄기...

소고의 트레몰이 투르르르- 준절하게 울린다. 그 트레몰이 방아쇠를 당긴듯 포성과도 같은 금관악기군의 우람차고 장엄한 선율이 터져나온다. 바이올린의 예리한 음조가 그 장엄한 선률우에서 눈보라처럼 회오리친다.

그때 난데없는 피리소리가 그 화음을 깨뜨리며 끼어들었다. 이진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윤성은 문득 서버렸다. 무릎을 치는 억새풀이 다리를 휘감고있는데 길은 갈래 뻗어 저쪽으로 나있었다.

《찌비- 찌비- 찢 쪼르르》

이슬이 툭툭 떨어지는 참나무 우듬지에서 청고운 새소리가 굴러내린다. 그 새소리가 그대로 굴러가듯 다리를 휘감고있는 억새풀밑에서 돌돌돌 시내물이 조용히 흐르고있었다.

새소리에 착각했는가? 억새풀을 헤치며 조심조심 길을 찾아가는데 피리소리가 다시 울려온다.

(?!)

윤성은 무엇에 꼭 흘린듯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시로 끊어졌다가 다시 울리는 그 피리소리는 윤성의 사색은 물론 숲속의 정서를 단번에 깨뜨려버렸다. 몹시 서툴게 부는 피리소리였다. 음정도 잘 맞지 않았고 아무리 들어봐야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도무지 가늠할수가 없었다.

슬금슬금 그쪽으로 다가가니 《연주가》가 나타났다. 길옆, 키높이 자란 오리나무밑등에 퍼터버리고 앉은 상등병이 피리를 불고있었다. 상등병은 코앞까지 뻗쳐온 나무가지에다 무슨 종이장을 꿰어놓고 그것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불어대는데 음악적인 피리소리보다 새어나가는 바람소리가 더 세다. 그래도 제법 발로 덩적덩적 박자를 차는데 부는 피리소리와 발장단이 저마끔이다. 같은 곡조만 지긋게 반복해보던 상등병은 잘 안되는지 신경질적으로 뻗하고 불어 팽개치고는 이새로 침을 짖 내쏘았다.

저 상등병이 왜 저기서 피리를 불까? 전선에도 이런 태평스러운 때가 있고 저렇게 한가한 사람이 있는가?

마사원이 아닌가 해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대신 오리나무에 멜빵을 한 채 기대놓은 망돌이 보인다.

윤성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가까이 다가갔다.

첫눈에도 무척 귀인성스러워보이는 상등병이었다.

나무에 꿰어놓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주억거리던 상등병이 무슨 인기척을 느꼈는지 뺨 돌아보더니 발짝 일어섰다.

《셋! 누구얏!》

어느새 그의 손에는 따발총이 들려있었다.

《나요. 제편이요 쏘지 마시오.》

윤성은 와플 놀라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상등병은 얼른 사방을 둘러본다. 아마도 갑자기 나타난 견장없는 군복차림의 안경쟁이가 무척 의심스러운 모양이었다. 분명 혼자라는것을 느꼈는지 상등병은 총을 내리며 오돌차게 묻는다.

《왜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난 전선에... 박달령으로 가요.》

《우리 중대예요? 왜요?》

윤성은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설명해야 이 오돌찬 상등병의 리해를 얻겠는가, 버티고 선 자세와 날카로운 그의 눈길에서는 방금 어설피게 울리던 그의 피리소리와는 달리 전선군인의 위엄이 툭툭 흐른다.

《저, 난 노래를 짓는 작곡가요. 사단에두 들렸는데...》

윤성은 자신없이 자기를 소개했는데 뜻밖에도 상등병의 의혹은 순간에 풀리었다. 달려와 팔을 붙잡는 그를 보니 아직 코밑에 수염터도 잡히지 않은 애된 병사다. 옷을 때 보니 부러진 앞이발한대가 유표하게 드러난다. 그때문에 이새로 침 뱉는 버릇이 생겼는가?

《피리를 열성스레 불더구만.》

《들었습니까?》

상등병은 게면적게 웃으며 더수기를 쓸었다.

《어디 좀 보지요.》

윤성은 상등병이 어쭙게 내미는 피리를 받았다. 참대에 쇠줄을 달구어서 구멍을 뚫은 피리였다. 이런것도 소리가 나는가? 무심결에 불어보니 제법 구성진 소리가 난다. 구멍위치가 맞지 않아 음정이 조금씩 틀리긴 해도 그만하면 괜찮게 만드네 것이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피리를 부오?》

《요즘 이 피리때문에 골탕을 먹습니다. 래일까지 노래하나를 못매면 난 한주일간 식당근무를 더 서야 합니다.》

상등병은 나무가지에 꿰어놓았던 종이장을 내밀었다. 종이에선 악보가 그려져있었다. 그러니 상등병은 결국 심심풀이로 피리를 부는것이 아니었다.

《이건 우리 소대장동지가 편곡한 기악합주곡입니다. 우리 고지에선 공화국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화선음악회를 열기로 했는데 우리 소대는 기악합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악합주?》

윤성은 놀랐다. 자체로 악기를 만들어 기악합주까지 한단 말인가? 도대체 악기는 얼마나 되며 또 그럴 시간적여유가 있는가?

편곡까지 하는것을 보니 이만저만한 잡도리가 아니다. 또 소대장 요구수준이 여간 아닌듯싶었다. 오죽하면 이 상등병이 바쁜틈에도 피리를 불고있었겠는가!

《동무네 소대장이 아마 음악전문단체에 있었던 모양이구만.》

《아닙니다. 제 보기엔 그저 정열적인 음악애호가입니다. 손에 잡히는 악기마다 못다루는것이 없습니다. 사단적으루두 엄기학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엄기학?》

귀익은 이름이다. 피땀 번개치는 생각이 있었다. 작년봄 순회공연때 들렸던 군의소, 중환자호실, 의식을 못차리던 환자, 그의 눈에 싸맨 봉대, 피물은 노래수첩... .

《그 소대장동무가 눈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겠소? 작년봄에.》

《웁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런 기상천외한 일도 있는가?! 그가 분명 살아있단 말인가? 그때 군의소장은 머리를 젖지 않았던가. 설사 기적적으로 소생한다고 해도 다시 전투대오에 서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상상조차 할수 없던 상봉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때 그의 침대머리에서 보았던 수첩이 떠올랐다. 노래들과 함께 자작으로 지은듯싶은 시와 가사들, 고향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자랑을 노래한 그 수첩에서 윤성은 그의 정신세계에 얼마나 감동되었던가!

상등병이 말한 열정적인 음악애호가라는 칭호는 자신이 그때 느꼈던 생각이다. 그 정열가가 살아있다니?!

윤성의 눈앞에서 엄기학소대장을 만나던 때의 일이 영화화면처럼 얼씬얼씬 스쳐지나갔다.

## 2

윤성은 자신이 직접 손풍금을 메고 여섯명의 성악배우들과 함께 군의소의 중환자호실에 조심히 들어섰다. 야외공연장소에 나오지 못한 중환자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한 공연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냄새, 하얀 하불, 무거운 정적... 여덟명 환자중에서 세명은 누운채로 윤성이네를 맞이했다. 그중에서 한명은 몹시 위급한 환자인듯싶었다. 그의 팔에 꽂혀있는 고무호스가 달린 주사바늘을 보며 윤성은 조심히 손풍금의 건반을 눌렀다.

《결전의 길로》의 비장하고 힘찬 선율이 방안을 짝 채웠다. 기척없이 누워있던 환자들이 하나둘 움직적거리더니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쓰기 시작했다. 침대모서리를 틀어진 주먹들이 푸들푸들 떨렸다. 누군가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머리맡에 놓인 약병을 다쳤다. 약병이 바닥에 떨어져 박산났다.

간호원들이 달려가 세차게 들먹이는 그들의 가슴들을 조심히 다독였다.

하지만 환자들의 눈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노래를 부르는 배우들의 눈빛에서도 번개같은것이 번쩍이었다.

동무들! 신심을 잃지 말라. 다시 일어나 천백배로 복수하자. 환자들은 누운채로, 간호원들은 손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불렀다.

고통과 절망을 초월한 억센 의지와 신심이 방안을 팽배하게 채웠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윤성의 심장은 달아올랐다. 인간의 정신력은 결코 그 한계가 있는것이 아니었다.

윤성은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올리고 다음 노래의 전주를 뻗었다. 극장에서도 이름있는 너가수가 나셨다. 《발같이노래》였다. 어떻게 되여 이 노래를 시작했는지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아마도 창턱우에 포탄각지로 만든 《꽃병》에서 활짝 피어난 철쭉꽃을 본때문이 아니겠는지, 그 꽃의 아름다움보다도 약동하는 봄계절을 알려주는 그 생신함에 마음이 끌려버렸다. 봄향기를 풍겨주며 싱싱하게 피어난 저 꽃을 보며 환자들은 무엇을 생각할것인가?

백두산 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빠꾸기 뻗뻗뻗

아-장군님 주신 땅

...

행복하고 희망넘쳤던 그때의 그 봄이, 환희로운 그 나날들이 맑고 부드러운 선율을 타고 방안에 넘쳐흘렀다. 환자들도 간호원들도 황홀한 노래속에, 아름다운 추억속에 묻혀버렸다.

첫 닭이 우는 새벽녘에 물고나서던 누렁황소의 정겨운 소방울소리를 듣는듯, 잔디푸른 동쪽우에 밥함지를 이고 웃고름을 날리던 사랑스러운 안해와 누이를 그려보는듯 창밖멀리 푸른 창공에 눈길을 준 환자들의 입에는 미소가 어려있었다.

너가수가 노래 2절 후렴을 뽐을무렵 갑자기 한쪽 가녀 침대쪽에서 《아!》 하는 가벼운 탄성이 터져나왔다. 노래가 똑 끊어졌다. 그쪽에서 간호원이 두손을 가슴우에 모두어쥐며 웨친다.

《의식을, 의식을 차렸어요!》

눈에 봉대를 칭칭 둘러감은 환자의 얼굴에서 입술이 가볍게 미미적거리고있었다.

《배우동지들, 이자 그 노래를 다시 불러주세요. 빨리요!》



기쁨의 눈물을 반짝이던 간호원은 환자의 의식이 다시 꺼질까 두려운듯 다급히 재촉했다. 가수도 윤성이라도 그 환자의 침대곁으로 다가가며 노래를 이었다. 성악적인 기교와 예술성에 앞서 절절한 부름이 몇번이고 반복되었다. 환자의 얼굴에서 경련이 일더니 한쪽 팔을 허공에 쳐들고 무엇인가 더듬고있었다. 간호원은 그 팔을 부여잡고 울며 웃었다.

《꼭 이틀만에 의식을 차렸어요!》

윤성은 안경밑으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연주하는 노래가 사경에 처했던 환자의 의식을 차리게 했다는 기쁨, 노래를 듣고 의식을 회복하는 환자의 그 고상한 감정과 의지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간호원은 머리맡에 놓여있던 자그마한 수첩을 환자의 손에 쥐여주었다. 환자는 그것을 가슴우에 얹고 무엇을 호소하듯 입술을 놀리는것이였다.

그러더니 다시 의식을 잃었다.

윤성은 그의 가슴우에 놓여있는 수첩을 집어 들었다. 거의 마지막까지 다 써버린 그 수첩갈피에는 그가 방금 말하려던 모든것이 다 적혀있는듯 싶었다.

윤성은 어느 한 갈피에 적혀있는 자작시에 눈길을 멈추었다.

푸른 산 기슭의 잎새푸른 황철나무  
그밑에 뽕뽕 솟는 정가로운 샘물  
그 샘물 마시며 너도 크고 나도 자라  
오늘은 고향땅 지켜섰으니  
아-꺾이지 말자 너의 아지 나의 의지  
키워준 이 땅에 은혜를 갚자

윤성은 놀랐다. 아니 놀랐다가보다 의문에 사로잡혔다고 해야 정확할것이다. 복수를 다짐하는 불같은 맹세가 튀어나올듯싶은 피문은 그의 수첩에 어떻게 이런 시가 있는가?

분명 최근에 쓴것 같은데 불비 쏟아지는 격전장에서 어떻게 이런 정서가 흘러나오는가?

묻고싶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싶었고 자기가 미처 모르고있었던 그의 생활세계를 들여다보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의식을 잃고있었다. 그의 마음이 비껴있는 눈이라도 보고싶었으나 그 눈마저도 봉대에 칭칭 감겨있다.

얼마후 윤성은 군의소장과 마주앉았다.

《고맙습니다. 작곡가선생.》

군의소장은 진심으로 고마와하며 윤성의 손을 잡고 오래동안 놓지 않았다. 그의 피발이 선 눈을 바라보며 윤성은 갑자르며 물었다.

《저... 눈에 부상을 입은 그 환자가... 소생활가

요?》

군의소장은 훌쩍해진 불편을 피롭게 실룩거리며 말없이 책상우의 병력서를 내밀었다.

이름 엄기학, 나이 28살.

안면 화상, 대퇴골골절, 복부창상...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때문에 아직...》

《부상이 여러군데이군요.》

《모두 치명상입니다.》

군의소장은 또다시 고통스레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더 묻기가 두려웠다. 그렇게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재능있고 열정적인 사람이 결국 가버린단 말인가!

안경을 추스르며 병력서를 들여다보는 윤성의 가슴은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이제라도 다시 가서 노래를 들려주고싶었다. 혹시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안고가는 노래일지 알겠는가.

...그런데,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선것이다. 그의 수첩에 적혀있던 황철나무처럼 가지 하나 꺾이지 않고 다시 역세게 뿌리박고 거연히 서있는 것이다.

윤성은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어 다시 전호에 선 강직한 인간의 참모습을 어서 빨리 보고싶었다.

어느덧 고지정점이 눈앞에 안겨왔다.

### 3

《누가 여기로 데려오라구 했소?》

엄기학소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순간에 엄폐호안을 쨍--얼구어 버렸다.

상등병이 망돌을 진채로 쫓꽂해졌다.

《박달령고지로 온다기에...》

《이 박달령고지에는 여기밖에 없는가? 동문 전선규를 모르오?》

《...》

《저... 그 동문 잘못이 없습니다. 난 그저 내발로...》 윤성이가 한발 나서며 자신없이 변명했다.

《당장 데려가시오. 중대지휘부가 있는 고지로 말이요. 알았소?》

소대장의 엄한 목소리가 윤성이의 말허리를 꺾었다. 마치도 그자리에는 상등병과 소대장 두사람만 있는것 같았다.

윤성이는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는것을 느꼈다.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군령만이 통하는 싸움판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사람을 무시할수 있는가. 감격적인 상봉을 기대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윤성이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들었다. 도대체 저 사람이 군의소에서 보았던 그 소대장이 옳긴 옳은가? 윤성은 손가락으로 안경

을 밀어올렸다. 그물거리는 등잔불에 드러난 소대장의 얼굴은 무표정이다. 번뜩이는 눈길마저 깊숙이 떨군 상등병의 목덜미에 박힌채 굳어진듯 싶었다. 왜서인지 그 눈길은 이쪽으로 한치도 다가서지 않는다. 애써 피하는것 같았다. 소대장을 민망스레 쳐다보던 윤성은 다시금 안경을 밀어올렸다. 어디선가 보던 얼굴이다. 군의소에서? 그때는 온 얼굴이 봉대에 감겨져있지 않았던가? 어디서든가?

피득 떠오르는 생각에 윤성은 두손을 번쩍 쳐들었다. 아! 그다! 양지골 민청위원장!

《소대장동무, 날 모르겠소?》

윤성은 무작정 소대장의 손을 부여잡았다.

《나요. 리윤성이요. 국립예술단의...》

《아닙니다.》

뜻밖에도 소대장은 조용히 대답했다. 소대장의 눈길이 윤성의 얼굴에 잠깐 머물렀다가 어깨너머로 빗나간다. 몹시 죄스러웠듯한 어설픈 웃음이 얼굴에 넓게 비쳤다가 이내 사라졌다.

《이게 얼마만이요. 49년도 봄에 만났더랬지. 참 소환장을 보냈는데 왜 오지 않았소... 우린 기다렸소. 그런데... 난 동무가 군의소에서... 그땐 정말 몰랐소. 전쟁이니까. 그래서... 난 지금 전선을 종군하고있소.》

윤성의 말은 점점 종잡을수 없이 번져졌다. 그자신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지 잊어버리고말았다. 윤성은 잡았던 소대장의 손을 슬며시 놓았다. 무대에 나섰다가 대사를 잊어버린 배우처럼 갑자기 손건사가 거북스러웠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뜨리며 응글은 포성이 엄폐호벽을 즈름즈름 울렸다. 뒤미처 벼락처럼 퍼져나오는 총소리, 아마도 전투가 시작된것 같았다. 조용히 타오르던 등잔불이 허리를 꺾으며 너풀거린다.

소대장은 벗어놓았던 철갑모를 썼다.

그리고는 나가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듯한 웃음이 비쳤다.

《작곡가동지, 모처럼 찾아오셨는데 참 안됐습니다.》

흥! 침바른 소리, 그래도 미안하다는것은 아닌가? 마지 못해 하는듯 한 말이 오히려 윤성의 신경을 더 건드렸다.

《소대장동무, 난 전선사령부의 통행증을 가지고있는 종군작곡가요. 나는 그 어디에도 가볼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소. 그리고 난 나대로 자기 계획이 있단 말이요.》

윤성은 말마디들에 또박또박 그루를 박았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것을 이 무지막지한 소

대장이 푹푹히 알게 해야 한다. 이제라도 어깨우에 건장을 단다면 거기엔 모를지키 중성 두알쯤은 박힐것이다. 윤성은 아직까지 그 어디에서도 내보인적이 없는 전선통행증을 꺼내들었다.

소대장이 얼굴을 찌프렸다. 그리고는 난처한 립장에 빠뜨린 그 모든 책임이 상등병에게 있는듯 그를 다시금 쏘아보았다.

《영순동무 명령을 수행하고 보고하시요. 알았소?》

《알았습니다.》

상등병의 대답소리가 채 끝나기도전에 소대장은 밖으로 뺄 나갔다.

윤성은 안경을 벗어들었다. 엄폐호안의 모든것이 희미한 룬막을 가지고 눈앞에서 얼른거린다. 여지없이 짓밟힌 자존심이 꿈틀거리며 치솟아올랐다. 이런 일도 있는가? 윤성은 초점이 풀린 눈으로 소대장이 나간쪽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저, 아바이, 사실은 소대장동지가...》

《나를 위로할 생각은 마오.》

윤성은 상등병의 말을 투박하게 잘랐다. 왜서인지 이 어린 상등병에게서까지 속히운 생각이 든다. 뭐 훌륭한 소대장이라구? 음악을 한다구? 저런 목석같은 사람이 어떻게 음악을 하는가? 지휘봉대신 권총을 뽑아들고 기악중주라는것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뽕죽하게 날이 선 윤성의 생각은 여기저기를 향방없이 마구 찌른다.

《아바이, 여기 좀 앉으십시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소. 난 가겠소. 지금 당장.》

《예?!》

상등병의 눈이 울렁해졌다. 구원이라도 청하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상등병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야 윤성은 상등병이 지금껏 망돌을 진채로 서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상등병한테야 무슨 잘못이 있는가?

《망돌이나 벗어놓소. 무거운데...》

《좀 쉬었다 같이 가지요. 네? 아바이.》

윤성의 부드러운 말에 상등병이 벌췌 웃으며 망돌을 벗었다. 그 천진스러운 웃음이 생신한 풍기를 불어넣은듯싶었다. 윤성은 허거프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때문에 동무까지 욕을 먹게 해서 미안하오.》

《그까짓것두 뭐 욕이나요?》

《이름이 영순이라구 했지?》

《예.》

상등병은 미간을 찌프리며 마지 못해 대답했다.

《동문 차라리 이름을 따라갈걸 그랬소.》

윤성은 귀인성스러운 상등병의 얼굴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 잘난 이름때문에 창피해죽겠어요. 사단군의 소에두 영순이라는 동무가 있는데 이동치료 나올 때는 꼭꼭 그 처녀만 나오거든요. 우정 그러는것 같아요. 그 동무만 나오면 사방에서 영순이 영순이 하고 부르지요. 고 깜찍한 영순이는 자기를 찾을 때도 시치미를 뺀 따고 나만 말뚱말뚱 쳐다보지요. 그래 날 찾는줄 알고 대답하면 모두 폭소를 터뜨립니다. 소대장동진 뭐 나보고 영순이와 치마를 바꿔입으라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 소대장동지는 영순이와 짜구서 우정 골탕먹이거든요.》

《동무네 소대장이 그런 통담두 할줄 아오?》

《예-예? 소대장동지가요? 차 얼마나 잘 웃기는지 아니까?》

《그런데 오늘은 왜 그렇소?》

《그건 사실...》

술술 잘 풀려나오던 상등병의 말이 갑자기 꼬리를 사렸다. 그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듯 머뭇거리는 상등병을 보며 윤성은 말했다.

《난 알고있소. 그건 나에 대한 웅당한 복수라구 할가.》

《복수라구요?》

《그럴 사연이 있지.》

윤성은 한대 붙여물었다. 49년도 봄에 있었던 일이 윤성의 눈앞에 삼삼히 밝혀왔다.

극장에 뿔쳐올라온 사람들의 최종심사에 참가한 윤성은 흡족한 마음으로 한사람한사람 넘겼다.

모두 어디에 숨어있다가 이렇게 불쑥 나타났는가? 해방후 벅찬 생활이 인재사태를 만들어낸것 같았다. 윤성은 한사람한사람 간간히 료해하였다.

그의 결심에 따라 그들의 생활게도가 바뀌이고 예술단의 질적상태가 결정되기에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깃이 넓은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청년이 무대에 나섰다. 키가 늘씬하고 눈매가 시원한것이 첫 눈에 마음이 들었다.

이름은 엄기학, 나이는 27살, 영천군 양지리 씨클책임자.

《전문은 뭐요?》

《딱히 짚을것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해보았습니다.》

청년은 어쭙게 웃으며 두손을 맞비비었다.

《팔방미인이군.》

윤성은 가볍게 웃으며 지고있던 연필을 놓았다.

《그래 뭘 하구실소?》

《작곡을 해보고싶습니다.》

《작곡을?》

윤성은 안경을 밀어올렸다. 어벌똑지가 이만저만 크지 않다. 도대체 이 청년이 이 큰 극장에 작곡가가 몇명이나 있는지 알고있는가?

《피아노를 칠줄 아오?》

《풍금박엔 못쳐보았습니다.》

《그렇다!》

윤성의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가 피어났다. 엉터리로군. 혹시 멋으로 오선지를 옆구리에 끼고다니는 행세식음악가가 아닌지. 그렇다면 이제라도 길을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작곡이란 말이요 하나의 창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적로동의 산물이요. 인간의 감정과 정서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찾아서 하나의 꽃다발처럼 만들어놓는것이 작곡이요. 작곡가는 그 꽃을 씨앗부터 착실히 심고 가꾸어야 하는 거요.》

윤성은 뭇수룩 멀리 에둘러서 그 청년을 납득시키려 했다. 그자신도 말해놓고보니 허공에 뜬 력설같이 느껴졌으나 어쨌든 요점은 말해놓은셈이다. 저 청년이 그것을 눈치챘을까?

뚝밖에도 청년은 왜서인지 어설픈 웃음을 짓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 꽃다발을 들꽃으로 엮어왔을뿐입니다.》

그리고는 꾸벅 절을 하고 무대에서 나갔다. 그 청년과의 상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윤성의 기억에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오른것은 그 다음해 봄이었다. 전국예술축전무대에서 높이 평가를 받은 영천군 양지리의 가무제창이야기의 창작가가 바로 그 청년, 리민청위원장을 하는 엄기학이었던것이다. 그제야 윤성은 자기의 실책을 깨달으며 서둘러 소환장을 떨구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한생을 들꽃으로 꽃다발을 엮을 결심이였는가?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자존심이 강한 엄기학이가 그때 무대우에서 당한 수치를 두고두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예술생활에서 그런것이야 레상사인데 그다지 가슴에 웅쳐쌓을건 뭐란 말인가. 엄기학이, 자넌 너무 웅졸해. 자네도 인젠 적지 않게 지휘관인데 너그럽게 리해해줄건 주고 통이 크게 생각해야지.

윤성의 손끝에선 저절로 타들어간 담배재가 누에처럼 꼬부리들었다가 저절로 뚝 부러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포탄이 쿵튀튀한다. 윤성은 인간의 감정도, 정서도, 재능도 모조리 짓몽개버리는 그 총포성이, 이 전쟁이 가증스러워 두주먹을 꼭 부르짖었다.

잠시후 윤성은 영순이와 함께 고지를 떠났다.

감시소 천정에서 흙이 부실부실 떨어져 전화를 걸고있는 중대장의 잔등에 한발 덮였다. 윤성은 그것을 털어주고싶었으나 송수화기를 꼭 부르짖고 어딘가와 전화를 하고있는 그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 그만두었다.

《<한강> <한강>이요? 나 <청천강>1번이요. 그 래 어뎅소? 바싹 붙었다구? 한개 대대, 더 깊숙 이 끌어들이요.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 요. 탄약은 얼마? 그것밖에 없소? 수류탄은?...알 겠소. 새벽 다섯시까지만 견지하오. 알겠소. 그따 위 소린 하지도 마오. 모두 육탄이 되면 9.9절기 악합주는 누구네가 하오. 알겠소. 누구? 와있소. 걱정마오. 음, 꼭 보내겠소.》

중대장은 송수화기를 놓고 앞에 놓인 지도를 뚫어지게 들여다본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것 같았다. 윤성은 중대장에게 담배를 내 밀었다. 그제야 중대장은 윤성이라는 존재를 느 낐듯 허리를 폈다.

《변변히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군요.》

중대장은 허거프게 웃었다.

《무슨 큰 전투가 있는 모양이지요.》

《예, 우린 래일 새벽에 저 건너편 고지를 타고 앓자고 합니다. 그걸 위해 지금 한개 소대를 적 들에게 미끼로 물렸습시다.》

《미끼라니요?》

《적들을 고지에서 끌어내자는거지요. 한개 소 대가 허위습격을 하고 퇴각하는 놀음을 벌렸습니 다. 적들이 속아서 그 미끼를 물었습시다. 한개 소대에 한개 대대가 달라붙었습시다.》

《한개 대대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를 더 투입하겠 는지는 두고봐야지요. 만약 그 소대가 돌파당하 면 습격전투는 물론 이 고지전체가 위험에 빠집 니다. 모든것이 그 1소대에 달려있습니다. 선생님 이 낮에 가셨던 그 소대말입니다.》

순간 윤성은 그 어떤 충격에 몸을 흠뻑 떨었다. 그래서였구나! 바로 그래서 나를 우격다짐으로 쫓아보냈구나.

아 청맹과니, 바보, 그런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

《중대장동무, 내가 어리석었소. 난 그리로 가야 하오. 난 도피자가 될수 없소.》

윤성은 서둘러 가방을 둘러메었다.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로는 못갑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엄기학소대장은 전투가 끝나면 래일 선생님을 꼭 보내달라구 부탁했습 니다.》

윤성은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죄스러움에

몸이 줄어들어 그대로 녹아버릴것만 같았다.

《중대장동무, 그들이 건디여낼가요?》

《건디여냅니다. 한개 대대가 아니라 련대가 달 러들어도 그들은 지켜냅니다.》

윤성은 감시소밖으르 나왔다. 멀리 바라보이는 그곳, 그자신이 아무 미련도 없이 훌쩍 떠나버 린 그곳에서는 생사를 판가름하는 화광이 밤하늘 을 물들이고있었다.

(소대장동무, 날 용서해주시오. 그리고. 제발 살 아서 다시 만나기를 두손모아 비오.)

그밤은 지지리 길기도 했다. 대대가 타고왔은 고지에서 만세의 함성이 산발을 타고 메아리쳐올 때 윤성은 엄기학이네 소대를 향해 내달렸다. 나 무가지에 옷설이 찢기고 회초리가 얼굴을 때렸지 만 윤성은 그걸 느낄 경황이 없었다.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 지치고 얼어지며 고지로 오르던 윤 성은 그자리에 우뚝 섰다. 아직 포연이 가셔지지 않은 고지 꼭대기에서 엄기학소대장이 마주 달 러내려오고있었다.

《소대장동무-》

윤성은 달려온 소대장의 팔을 부여잡았다. 목 구멍에서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 입을 열수가 없었다.

《선생님, 절 용서하십시오.》

《동문 두번씩이나 날 노엽혔어 응?》

윤성은 안경밑으로 흘러내리는 뜨거운것을 흠 쳤다.

《어서 가십시오. 고지에서 전사들이 기다립니 다.》

《응, 그래 가야지. 번덕스러운 이 리윤성이 그 들앞에 무릎꿇고 절 해야지.》

윤성은 소대장에게 팔을 내맡기고 정정정정 걸 었다. 전사들이 달려와 윤성이를 둘러쌌다. 누구 하나 성한 사람이 없다. 찢어진 군복, 피배인 봉 대, 가렬처절했던 전투의 흔적들이 윤성이의 눈 길을 아프게 지진다.

《가만, 영순이가 어디 갔소?》

순간 둘러선 군인들의 고개가 하나둘 숙어든다. 섬찝한 예감이 윤성의 뇌리를 쿵 찢른다.

《영순이가 어디 갔소? 응, 소대장, 영순이가 왜 보이지 않소?》

그러자 뒤쪽에서 누군가 주저앉으며 얼굴을 움 켜잡는다. 그것이 발화점이 된듯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울지들...마시오. 》

소대장의 갈린 목소리가 울렸다. 그자신의 눈 에서도 번뜩이는것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영순인... 반땅크수류탄을 가슴에 품고 적들속 에 뛰어들었습니다. 피리를 나한테 넘겨주고... 피리를 잘 불지 못하구 간다구 하구선...》

소대장은 끝내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아!》

윤성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내가 왜 어제저녁에 그를 가지 말라고 붙잡지 못했는가. 히죽 웃으며 아바인 쪽 다시 옮겨라던 그를 같이 가자고 왜 붙잡지 않았던가! 아직도 그가 잡았던 손에는 그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가다니? 너무나 엄청난 충격에 윤성은 자신을 건잡을수 없었다. 오리나무밑에서 불던 그의 피리소리가 지금도 어디선가 들려오는듯싶다.

《동무들, 연주준비를 하시오.》

소대장이 조용히, 그러나 저력있게 말했다.

《?!》

또다시 세찬 충격이 윤성이의 가슴을 두드렸다.

《영순동문 마지막순간에 웃으며 갑니다. 우린 그의 영웅적희생앞에 눈물을 뿌릴것이 아니라 복수의 노래로, 그가 것처럼 열성적으로 참가하던 화선기악합주로 그 녀를 빛내입시다.》

전사들이 말없이 악기들을 찾아쥐었다.

그 어떤 알지 못할 거대한 힘이, 숭고하고도 성스러운 그 정신이 윤성이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소대장이 지휘봉을 들고 앞에 나섰다.

순간 윤성은 자신도 억제할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가만 소대장동무, 영순이의 그 피리를 나한테 주오.》

윤성은 전사들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전사들의 감동과 신뢰에 젖은 눈길에 윤성에게와닿았다. 소대장은 굵구치는 걱정을 누르듯 가슴이 부풀도록 숨을 들이긋더니 지휘봉을 힘있게 내리거었다.

고지를 흔들며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의 장엄한 선율이 터져나왔다. 아마도 극장이나 공연무대에서 들었다면 그 울림은 어설프고 서투른 연주때문에 귀가 솔랐으련만 윤성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윤성은 자신이 불고있는 피리소리가 어디선가 아득한 공간에서 메아리쳐오는듯싶었다. 그렇다. 지금 피리는 자신이 아니라 영순이가 불고있다. 그의 꿈, 그가 남기고 간 생활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영원히 전우들의 가슴속에 새겨져있을것이다. 그의 녀를 빛내여야 한다. 아니 그만이 아닌 이 고지의 모든 전사들, 비관을 모르고 전투적량만과 용기백배한 투지와 신심을 가지고 싸워이기는 전사들의 정신세계를 꽃다발로 엮어야 한다.

윤성은 어느새 기악합주가 끝났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소대장의 감동에 젖은 눈길에 다정히 와 박힌

다.

《아니요. 그 말은 내가 하고싶은 말이에요.》

락조가 물든 너럭바위우에 윤성은 소대장과 나란히 앉았다. 먼 어디선가 포소리가 쿵쿵 울릴뿐 사위는 고요했다.

《참 기학동무, 소환장은 받았됐소?》

《예, 받았습시다.》

《그런데 왜 오지 않았소? 혹시 이 리윤성이가 보기 싫어서 그런건 아니요?》

《선생님도 참, 전 그 일을 잊어버린지가 오래입니다. 사실은 한 처녀때문에 못갔습시다.》

《처녀때문이라니?》

소대장은 어줍게 웃더니 풀대를 툇 꺾어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추억을 되살리듯 먼 하늘쪽을 바라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불합격을 맞고 어깨가 처져 고향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습니다. 차마 대안엔 들어설수 없어 고향의 고개마루에 주저앉아 바라보느라니 글썽 마을어귀에 키높이 자란 황철나무가 일새푸른 가지를 흐느적이며 저보고 어서 오라는듯하였습시다. 그걸 보니 어쩐지 눈언저리가 화끈했습니다. 물오른 가지를 꺾어 버들피리를 만들던 일이며 우듬지의 까치둥지를 털어내려다가 혼썰나던 일, 해방후 분여받은 땅에 첫 보습을 대던 날은 마을이 둘러앉았던 두레놀이, 그 모든 정겨운 추억들이 그 황철나무에 깃들어있었습니다. 어찌보면 고향을 버리고 들떠다니는 나를 그 황철나무가 비웃는듯하기도 하였습시다.

나는 끝내 더 앉아있지 못하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황철나무밑에서 누렁황소의 고삐를 끌고오던 녀동무와 만났습시다. 소뿔시절부터 때리고 꼬집어주며 함께 자란 동무였습시다. 그 동무는 나를 매물차게 썩보더니 단번에 입에서 구렁이가 나가는지 뱀이 나가는지 모르게 된옥을 퍼붓는게 아니겠습니까?

<동문 허파에 바람을 잔뜩 채워가지고 어딜 그렇게 싸다니는거예요. 남은 분해서 죽겠다는데. 보기 싫어요. 썩 가라요!>

아닌밤에 흥두깨였습니다. 난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떨떨해 서있는데 그 동문 동쪽우에 폴짝주저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우는것이였습니다. 알고보니 글썽 군적인 집회끝에 예술써클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한프로도 나가지 못했다는것때문이였습니다.

처음엔 어처구니가 없어 웃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동무 보기가 송구스러웠습시다. 그날밤 마을뒤산 황철나무아래에서 나는 그 동무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나야말로 제 등지도 틀줄 모르는 뼈꾸기같은놈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동문 저에게 절절히 말했습니다.

<낮엔 제가 너무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동무도 고향의 이 샘물을 마시며 함께 자란 사람이 아니나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고향을 남부럽지 않게 잘 꾸려보겠다고 아글타글 애쓰는데 동문 글씨 뿌리를 뽑아들고 어디를 가겠다는거예요. 우리 고향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용섭이 아버지랑 야학선생님이랑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백두산에 가서 잘 싸운분들이 아니나요. 그렇게는 못해두...

지금 우리에게도 장군님께서 주신 땅이 있고 밝은 세상이 있는데 왜 다른 고향 사람들에 뒤지겠나말이에요. 난 그게 분하구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동무같은 재간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술 공연도 잘해서 부러워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에 가더라도 그렇게 해놓고 가면 난 동무를 기꺼이 바래드리겠어요.》

그 동무의 말은 마디마디가 물방아간의 방아꿈이처럼 나의 심장을 쿵쿵 찢었습니다. 자책이 겹칩니다. 소박한 그 동무의 말속에는 조국을 찾아 주신 장군님의 은덕에 의리로 보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에 대한 호된 채찍이 있었고, 태줄을 묻고 나서자란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는 배신에 대한 엄한 추궁이 있었습니다.

정작 정을 붙이고 있는것은 가꾸고 없는것을 만들어내면서 땀흘리고 보니 고향의 그 모든것들이 지어 내가의 빨래돌 하나마저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이듬해봄 토지개혁법령발포 4돐이 되는 때 군에서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끝에 우리 마을에서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무가 <밭갈이노래>를 독창으로 불렀는데 어느때 팔랭이로만 보이던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그 동무와 함께 돌아오던 그 밤을... 잊을수 없습니다.》

행복스러웠던 그밤에 머물러선듯 소대장의 이야기는 잠간 끊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정겨운 미소가 비껴있었다.

《동문 그들... 사랑하오?》

윤성은 직관 들이대보았다. 소대장은 얼굴을 약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저는 그 동무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씨 새삼스레 그런 말은 왜 하느냐구 하면서 달려들어 저의 등을 광광 때리는것이였습니다. 정을 주어도 이악스레 주는 악발이랍니다. 평화스러운 그 나날들에 있었던 그러루한 생활로 막들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대장은 빙그레 웃었다. 윤성은 흘린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추억은 모두 이렇게 그리웁고 아

름답고 황홀한것인가?

그가 부러웠다. 봄날 물오른 버드나무가지처럼 싱싱하고 부드러운 정서, 쇠조각이라도 녹일듯 싶은 정열, 언제나 감탄부호로 끝나는듯한 패활하고 익살스러운 말본새와 솔직성이 윤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불비속에서 타지도 꺾이지도 않는 소대장의, 아니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감정과 정서이다. 전선엔 계절에 관계없이 철불의 칼바람이 몰아쳐도 전사들의 가슴속엔 언제나 이렇듯 새웁는 승리의 봄날이 자리잡고있었다.

그날밤 탄피등잔이 그물거리는 엄폐호안에서 윤성은 오선지를 펴놓았다. 펜을 권채 곡상을 더듬는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있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고지에 와서 보고느낀 모든 일들이 섬광처럼 비껴가고있었다. 번개처럼 날카롭게 비껴가는 섬광뒤끝에 울려오는 우뢰소리는 날카로운 핏몸이 아니라 은은하면서도 그 진폭이 크고 심도가 깊은 우뢰였다. 마치도 봄비를 불러오는 봄우뢰처럼...

윤성의 머리속에는 곡상이 무르익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선에 나올 때 그의 마음속에 울린 포성과도 같은 격렬하고 행진곡적인 선율이 아니라 맑게 트인 봄하늘처럼 시원하게 흐르는 시내물처럼 유연하며 새웁는 봄들판처럼 정서가 짙은 선율이였다.

윤성은 펜을 달리기 시작했다.

고지로 오를 때 상등병이 불던 피리소리, 소대장의 정겨운 추억, 화선기악합주, 그 모든것이 줄줄 흐르는 맑은 시내처럼 한줄기 한줄기 합쳐지더니 강물처럼 넘실대며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 선율에 소대장이 전사들과 함께 다듬어 고친 가사를 붙였다.

푸른 산 기슭에 기름진 들가  
황철나무 한그루 비껴선 마을에  
백두산의 정기담아 맑은 샘물 솟나니  
여기는 내 마을 사랑하는 내 조국

가사에 맞추어 단숨에 선율을 써내려간 윤성은 펜을 놓았다. 막혔던 숨을 몰아쉬며 가사와 곡을 훑어보니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다시 보자!

**김일성**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 토지분여말뚝을 박으며 감격에 넘쳐 눈물을 흘리던 우리 농민들의 열화같은 감정이 깔려있는가? 고향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글타글 애써 가꾸는 그 처녀의 마음과 같은 아름다운 정서가 흐르는가? 원쑤의 흉탄에 몸은 찢겨도 승리의

봄을 그리며 불사신처럼 싸우는 전사들의 랑만과  
넋이 나래치는가?

윤성은 심혼을 기울여 한소절 한소절 뿜어나갔다.  
전우의 죽음앞에서 눈물이 아니라 의지와 신  
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는 전사들의 그 마음처럼  
희망과 신심에 넘치게!

드디어 윤성은 펜을 놓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가사를 붙여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빨찌산의 이야기 담겨진 이 샘물  
이 마을의 젊은이들 마시며 자라서  
장군님의 전사로 용감하게 싸웠나니  
여기는 내 마을 사랑하는 내 조국

윤성은 온몸으로 짜릿하게 퍼져가는 흥분과 격  
정을 누를수 없어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았다.  
딱 감고있는 그의 눈앞에는 가슴에 번쩍이는 훈  
장을 달고 화려한 극장에서 기악연주를 하는 전  
사들의 모습이, 열정적으로 지휘봉을 흔드는 소

대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왜서인지 눈곱으로 뜨  
거운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자신도 새삼스레 느껴지는 정신적승  
화에 대한 기쁨과 것처럼 높은 세계에로 이끌어  
준 평범한 전사들에 대한 감사와 경모의 정에서  
우러나온 감정의 분출이었다.

×

몇해전 작곡가 리운성의 생일 여든뎡을 맞으며  
마련된 《리운성음악회》에서 그때 지은 노래가  
무대에 올랐다. 이미 세상에 명곡으로 이름지어  
진 그 노래는 예나 지금이나 군중의 열렬한 박수  
갈채를 받았다. 노래가 끝난 다음 무대에 오른  
백발의 리운성은 이렇게 말했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이런 노래를 짓게  
해준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평범한 전사들, 참된  
생활과 투쟁의 스승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  
는바입니다.》

## 정깊은 구내길에서

최정용

어느덧에 하루해도 서산에 기우는데  
마천령기슭 광천땅  
자그마한 지방공장구내길에 못박혀  
나는 차마 걸음 떼지 못하오

그 누가 탓하겠소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사람들  
조국에 더운 피 서슴없이 바쳤기에  
우리 당이 그리도 사랑하는 영예군인들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들에 받들려  
오늘에 그 여생 편히 보낸다고

하여도 마음의 군복은 벗지 않은 이들  
스스로 어깨 무겁게 조국을 받들며  
탄피칼린 그날의 전선길인듯  
이 구내길에 복무의 자욱 땀뿔이 새겼거니

헤아릴수록 가슴뜨겁소  
그 많은 원료들을 자체로 마련하느라고  
자기의 머리 자기의 손으로  
새라새로운 기계들을 만들어내느라고  
그 언제 잠인들 편히 잤겠소

남들보다 불편한 몸들이여도  
남다른 수고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30년을 년간계획 넘쳐하며  
그렇게 우리 생활에 밝은 빛 더해준  
아, 광천의 영예군인들 오고간 이 길  
그 불같은 삶의 숨결이  
뜨겁게 굵아쳐간 이 구내길

감돌아흐르는 북대천 물소리조차  
정을 불러내는 이 구내길에서  
크나큰 걱정으로 이 가슴 뚫어번지오  
무엇을 위한 벽찬 삶인가  
나 또한 스스로 량심의 답을 찾으며

긴긴 세월 하루같이  
나라살림에 보탬을 주며  
혁명의 붉은 꽃 번함없이 피워온 이들을  
조국앞에 시대앞에 빛나는 모습으로  
어머니 우리 당은 내세워주었거니

아, 생각되오 나에게는  
값높은 삶의 자욱자욱  
뜨겁게 아로새겨진 이 길이  
이들처럼 살라고, 그렇게만 살라고  
내 마음에 새겨주는  
아름다운 삶의 좌표처럼

## 쇠물이 흐를 때 외 1 편

정동찬

저물녘  
교대를 앞두고  
용해장의 벽과 천정을 흔드는  
로장의 다급한 출선구령소리  
서둘러 들어서는 남비차의  
기적소리  
차바퀴소리...

다투며  
엿갈리는 때

문득 마음을 휘어잡는  
고요함은 어디서 오는건가  
쇠물의 굽이침에 이어 따르는  
출선시간의 환희를 누르며  
가슴에 스며드는 고요함  
이 고요속에 밀려오는  
아 그리움

달랠길 없이  
젖어드는 눈빛

저기 가닿는곳 어디나  
못잇을 그날처럼  
채광이 쏟아져내리는 계단...  
다시금 이러할 때 만져보는  
로장의 보안경...  
수령님 드시였던 그 보안경...

쇠물이 흐를 때면  
수령님 모실 생각에  
너나없이 온통 끊고 뛰고  
그러면 간절한 기다림이  
눈앞에 이루어지던 일  
기쁨의 시작과 끝을 두고 살던  
그 절정

로속에 번개불 잡아들이고  
로속에 우뢰를 불러들여  
짹짹 쇠물을 받아내여도  
온몸을 휩싸는 환희보다  
내 가슴속에서 못가서낼

이 고요함  
이 그리움

그토록 가슴속깊이  
그토록 우리 생활 깊이깊이에  
심어지고 스며든 사랑  
이 마음의 기슭을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아 수령님의 사랑이여

쇠물이 흐를 때  
터져오르는 기쁨의 소용돌이를  
달래이며  
쿵쿵 울려오고있어라  
우리 마음속으로  
수령님 오시는 발자욱소리  
고요속에  
한없는 그리움속에

## 영원히 저 노을밑에서

내 어릴적에  
창을 빠금히 열면  
아버지의 돛배 희어져가던  
수평선의 그 노을빛갈을  
내 얼마나 사랑했던가

꿈처럼 황홀해  
마주 달려가 만져보고싶던  
그 노을빛  
이제는 천진한 시절부터  
내 부르는 노래와 그러보는  
공상속에  
버릇처럼  
자주 비쳐오던 그 풍경  
추억속에 남겨두리

내 오늘은  
성실한 로체공들속에 어울려  
탄산수도 기울이고  
출선구를 터치며  
나의 로력  
나의것으로 펼쳐올리는  
저 쇠물의 붉은 노을밑에서

노래의 구절을 찾노라  
저 노을밑에서 가꾸는  
나의 사랑하는 생활의 화원  
그 향기  
그 발판이 없이  
내 어이 당에 드리는  
노래를 지으라

저 노을밑에서 함께 사는  
나의 사랑하는 동무들  
모습처럼 소박하고 어진  
저들의 평론과 변론이 없이  
내 어이 인민이 자기의것으로  
믿는  
노래의 다발을 엮으라

밤이나 낮이나 타오르는  
저 노을밑에서  
교대에 교대를 이으며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받드는  
로동계급의 의무와 권리를

고스란히 지키고  
그이 말씀하시는  
순결한 도덕과 양심을  
동지들과 주고받으며  
내 소원을 이루리라  
내 생각이 그대로  
시대의 노래가 되어주길 바란  
그것을...

사람도  
땅도  
모든것이  
이글거리는 용암처럼 뜨거운  
저 노을밑에서 영원히  
나는 살리라

여기서  
살아보지 않고서는  
알수도  
느낄수도 없는  
가장 고귀한것을 창조하며



## 섬에서의 공연

김도한

소꿉시절 알몸뚱이로 강가의 모래불에 덩굴며 함께 자라난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다. 지금은 어느 예술단의 책임일군이며 무대분야에서 손꼽히는 채사인 그가 외국에서 돌아오자바람으로 소식을 보내온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나는 친구의 편지내용을 그대로 공개한다.

X

김동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우리 예술단의 외국순회공연성과들이 광범하게 소개되었다기에 그것은 다행하겠네.

우리 사이에 뭐 예돌것이 있나. 직방 이야기의 본문제로 들어가세나.

언젠가 자넨 ㅅ등대섬의 숨은 공로자인 신국봉 아바이의 수십년간 생활을 실화문학으로 쓰려다 성공 못한 사실을 나에게 하소연했었지?

제판에는 그래도 시대의 참된 전형을 창조하리라라는 기대를 안고갔건만 그의 과묵한 성격과 문학에 대한 몰리해(그때 자네의 기색은 서글프기 그지없었네), 취재에 좀처럼 응하지 않는 께뻑한 행동으로 하여 실망의 한숨만을 파도세찬 등대섬에 뿌리며 돌아섰다고말이네.

세상일이란 참, 바로 그 등대섬에서 우리 예술단이 첫 귀환공연을 하였다네.

아마도 자넨 《그곳에서 큰 건설공사를 벌려놓았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겠지》하고 대뜸 넘겨짚을거네. 충분히 그럴수가 있지. 하긴 우리도 배편으로 귀국하던 도중 《ㅅ등대섬에 들러 공연을 할것.》이라는 전보문을 받고 누구나 그 비슷한 생각을 했단िका.

그런데 막상 섬에 도착하고보니 예상이 뒤집혀지더군. 바람세찬 잔교에서는 해풍에 얼굴이 검스레 그슬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깊숙한 등대원아바이 혼자서 우리 예술단을 맞이했다네.

나는 배를 내리면서 저도 모르게 사방을 두리번거렸네. 보이느니 망망한 바다요 들리느니 쿵쿵 심장을 놀래우는 파도소리뿐이었네. 손바닥만한 섬안에는 대규모의 건설판을 벌릴 부지도 없거니와 그 무슨 행사분위기는 고사하고 적막감만이 불시에 온몸을 휩쌌네. 등대탑주변에 형제처럼 나란히 자리잡은 살림집 서너채만이 여기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하는 편민에 가까운 느낌을 주

더구만.

하지만 나는 세련된 예술인답게 인차 마음을 다잡았네. 엉거주춤해서 있는 등대원에게 다가가 서로 통성을 하며 인사를 나누었지. 그리고는 우리 예술단이 섬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고 엄숙하게 알리었다네.

《글쎄... 아침에 물으로부터 연락이 오긴 왔소다. 헌데... 이거 참...》

등대원은 몹시 딱해하며 두손을 썉썉 마주 비벼대기만 하는것이 아니겠나.

《허허, 그저 마음을 꼭 놓으시고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됩니다.》

나는 그에게 담배를 권하고 불까지 켜주었네.

《하- 이런... 참.》

등대원은 커다란 손에 담배를 감아쥔채 점점 더 난처해하며 눈길을 허둥거리더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나는 묻지 않을수 없었네.

《저... 공연을 꼭 해야만 되오다?》

아바이는 애원에 가까운 어조로 되물었네.

《허- 왜 그러십니까? 공연을 하러 왔으니 해야지요.》

나는 그의 벌스런 거동에 의혹이 가면서도 내색을 않고 진중하게 그루를 박았네.

섬보다 더 커보이는 러객선을 한동안 정신없이 바라보던 등대원은 급기야 고개를 힘겨웁게 외로 틀었네.

《저... 그만두시오다. 》

그리고는 돌아서는것이 아니겠나.

《예?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나는 급히 따라잡았네. 그런데도 아바이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한동안 갑자르다가 불쑥 《이 섬에는 지금 나혼자밖에 없소다.》 하며 손을 내젓는것이었네.

《?!...》

그때의 내 표정을 상상해보게. 너부죽한 얼굴이 순간에 오이처럼 질죽해진 이 다혈질의 친구를말이네.

《그제 어른 아이 모두가 평양견학을 떠났소다.》

《예-에?!》

나는 말뚝처럼 굳어져 하마트면 신음소리를 내지를번했다네. 멍뚱한 눈썹이 번번한 이마우로 꿈틀 기여오르는 감이 들더구만.

(헛참, 일이 별스럽겐 됐군. 무엇인가 혼돈이 생긴것이 아닌가?)

물에서는 섬사람들이 모두 평양견학간것을 모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한 나는 무전으로 실태를 알리고 차후 행동지시를 기다릴수밖에 없었네.

신아바이와 너럭바위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섬생활에 대한 두세마디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배에서 답전을 가져왔더군.

《뭘라구?》

나는 후닥닥 일어서며 전보문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네.

《공연을 할것!》

틀림없는 우리 글 여섯자일세. 감탄부호까지 합쳐서말이네.

그러니 조직사업에서 혼돈이 생긴것도 아니라네. 물에서는 섬에 혼자 남은 바로 그 등대원을 위해서 우리 예술단을 보낸것이었네.

나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눈시울을 습벅이며 수행선너머를 바라보았지. 여늬때 없이 정답고 아름답게 안겨오는 조국의 넓은 기슭이 거기에 있었네. 가슴이 몽클 젖어들며 생각이 깊어지더구만. 자네도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예술단이 외국 순회공연때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며 세상을 들뜨다놓았나. 극장마다 사람사태여서 공연일정을 연장했는데도 구경표 열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다고 하네. 조선의 노래와 춤을 한번만이라도 보고싶어 려관에 보름나마 묵은 지방사람들도 많았네.

그런데 이 등대섬에서는 관람자 한사람을 대상하여 이름있는 큰 예술단이 동원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네.

무척 흥분한 나는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지. 배에서 내린후 아직도 경우를 보며 서성거리는 연출가와 부서책임자들 그리고 배우들에게도 손세를 써가며 직접 지시했네. 외국공연때보다 더 품을 들여 의상을 손질하도록 하고 분장은 세부까지 거들며 그날따라 잔소리가 이만저만 아니었다네.

드디어 《무대》로 선정된 평퍼짐한 둔덕에 합창단성원들이 숙연한 모습으로 정렬해섰네. 그 맑은켄 잔디밭에는 신국봉아바이와 내가 《관중》으로 앉아있었고...

연분홍빛 조선치마저고리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선녀같은 처녀가 마치 수천의 관중앞에서 하듯이 랑랑한 목소리로 소개를 시작했지.

《지금부터 등대탑과 더불어 수십여년간 비오나 눈이 오나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온 신국봉동지를 위한 우리 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 출연

에...》

순간 거대한 폭풍을 안고있는 전야처럼 주위가 조용해졌네. 쉬임없이 처절씩이던 파도소리도 차분히 가라앉고 만리창공을 주름잡던 구름도 까닭없이 멈춰선것 같더군.

이윽고 뒤흔쳐럼 장중한 선율이 등대섬에서 터져올랐네.

장백산 즐기즐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커다란 손으로 풀무마냥 들먹거리는 가슴을 치고 누르고 숨소리를 점차 높이던 신아바이가 공하며 몸을 뒤틀더니 그만에야 어깨를 세차게 떨기 시작했네.

《으-흐흑...》

해별에 타고 바다바람에 그슬린 적동색 얼굴에서 두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려 풀잎사이로 푹푹 떨어졌네. 그는 두팔벌려 대지를 짊 그러안더구만. 풍랑사나운 이 섬에서 한생을 살아오며 무슨 일인들 겪어보지 않았겠나.

문득 내 눈앞에는 자네의 취재수첩에서 읽어본 1945년 7월의 류달리 안개자욱한 그밤이 선히 떠오르더군.

그의 아버지는 해방전 이 섬의 등대지기였었지.

국내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안전하게 떠나보내고 왜놈들에게 발각되자 말없이 죽음을 택한 사나이, 그가 최후의 순간에 목청껏 웨친 《김일성장군 만세!》소리는 어린 아들의 심장속에 일찌기 뿌리내린 삶의 기둥이었다고 할수 있을거네.

전쟁의 불구름이 등대탑을 휘감던 그날에는 또 어떠했던가. 미군놈들은 어머니와 어린 등대원을 치고 때리면서 갖은 악착한짓을 다했지. 감춰둔 등대설비를 내놓으라고말이네. 그러나 피가량자한 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소리에 원썬들은 전율하였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어린 등대지기는 어머니의 시신을 소중히 안고 눈물이 아니라 불을 뿜었더라네.

그런데 지금 신아바이의 충혈된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솟구치고있었네. 그는 눈물범벅이 된 구리빛 얼굴을 조금도 부끄럼없이 쳐들고 해빛찬란한 하늘을 우러르었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그의 석십하고 갈린 목소리는 고조되는 혁명송가의 선율과 장엄한 화음을 이루면서 누리에 울려 퍼졌네.

숨을 죽인듯싶던 파도가 산악같은 흰 갈기를 쳐들고 와와 환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갈매기와 술한 바다새들이 깃을 퍼덕이며 황홀한 뿔뿔을 펼쳐놓았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온 세상이 섬에서의 전례없는 대공연에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오는것 같았다네 .

어느덧 예술단 모든 성원들의 얼굴에 눈물이 번뜩이고 나의 망막도 뿌옇해졌네. 수천, 수만번의 공연무대에서도 감득 못하던 크나큰 걱정이 용암처럼 가슴마다에 끓어번졌던것이네.

김동무!

물론 심산유곡의 몇몇 아이를 위해 전용 통학차가 달리고 한 마을의 큰물피해를 막으려고 룡해공군까지 다 동원되는것이 우리 나라 현실이라고 생각할 때 섬에서의 공연은 사실상 《기상천외》한 일이 아니었네. 전무후무한 이야기도 아니

고...

그렇지만 나에겐 지금까지의 무대생활에서 가장 성공한 공연이며 현실체험의 빛나는 분수령이었다는것을 부연하고싶네. 그리고 자네에게서 커다란 창작적충동을 불러일으키리라는것도 믿어지지 않네.

×

그리하여 나는 등대섬에 다시 가기로 작정하였다. 뒤늦게나마 생활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현실에 몸을 푹 잠글 결심이다.

사랑은 내리고 충성은 오른다는 말이 있다. 친구의 사랑이야기에 나는 충성이야기로 화답하련다.

우리 시대의 인간전형- **김일성**민족이 지니고있는 억센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는 바로 신국봉아바이와 같은 충신의 성격창조에서 아름답게 꽃피날것이다.

## 꽃강냉이

리영삼

길쭉 느티나무아래서  
끼니삼아  
꽃강냉이 맛보시는 수령님곁에  
바람은 잠잠  
어둠은 머뭇머뭇

넘치는 난알향기에  
더 높이 들린 하늘  
별이 꺼지도록 실린  
황금작황우에  
더 실린 그이의 웃음

오신길 저편  
아득히  
만져보신 이삭마다  
논두렁마다  
감격의 눈물도 맺혔으리  
꿈같은 이야기도 많으리

못잊어라  
봄새벽  
살랑이는 엷은 잎새결에서  
분조장의 작은 수첩 펼치시고

오래도록 맞으신 보슬비  
산너머 들너머  
출렁출렁 흘러드는 푸른 물에  
발을 잠그시고  
취하신듯  
휘둘러보신 마음의 무지개  
지금은 하늘땅에 노을로 피어났으니

아아 사랑을 이어  
자옥을 이어  
가고가시는 내 나라의 들길이어  
이제 지새울  
밤길  
그끝은 어디나

그날의 감격에 젖어  
오늘도 유정한 풀벌레소리에  
묻혀 잠든 길  
지켜보는 내 눈엔  
꽃강냉이만 아물거리네  
아물거리네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한 충신의 성격창조

명일식

세상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수령복을 타고난 나라, 인민들모두가 자기 수령을 아버지로 받들고 따르는 충효심이 높은 나라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수천수만의 충신들이 백두에서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따라 사회주의 한길로 힘있게 나아가고있다.

우리 문학은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충신의 풍모를 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세월이 흘렀어도 수령과 당의 기억속에,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는 충신들의 성격을 깊이있게 창조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문학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미학실천상의 문제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모두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더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께 끝없이 충실한 김책형의 충신이 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계승해나가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모두가 다 김책형의 충신으로 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나갈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이 빛나게 계승되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당과 인민의 요구를 깊이 알고 혁명의 충신들을 형상한 문학작품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나온 혁명의 력사에는 가장 어렵고 준엄한 시련의 시기마다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한생토록 충성다해온 김책, 차광수, 오중흙, 김책, 안길, 최현 등 수많은 진짜배기 충신들이 서있다.

이런 충신들의 한생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시작되고 충실성으로 끝나는 가장 값높은 삶이었으며 그들은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시대의 참다운 전형들이다.

시대의 전형인 충신들의 성격형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했던 충신들

을 기본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을 더 활발히 창작하는것이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의 견지에서 충신의 성격을 더 높은 수준에서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책형의 충신들은 어버이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했던것처럼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미래의 태양으로 충심으로 받들어모신 충신들이었다.

작가들은 문학작품들에서 티없이 맑고 순결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자기 수령과 령도자를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충심으로 받들어온 충신들의 성격을 심도있게 그려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측근인물의 형상은 그가 어떤 인물이든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성격의 핵으로 되어야 한다.**》

김책형의 충신들은 혁명투쟁과정에 수령님의 위대성에 매혹되어 그이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투쟁하는것을 가장 값높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다바쳐 수령님께 충성다하였다.

지난 시기 창조된 수많은 충신들의 성격형상에서 특별히 인상깊은것은 한생을 충대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높이 받들어온 최현의 성격형상이다.

최현의 성격을 형상한 모든 작품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근본핵으로 하여 그의 성격을 충신의 전형적인 성격으로 비교적 감동깊게 잘 형상하였다고 볼수 있다.

충신으로서의 최현의 성격형상에서 이룩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그가 호랑이와 같은 백전로장으로 될수 있는 근본바탕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의 무한한 충실성에 있다는것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충신으로서의 최현의 성격형상에서 감동깊은것은 우선 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곁을 떠나시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고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기어이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실지 생활속에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최현이 지닌 이 남다른 혁명적신념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안겨주신 것이다. 또한 그것은 그 자신이 피어린 투쟁의 력사와 교훈 많은 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품모와 한없이 고매한 인간미에 스스로 매혹되어 얻은 귀중한 진리였고 생활을 통하여 더욱 굳건히 다져넣어 자기의 성품으로 체질화 되도록 꾸준히 자래워온 철저히 최현자신의 것이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그 나날부터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오직 한분, 위대한 수령님만을 생각하며 그이의 몸가짜이에서 혁명하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생활의 신조로, 확고한 철칙으로 삼아왔다. 그의 이러한 생활철칙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가장 어려운 전투정황속에서나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그가 순직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높이 발휘되었다.

총신의 신념을 가진 최현의 이러한 성격을 가장 감동깊게 형상한 모범은 우선 총서 《불멸의 력사》중 해방후편인 장편소설 《조선의 힘》(정기종)에서 무전기가 파괴되어 최고사령부와 의 련계가 끊어졌을 때와 다시 이어졌을 때의 눈물겨운 생활화폭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편소설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로부터 간고한 적후투쟁과 평양해방전투까지를 기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쟁에서는 원래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난관들과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걸음마다 겹겹이 앞을 막아나서는 것이 보통이다.

조국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 철천지원수 미제를 무찌르며 서울 대전을 해방하고 남으로 힘차게 진격해나가던 인민군부대들은 락동강계선에서 뜻밖에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게 되었다. 그때 최현사단은 김천-문경간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로를 차단할 중요한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단은 치열한 싸움을 벌려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과정에 뜻밖에도 무전기가 파괴되어 최고사령부와 의 련계가 끊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난관중의 가장 어려운 난관이였다.

최현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무전기의 고장으로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떨어져 사단의 생명선이 끊어진 것으로 절감하였다. 하여 그는 모든 수단들을 다해 무전기를 구해올데 대한 명령을 즉시에 하달한다.

무전기를 구해올데 대한 그의 명령에는 순수 전투임무의 수행만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 수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량심이 깊이 깔려져 있었다.

그는 최고사령부와 의 련락이 끊어지자 몸부림

치면서 몸져 앓기까지 한다. 그의 병은 의학적인 병이기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정신적인 고충이였다.

그것은 다음의 생활들이 구체적으로 펼쳐보여 주고 있다.

최고사령부와 련계가 끊어진 다음부터 높은 고열속에서 신음하며 앓고있던 최현은 경찰중대에서 로획해온 무전기를 보고서 정신을 버쩍 차리며 벌떡 일어나 최고사령부와 련결이 맺어질 그 순간만을 초조하게 기다린다. 그것은 마치도 잃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어린 아이의 천진한 마음같이 보인다. 그는 너무도 기빠 마음속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릴 말의 구절구절을 곱씹으며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애타게 기다린다.

그러다가 무전기출력이 너무 낮아서 끝내 최고사령부와 련계가 맺어지지 못하게 되자 그는 그때까지 참고 견디던 고열로 세찬 경련까지 일으키고 다시 병석에 눕게 된다.

그는 심한 병마속에서 헤매이면서도 어느 한 순간도 잊지 않고 멀리 문경교개에서부터 매일같이 최고사령부만을 애타게 그리며 찾는다.

《(장군님께선 지금 어데 계시랴, 작전실에서 전선을 지도하고계실가?... 혹시 우리들때문에 근심하고계시지는 않을가?... 장군님, 장군님을 뵈고 싶습니다. 장군님이 그리워 목이 타고 가슴이 타는 이 최현입니다. 장군님께 사단의 전투행적을 보고드리고 새 전투명령을 받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군님!...)》

이 얼마나 절절한 최현의 심정인가. 이 절절한 호소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떠나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자각이 넘쳐있다. 그가 애타게 그리는것은 단지 최고사령부의 명령만이 아니라 진정 자기 삶의 전부이고 생명선과도 같은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품인 것이다.

소설은 이렇게 최고사령부를 애타게 찾는 과정을 단순히 끊어진 련계를 다시 잇게 하기 위한 실무적과정으로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을 찾는 자식의 마음인양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애타게 그리며 그이의 음성을 한순간이나마 듣고싶어하는 그의 깊은 내면심리과정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여 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 수 없으며 **김일성**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기어이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있는 그의 성격은 또한 새로 로획해온 무전기를 통하여 10월 11일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을 듣는데서 더 감동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고사령부와 의 련계가 끊어진 다음부터 몸져 앓기까지 하면서 몸부림을 치던 그가 장군님의 방송연설을 듣고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감격에

넘쳐 어쩔줄을 모르는 모습은 얼마나 감동깊은가!

《장군님! 이 최현이 지금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죄다 새겨넣고 있습니다!...》 하고 심장으로 높이 웨치는 것이다.

그는 방송연설을 듣는 순간에 온몸의 근육이 아프게 죄어들었고 살이 막 떨리며 심장에서 피가 솟구치고 눈은 섬광처럼 번쩍이었다. 그리고 그처럼 신음하던 병마까지 깨끗이 털어버리고 일어나선 사단의 장병들에게 해어진 옷도 길고 목달개도 새로 갈며 바지주름까지 잡게 하고 대렬점검도 하고 숲속에서 사열식을 크게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사단은 하늘을 찌를듯한 충천한 기세로 양양해방전투에서 대승리를 이룩하고 계속 더 큰 섬멸적인 대공세를 준비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결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고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기어이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최현의 신념은 또한 단편소설 《영원》(안동춘)과 《류다른 사냥》(리철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단편소설 《영원》은 로투사인 최현이가 육체적인 로쇠를 모르고 자신은 늙지 않았으며 영원히 장군님곁에서 군복을 입고 떠나려 하지 않는 충신의 높은 품모를 감동깊게 보여주고 있다.

최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으로 오르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흥분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을 타고 한달음에 수령님께서 오르신 백두산마루에 오른다. 이러한 형상에는 영원히 장군님의 전사로서 그이의 결을 떠나지 않고 살려는 그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비껴 있다.

그때 사실상 최현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군복을 벗게 되었다. 하여 수행일군들은 그가 백두산에 오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수령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신다는것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세월의 흐름이란 막을수 없는 것이어서 늙으면 다 꽃이 열매로 되고 열매는 땅에 떨어지듯이 새 세대들에게 자리를 넘겨주는것은 하나의 법칙과도 같다. 모든것이 시작이 있고 종점이 있기마련이다. 결국 자연의 법칙에는 영원이란 없다. 최현이도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에 순응하려 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팔다리가 있고 눈도 밝고 숨도 쉬고있는데 어찌하여 수령님의 친위전사의 위치에서 물러난단 말인가.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장군님의 곁에서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군복을 입고 친위전사로 싸우겠다는것이 그의 변심없는 철석같은 신념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할줄 모르는 이런 신념으로 하여 최현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무력부의

전반사업을 것처럼 충실하게 맡아할수 있었던 것이다.

단편소설은 최현의 철석같은 신념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충신의 전형적인 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할수 있었다.

단편소설 《류다른 사냥》에서는 이와는 달리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생활을 보여주고있지만 일편단심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한생을 다 바쳐 싸우리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감동깊게 보여주고 있다.

단편소설은 최현이가 항일무장투쟁시기 중대장을 할 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때 불순분자 조이빈은 최현이 장군님의 통일전선로선을 지켜 류하춘 《자위단》을 치지 않았다는것을 이유로 그에게 《민생단》루명까지 들썩웠다. 허나 최현은 그에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날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그는 오래전 마촌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한밤을 같이 쉬면서 모포한장 변변한것이 없는것을 보고 못내 가슴아파하며 그때부터 범가죽 한장을 구해드리려고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있었던 것이다.

그 소원이 이번야야 풀리게 되었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고있었다. 그가 총 한방이면 잡을수 있는 범을 쏘지 않고 산채로 잡는데는 위대한 장군님께 드릴 범가죽에 사소한 흠집도 내지 않으려는 그의 깨끗한 마음과 신념이 깊이 간직되어있었다.

최현의 철석같은 신념은 단편소설에서 조이빈놈이 류하춘 《자위단》을 끝내 치고서 돌아와 범가죽을 어지럽히려구 할 때 더 뚜렷이 나타난다.

최현은 범가죽을 다치려는 조이빈놈에게 벽력같은 소리로 격분을 터친다.

《이놈들아, 그제 어떤 범가죽인데 그걸 깔고 앉으려는거냐?》

《이건 **김일성** 장군님께 올리자구 마련한 범가죽이다. 그런데 네놈이 감히 이걸 어지럽히려구? 이 오만무도한놈!》

《이 쥐새끼같은놈아! <민생단>협약이 아니라 천하없는 별길 뒤집어씌운다 해두 장군님을 받드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놓지는 못해. 주눅이 들게 하지는 못해. 알겠느냐, 이놈!》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살려는 그의 투철한 신념.

작가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튼튼해진 혁명적신념이 있기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을 모르는 충성의 열정과 불굴의 담력, 강의한 투지로 놈들과 싸워 장군님께 올릴 범가죽을 마련하는 참다운 충신으로 될수 있었다는것을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작품들에 그려진 최현의 성격형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그이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만을 굳게 믿고살아야 한다는것을 깊이 새겨준다.

충신인 최현의 성격형상에서 감동깊은것은 다음으로 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안고 그것을 목숨바쳐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그의 혁명가적 자세와 립장을 진실하게 보여준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순수 상급이 하급에게 하달하는 그런 실무적인 전투명령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이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들은 다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성실하게 집행하는것을 자기 삶의 전부로 생각하고있다.

이런 혁명가적 자세와 립장은 우선 그가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무조건 받아안고 목숨바쳐 끝까지 성실하게 집행해나가는데서 뜨겁게 볼수 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장군님의 최대의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것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관철하였다.

최현의 그러한 성격은 장편소설 《조선의 힘》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아안고 집행하는 감동적인 장면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원췌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며 남으로 진격하던 최현사단은 락동강을 넘어 부산을 눈앞에 두고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명령을 받게 된다.

그때 최현은 후퇴라는 전선사령관 김책의 말에 반발하며 군사재판에 넘어가 깨꾸막질을 하더라도 공격을 중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그가 후퇴명령이 어느 한사람의 말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전투명령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는 군말없이 그 즉시에 무조건 접수하고 성실하게 집행하는것이다.

그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이 아무리 어려운것이라 해도 최상의 영예로 여기고 집행한다.

특히 그는 가장 어려운 적후전선부대인 2군단장의 임무를 새로 받아안을 때 심한 병속에 신음하고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떤 일이 부닥친대도 그이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관철한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진다.

여기서 특히 가슴뜨거운것은 언제나 제일 위험한곳에 최현동무를 보낸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의 말씀에 그가 가슴을 불태우며 더 굳게 결의를 다지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장군님! 이 최현이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이지 이 최현이야 최현이기전에 장군님께서 키워오신 한 전사가 아닙니까. 내 이제 적구에 나가 싸우다 죽드래두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꼭 보답을 하리다!...》

그가 다진 이 심장의 맹세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더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뜨겁게 받아

안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집행할 강철의 투지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는것을 생활의 철칙으로 여기고있는 그의 성격은 또한 그이께서 주신 명령을 흥정하고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는데는 무자비한 투쟁을 날카롭게 벌리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그가 평양을 해방할데 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깔고앉아 지연시킨 리승엽과의 투쟁을 날카롭게 벌리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평양을 해방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이 하달될 때 그는 심한 동통으로 의식을 잃고 심하게 앓고있었다.

이것을 좋은 구실로 리승엽은 장군님의 명령을 무려 다섯시간이나 지연시켰다.

최현은 혼미해지는 의식속에서도 다섯시간전에 최고사령부에서 보낸 전신이 있었다는 소식을 얼핏 듣고서는 정신을 가다듬고 초인간적인 힘으로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리승엽이가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다섯시간이나 깔고앉아있었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는 더는 참을수 없어 격노한 주먹으로 천막을 밟았던 나무기둥을 꿰하고 두드리면서 리승엽을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불을 토하듯 분노를 터뜨린다.

《누가 감히...어느 누가 감히...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놓고 흥정을 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평양을 해방하라고 하셨는데... 쉬고 가겠어?...어따 대고 이것들이야?!...》

《용서치 않을줄 아요? 그가 누구든지... 다시한번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놓고 흥정하거나 한치라도 어기면... 그자리에서 썩죽일테요!...》

이 얼마나 뜨거운 심장의 분출인가!

폭탄보다 더 크게 울리는 최현의 이 말마디들은 얼마나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철저히 옹호하며 자기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가 하는것을 빛나는 모범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놓고 흥정하려하거나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가 누구든 그자리에서 썩죽이겠다고 한 그 말은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말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운명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충신인 최현의 심장속에서만 나올수 있는 말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견결히 옹위하는 그의 확고한 신념앞에 군사위원의 높은 자리를 타고앉아 암해책동을 하려던 리승엽도 감히 어찌지 못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더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안고 목숨바쳐 끝까지 집행하는것을 생활

의 철칙으로 여기고있는 그의 성격은 또한 이 작품에서 평양을 해방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통해서도 볼수 있다.

그는 평양을 해방할데 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즉시에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을 개시하고 그 앞장에 서서 나간다.

그때에도 그는 높은 고열과 혼미해지는 의식속에 헤매이고있었지만 결사전을 각오하고 부관의 부촉임을 받으면서 말안장우에 올라앉는다. 그리고 련락병을 시켜 말의 배터끈에다 자기 발목을 쫘쫘 묶어놓게 한다.

그는 튼튼하게 결박되었는가를 다 확인한 다음에 부관에게 이렇게 말한다.

《3시간후엔 평양해방전투가 시작된다는걸 잊지 말라구. 그때까지 우린 립진장에 달아야 해. 놈들의 퇴로를 완전히 막고 포위섬멸하라는 장군님의 명령이야... 혹시 내가 의식을 잃더라도 도중에 나를 안장에서 내리는자는 처벌이다. 부관은 목적지까지 말을 때려몰라!...》

얼마나 눈물겹고 감동깊은 충신의 참다운 모습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이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높은 충성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있었기에 그는 준엄한 불바다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심한 병마속에서도 꺼꾸러지지 않았으며 가장 어려운 적후투쟁과 평양해방전투도 승리적으로 이끌어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릴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더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생각하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어김없이 끝까지 관철하는 최현의 높은 충성심은 또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 해방후편인 장편소설 《50년여름》(안동춘)에서도 볼수 있다.

최현사단은 7월 11일에 늦어도 4~5일안으로 보은계선에 진출하여 대전동남쪽을 포위할데 대한 전선사령부의 명령을 받게된다. 그런데 적들은 벌써 기미를 알아차리고 한개 군단의 병력으로 장벽을 막고있었다. 이것은 전혀 예견치 못한 정황중에서도 최악의 경우였다. 하여 참모장은 거의 4배나 되는 적들과 맞서기 어렵기때문에 우에 증원부대를 더 요구하려고 한다. 그때 최현은 책상을 치면서 다음과 같이 엄하게 꾸짖는다.

《...동무들은 전선사령부에서 내린 명령을 가지고 흥정하려 드는데 그래서 안되오.

그 명령은 장군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아니겠소. 장군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꼭 할수 있으며 또 죽더라도 해야 되는것이요. 나는 이제껏 그렇게 싸워왔소. 그렇게 싸워 실패한적이 없었으며 매번 죽음을 각오했지만 살았소.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이요.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명령에 제시된 전투계획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았으며 지원요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단공격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처럼 최현은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은 기어이 수행해야 한다는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대원들도 모두 그렇게 이끌었다.

진짜배기 충신인 최현의 이런 성격은 오늘의 현시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령지시를 어떠한 자세와 립장에서 관철해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준 참다운 모범으로 되고있다.

우리 문학은 사람들에게 최현과 같은 충신들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령지시를 높이 받들고 나갈 때만이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있다.

영생하는 충신인 최현의 성격을 새롭게 탐구한것은 이밖에도 가장 어렵고 첨예한 격전장마다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이 발휘되는 과정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모든 작품들에서 보는것처럼 최현이가 싸우고 있는 모든 초소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남진의 길에서와 적후전선, 평양해방전투를 비롯하여 가장 어렵고 첨예한 결전장들이다.

그는 이런 가장 어려운 초소들에 자기가 서있는것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최대의 믿음과 사랑으로 영예롭게 여기며 그이의 명령을 깨긋한 량심으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성실하고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간다.

또한 작품들에서는 그가 비록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한평생 자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애쓰는데서 참된 충신의 성격적면모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그는 언제나 자기보다 먼저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생각하며 혹시 자기가 일을 잘하지 못하여 장군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일이 없도록 부단히 애쓰며 자신을 돌켜본다.

그것은 이미 우에서 본바와 같이 장편소설 《조선의 힘》에서 무전기가 파괴되어 최고사령부와와의 련계가 끊어졌을 때에도 자기들 때문에 더 걱정하고계실 위대한 장군님을 먼저 생각하는데서와 자기 딸 룡옥의 희생으로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려를 더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서 그의 뜨거운 인정세계를 감동깊게 찾아볼수 있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최현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한생토록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해온 투철한 혁명가, 진짜배기 충신의 전형이었다.



하기에 그는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기억속에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랑속에,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충신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에서 영생하는 충신의 전형인 최현의 성격을 비교적 감동깊게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이에 만족할수 없다.

아직도 우리 창작실천에서는 충신형상창조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다.

사람들은 참다운 충신을 대할 때 그의 영웅적이고 아름다운 위훈에 감탄하지만 그보다는 그가 지니고있는 수령에 대한 열렬한 충효의 바탕에 깔려있는 강毅한 신념과 한없이 순결하고 고상한 량심과 도덕품성에 매혹되어 크나큰 감동을 받곤한다.

그러므로 충신형상작품에서는 그들이 지닌 수령에 대한 충성의 세계를 본질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여기서도 이야기줄거리를 비롯한 형상요소들을 충신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되어나가는 과정을 라렬식으로가 아니라 립체적으로, 일면적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데로 복중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 작가들은 하루빨리 진짜배기 충신의 전형적성격을 감동깊게 형상한 여러가지 형태와 작품들을 다양하게, 대담하게 활발히 창작해야 한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계승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심장깊이 간직한 충신의 특색있는 성격을 감동깊게 보여주는 여러가지 형식의 작품들도 많이 써야 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영생하는 진짜배기 충신인 최현의 성격형상에서도 더 폭넓고 깊이있게 파고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최현을 격전장의 무적의 용장으로서

로만 알고있을뿐이지 그가 얼마나 육친의 사랑에 주리고 인정을 갈망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싸움판에 뛰여든 그는 남다른 용맹과 슬기로 하여 젊어서부터 아래사람들에게서 많이 받들리어왔다. 그러나 그는 친어버이의 육친적사랑의 뜨거움을 받아보지 못했다.

인간의 한생애 받아야 할 사랑과 주어야 할 사랑의 한도량이 정해져있는것인지 그는 누구보다 더 육친의 정, 부모의 사랑을 목마르게 그리었다.

사랑에 주린 그의 황량한 마음의 팡야에 파스한 사랑의 해빛이 처음으로 쏟아진것은 1933년 소왕청 마촌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던 때부터였다.

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온몸을 끌어당기는 인력에 이끌려 위대한 수령님께 완전히 매혹되었다.

뜨거움이 담긴 손길, 환히 웃으시는 인자하신 모습, 우렁우렁한 그 음성에서 것처럼 갈망하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의 샘을 찾았고 그 사랑과 믿음속에서 참다운 충신으로 자라났으며 그 사랑을 안고 한생을 빛나게 살아왔다.

보는것처럼 수많은 충신들중 최현 한사람의 성격을 놓고보아도 그 밑바탕에는 인간으로서 참되고 깨끗한 마음의 인정세계가 깊이 깔려져있다.

작가들은 충신들의 이런 깊은 인정세계까지 깊이 파고들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전형, 충신들의 성격을 오늘의 새로운 시대의 높이에서 훌륭히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적사명감을 자각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우리 시대 충신들의 형상을 격이 높게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우리 문학이 명실공히 사회주의 3대진지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김용희

인간의 참된 삶은 오늘보다도  
래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어라  
혁명의 진리 장군님 한뜻안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항일혁명투사들 바쳐온 생도  
이 신념 안고 싸워왔어라  
투쟁의 진리 장군님 손길따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혁명의 그 길은 준엄하여도  
래일 위해 바치는 한길이어라  
승리의 태양 장군님 한품속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 새벽이여, 우리 너를 앞세우고 외 1 편

윤희혁

철탑의 숲너머 저 멀리서  
희뵈히 밝아오는 새벽빛...  
례사롭게 맞을수 없구나  
제철지구의 새벽은

어버이수령님  
천리먼길의 피로도 다 잊으시고  
용해장에서 맞으신 그 새벽이  
상기도 저 하늘가에 비껴흐르는듯

철의 도시 사람들  
그날의 그 새벽을 안고  
서둘러 출근길에 오른다  
시간에 앞서 기대를 잡는다

쇠물이 익어 불이 이글거리는 용해장에  
출선을 앞당겨 울리는 종소리 종소리...  
로밀에 줄지어 들어선 긴 남비차들  
쇠물을 끌어내는 기관차의 기적소리 기적소리...

아 하늘도 땅도  
쇠물처럼 끓으며  
새날에 앞서 새날을 서둘러 맞는  
제철지구의 새벽이여

너를 머리위에 띄우고  
제철소는 달리고있구나  
용해공, 소결공, 당일군, 지배인

너나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이렇게 서둘러가는 걸음걸음에  
창조의 새날이 당겨져오고  
이렇게 발구름높이 나아가는 진군의 앞길에  
좋은 날 좋은 세월이 마중해오나니

새벽이여  
제철지구의 새벽이여!  
우리 너를 앞세우고  
달리고 또 달리노라

우리 가는 앞길에  
우리 다그치는 진군길우에  
노을을 펼치며 다가서는  
철로 단장된 조국의 모습이  
수령님 생전에 그려주신 그 모습 아니던가

달리노라 달리노라  
수령님 유훈 받들어 더 힘껏 달리노라  
쇠돌의 폭포, 쇠물의 바다를  
장쾌히 펼치며 펼치며

아 수령님 우리보다 먼저 맞으신 새벽이여  
우리 잊지 못하는 새벽이여  
영원한 충효의 마음이  
새 아침을 끌어올리는  
제철지구의 새벽이여!

## 한계절

여기선  
오는 비도 흰김으로 흩어진다  
우리의 열정이 뜨거워

여기엔  
내리는 눈송이도 덮지 못한다  
우리의 심장처럼 뜨거워

강피더미 쌓으며  
강편을 쌓으며  
강철로 조국을 받드는  
용해공의 그 마음이  
날마다 쌓여 산을 이룬곳

우리의 땀  
우리의 열정  
우리의 힘이 쌓이는 제철구내여

너를 보며

금지로 부푸는 용해공의 마음  
오곡을 무르익혀 쌓아가는  
농민의 마음 어이 비기랴

풍년든 대지엔  
날가리 쌓이는 한계절만 있어도  
여기는  
사시절 강철날가리 높아가거니

위대한 장군님과 로앞에서  
만부하로 돌리자고 한 약속  
그 약속을 지켜 사시절  
쇠물로 끓여내는 충효의 산악  
그 높이가 가늠되는곳

오, 제철구내 여기엔  
날을 따라 계절은 바뀌어도  
만출강의 가을  
가슴 부푸는 한계절만 있어라

# 영원한 심장

리장건

△ 때: 현대  
△ 곳: 어느 비료공장에서  
△ 나오는 사람들  
주인철 (화학공업부 기술부국장)  
정금희 (그의 아내 분석기사)  
주기도 (현장 고문수리공)  
고분녀 (그의 아내)  
오동팔 (합성탑 수리공)  
정무원부부장

## 제1장

△ 무대: 주기도의 집. 언덕밑의 이따한 단층집.  
저 멀리 비료공장전경이 보인다.  
△ 막이 열리면 반백의 녀인 고분녀가 토방에서 망질을 하고있다.  
△ 화려한 도시풍의 며느리 정금희가 들어온다.  
금희: 어머니 뭘하세요?  
분녀: 오냐 순두불 앓으려다. 《염통》수리두 끝나구, 평양머느리두 오구. 오늘은 한상 차려야지비.  
금희: 네? 염통이라니요?  
분녀: 허허... 우리 령감이 합성탑을 그렇게 부른다네. 남들처럼 심장이라면 좋겠지만 늙었으니 말투까지 구새먹는다네.  
금희: 네, 호호... 그런데 왜 기계망으로 갈지 않구...  
분녀: 령감이 질색해. 음식은 제 손으로 만들어 먹어야 진맛이 난다구... 허허... 성미두 피뻘하지...  
금희: (망질을 도와주며) 저, 어머니 한가지 물어봐두 좋아요?  
분녀: (정에 넘쳐) 뭘데?  
금희: 아버님 별명이 《면도날》이라는데 건 무슨 뜻인가요?  
분녀: 응? 갑자기 그건 왜?  
금희: 아니 저 그저 좀...  
분녀: 해방전 비료공장에서 소년로동할 때 왜 놈들이 지어준 별명이라네. 맘이 모질어서 한번 맘먹으면 칼날에두 올라서는 성미니까 해방직후두 그렇구, 복구건설때두 우리 령감이 한다면 했다네.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두 령감을 잊지 못해하셨지.  
금희: 네에...  
분녀: 애개개 이것 보지?  
금희: 네?  
분녀: 망돌을 꺼꾸로 돌리고있구나.

금희: 어마나?...  
분녀: (눈여겨보며) 신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금희: (당황하여)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분녀: 무슨 일이 생긴게로구나. 설이 애비두 오래 간만에 내려왔는데 통 집에 들어올념 못하구... 너한테 전보까지 날린걸 봐선...  
금희: 저두 너무 갑자기 내려오다보니 전혀...  
분녀: 그래두 부부생각 하나라구 무슨 말이 있었겠지, 괜히 령감별명을 물었을까?  
금희: 그렇게 아니라는데두요. 참 어머니두... 호호...  
분녀: 이 얼굴 붉어지는걸 보지. 내 눈은 못속인당이.  
금희: 호호...  
분녀: 허허... 시어머니가 있어서 머느리가 있다는데 어쩌다 한번씩 공장일때문에 내려와서 마주앉고보니 남들처럼 허허떠 풀어놓구 웃을새두 없구나.  
△ 이때 합성직장수리공 오동팔이 달려들어온다.  
동팔: 어머니, 고문아바이 안왔어요?  
분녀: 아니 왜 그러냐?  
동팔: 현장에서 기술협의회 도중에 없어졌어요.  
분녀: 우리 령감이?  
동팔: 합성탑보수기일을 연장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자리에서 훌쩍 일어나셨는데...  
분녀: 그건 무슨 소리냐?  
동팔: 점검보수를 끝내구 오늘부터 생산에 들어가자구 하는데 부국장동지가 중지시켰거든요.  
분녀: 부국장이라니, 우리 인철이가?  
동팔: 예, 야단났어요. 방금전에 정무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문제때문에 총리동지까지 내려오신대요.  
분녀: 에구야, 이게 무슨 끔찍한... 우리 설이 애비가 뭇때문에 생산을 중지시킨다더냐?  
동팔: 몰라요. 이럴 땐 고문아바이 결심이 중요하네... 쟈장 어데 가셨을까?(급히 나간다.)  
분녀: 애 설이 예미야, 도대체 어찌된 일이나?  
금희: 거, 합성탑 고압시험을 해봐야 된대요.  
분녀: 그럼 《염통》에 고장이라두 생겼단 말인가?  
금희: 그런것도 아니예요. 그저 좀...  
분녀: 아니 령감은 보수가 끝났다고 큰소리 치던데...  
금희: ...  
△ 세파에 머리는 희였으나 강단있어보이는 주기도가 자전거를 타고 들어온다.

기도: 음, 음... (자전거를 세워놓고 뒤바퀴 스프링을 세차게 걸어찬다.)  
 △ 그 소리에 고분녀, 정금희 와뜰 놀란다.  
 기도: 여보, 랭수 한그릇 주.  
 분녀: 랭수요?  
 △ 정금희 재빨리 부엌에 들어간다.  
 △ 주기도 신음소리 내며 토방에 앉는다.  
 △ 정금희 물사발을 들고 긴장해서 다가간다.  
 기도: (물사발을 받아들고 무뚝뚝하게) 넌 언제 가겠니?  
 금희: ...  
 분녀: (기겁하여) 여보 령감, 오래간만에 집에 온 며느리한테 그건 무슨 소리요?  
 기도: 누가 오랬기에 기여들 왔나?  
 분녀: 제발 좀 진정하시우. 난 령감이 서술을 돌굴 땀 머리가 망돌처럼 빙글빙글 돌네다.  
 기도: ...그걸 당장 치우지 못할가?  
 분녀: (쩍쩍 매며) 네, 네, 치웁세다. 치웁세다. 에이구, 이 망돌두 배꼽이 맞아야 돈다는데...  
 △ 고분녀, 정금희 망함지를 맞들고 들어간다.  
 기도: 음... 덜된 녀석같으니라구... (물을 벌컥 벌컥 들이마신다.)  
 △ 리지적인 용모, 틀잡힌 중년 주인철 들어온다.  
 인철: 아버지! ...  
 기도: (노려보다가) 게 좀 앉거라.  
 인철: (말없이 토방에 앉는다.)  
 기도: 예로부터 덕을 쌓는데는 백년이 걸린다면 덕을 잃는데는 하루도 길다는 말이 있다.  
 네가 이번에 우리를 돕겠다고 내려온건 좋은 일이지만... 본심은 다른데 있는것 같구나.  
 인철: 예? 본심이 다른데 있다니요?  
 기도: 네가 여러해동안 외국에 드나들며 다른 나라 설비를 물색하는동안에 저 합성탑은 우리 로동계급이 달라붙어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 만들어냈어.  
 인철: ...  
 기도: 그래서 어버이수령님께서도 완공된 대형 합성탑을 돌아보시구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시위했다고, 비료문제는 이젠 마음놓게 되었다구 것처럼 만족해하신게 아니냐?  
 인철: 하지만 우리 아직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교시대로 비료생산을 높이지 못하고있잖습니까?  
 기도: 그건 우리가 일을 잘못한탓인게구.  
 인철: 설비와의 사업을 잘하지 못했지요...  
 기도: 뭐?  
 인철: 아버지, 저한테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 안돼. 하루 평균 2천톤 잡아두 사흘이면 6천톤, 비료 6천톤이면 살 6만톤이야, 6만톤!...  
 인철: 그건 안전기준에 의한 생산수자겠지요?  
 기도: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사고가 없어야 돼. 괜히 안전기준을 정해놓은줄 아냐?  
 인철: 문제는 고압상태에서 압력파동이 생기는 원인을 밝혀내야 사고도 막고 만부하를 걸수 있습니다.  
 기도: 압력파동쯤은 《염통》에 아무런 지장두 없어. 해방직후에 살려낸 소형탑도 그런 파동으로 50년을 더 살고있단말이다.  
 인철: 아버지두 참,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현대화, 대형화된 설비를 수십년전 설비와 대비하다니요. 현대기술을 모르면 자기가 뒤떨어졌다는것을 느끼지 못하지요.  
 기도: 뭐?  
 인철: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따라가자면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현대과학기술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기도: 옳지, 이제야 본심이 드러났구나...  
 인철: 네?  
 기도: 당초에 넌 우리것을 달가와안했어. 우리가 제 힘으로 《염통》을 만들 때두 넌 다른 나라 《염통》에 눈독들이구 다녔지?  
 인철: 아버지...  
 기도: 네놈에게 우리것이 눈에 찰듯싶냐? 로동계급을 모독해두 분수있지. 예끼, 이 불효막심한... (주먹을 쳐든 손이 부들부들 떠다.)  
 △ 부엌에서 고분녀, 정금희가 급히 나온다.  
 분녀: 아니 왜 이러슈? 여보 령감...  
 기도: 내 잘못이지. 슬하에 잡아두구 신발을 신겼어야 할걸... 나라에서 공부시켜주니 제대로 되려니 하구 방심했더니...  
 분녀: 뻘수다. 아무런 배운 사람이 령감보다 생각이 모자라겠수.  
 기도: (그를 노려보다가 방안으로 들어간다.) 음...  
 분녀: 원 성미두, 저래서 면도날이라구 했겠지비. (허를 차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금희: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비보수정형을 료해하러 내려온 당신이 공장기술집단의 의견두 무시하구...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대구 비료생산을...  
 인철: 이거 싹 그만두지 못하겠소?  
 금희: ...  
 인철: (옷등을 벗어던지고 토방에 앉아 머리를 움켜쥔다.)  
 △ 수리공청년 오동팔이 달려들어온다.  
 동팔: (자전거를 보더니 인철의 앞을 휩 지나서 토방문을 열고) 고문아바이. 어떻게 할

가요?

소리: 어떡허긴? 결심대루 해야지...

동팔: 알겠수다. 그럼 그렇겠지. 기다리겠수다. 고문아바이. (문을 닫고 기고만장해서 인철앞을 지나다가) 인철형님, 이 오동팔이가 꿀먹은 게 옥대기듯한다구 밋게 볼수 있겠지만 오늘은 형수님이랑 있는데서 한마디 해야겠수다.

인철: ?

동팔: 우리 인철형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화학공업부 기술국에서 일한다기에 기뻐했수다. 우리 비료공장 로동계급출신이니 잘 도와주길 믿었던말이우다. 헌데 몇년동안 외국출장만 다니더니 달라졌거든요. 글썄 쫓내기인 오동팔따위는 무시해두 고문아바이를 몰라보면 됩니까? 정말 우리 수리공들이 의견이 많수다.

인철: 동팔이.

동팔: 예?

인철: 누가 동팔이를 쫓내기라구 했어?

동팔: 쫓내기야 쫓내기지요. 말은 바른대루...

인철: 동팔이 우리 아버지한테서 기술을 배웠다고 말씨두 걸음새까지 흉내낸다면서?

동팔: 그게 뭐 잘못됐나요? 고문아바이 손은 보배손이라구 우리 수령님께서 수차례나 잡아주시지 않았나요. 난 고문아바이의 그림자가 된다 해두 한이 없겠수다.

인철: 그런 맹목적인 모방으로 기술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야.

동팔: 형님, 우리는 비료생산자우다! 부국장직분만 생각하고 기술, 기술하지 마시우. 인철형님과 우리 처지는 다르단 말이우다!

△ 동팔 뺨 나간다.

인철: 음... (피로온듯 신음소리 낸다.)

금희: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더이상 아버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이 공장사람들의 심정을 리해 못할건 없지 않아요.

인철: ...

금희: 이런줄도 모르고 난 당신의 전보를 받고 애들을 옆집에나 맡겨놓고 숨가쁘게 달려내려왔군요.

인철: 그러니 나더러 결심을 달리해보라는거요?

금희: 공장기술집단이 장담하고있는데 당신이 구태여 발목을 잡을건 없지 않아요.

인철: 여보, 공장기술집단이 생각하는건 안전기준에 따른 당면생산과제요. 그들이 만부하를 생각하면서도 업두를 못내는건 합성탑의 기술상태에 확신을 못가지고있기 때문이란 말이요. 이걸 마치 불치의 병을 가진 환자가 병진단이 두려워 의사앞

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심정과 같소.

금희: 그럼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인철: 그들이 마음놓구 만부하를 걸수 있도록 최대의 악조건을 시험해보자는거요.

금희: 그건 왜 당신만이 꼭 해야 되나요?

인철: 오직 나만이 그 비밀을... 아직은 당신에게 말할수 없지만 이제 운명적인 시험이 끝나면 다 이야기해주겠소.

금희: 네?

인철: 여보, 날 좀 도와주. 우린 한생을 이 길에서 바치자구 학창시절부터 약속한 사이가 아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린 당앞에 큰 죄악을 짓게 되오.

금희: 뭐라구요? 아니 그럼...

△ 이때 작업복을 갈아입은 주기도 옷방에서 나온다.

분너: (뒤따라나오며) 여보, 식사도 안하시구 어데 가시려우?

기도: (자전거를 잡으며) 나가봐야겠소. 당장 《염통》에 압을 걸어 그동안 밀진 봉창을 해야지.

인철: (자전거앞을 막아서며) 아버지, 그렇게 안됩니다.

기도: 물려서거라.

인철: 아버지.

기도: ...

△ 서로 마주치는 불같은 눈길.

△ 이때 정무원부부장 급히 들어온다.

부부장: 아! 마침 두분이 여기 계시는군요.

기도: 아니 이게 뉘시우? 정무원부부장동무가 어떻게...

부부장: 고문아바이, 그동안 건강하셨습니다?

기도: 부부장동무, 또 내려오셨군요.

부부장: 부국장동무, 수고합니다.

인철: 부부장동지, 무슨 일로 갑자기...

기도: 비료가 걱정되어 왔겠지요.

부부장: 예. 오늘아침 총리동지가 전화로 기술협의회정형을 알아보구 직접 내려오려 했는데 다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문아바이?

기도: 음... 저 사람한테 들어보시우.

인철: 점검보수는 끝냈지만 아직 압력과동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부장: 그래서 당장 생산에 들어갈 합성탑을 사흘씩이나 세워두겠다는거요?

인철: 현대화된 설비로 만부하를 걸지 못하는 원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기도: 건방진 소리. 합성탑은 우리 손으로 만든 거구 우리가 잘 알아. 고압을 걸었다가 《염통》이 폭발하면...

인철: 손실도 리득을 가져올 때가 있지요.

기도: 뭐라구요?

부부장: 모험이 아닐가, 인철동무?

인철: 확신을 얻자면 의심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부부장동지, 좀 도와주십시오.

부부장: 음... (생각에 잠겨 거니다.)

△ 모두 긴장해서 주시한다.

△ 인철의 안내 금희 부부장곁에 가서 부추긴다.

금희: 저, 안으로 좀 들어가지요.

부부장: (생각에서 깨어나며) 예? 아주머니 시부모님을 만난 기회에 한상 차리렵니까?

금희: (의미있게) 저, 세대주의 체면을 봐서라도 모른체 할수 없잖아요.

부부장: 그렇다면 차후에 우정이라든 들려야겠습시다. 하하... 우린 서로 비료문제로 인연을 맺은 구면친구들이지요.

인철: 이거 너무 애간장 태우지 마시오. 부부장동지.

부부장: 당장 시비년도 생산계획이 문제되어 그러는거요. 시험은 아무때든 할수 있지만 비료는 시기를 놓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인철: 네?

부부장: 수령님께서도 이 공장은 나라의 심장과 같다고,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비료생산이 멎으면 나라의 농사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주시지 않았소.

인철: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부부장: 고문아바이 최종결심을 들어봅시다.

기도: 난 절대루 찬성 못하겠수다. 이걸 우리 공장사람들의 일치한 의견이우다.

부부장: 비료생산문제는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닌것만큼 당에 보고드리고 결론을 받아야겠습시다. 고문아바이, 가십시오.

기도: 갑시다. (부부장과 함께 나간다.)

인철: 아니 저... (따라나가다 멈춰선다.)

△ 구내기관차가 목메인 기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소리.

△ 음악이 울린다.

인철: 아... (현훈증에 비칠거린다.)

금희: 여보,

△ 금희가 인철을 부축할 때 무대 어두워진다.

△ 사이

△ 무대가 바뀌어 자막이 새겨진다.

《3일 후》

## 제2장

△ 무대: 합성직장현장구내 한쪽으로 은빛 합성탑 일부가 보이고 그뒤로 련관설비들과 크고작은 배관들이 야간조명속에 어설픔게 보인다.

깊은 밤, 예리한 동음속에 운명적인 고압시험을 하고있는 주인철과 정금희를 부부장이 초조하게 지켜보고있

다.

부부장: (거닐다가 문득 서서) 몇기압이요?

인철: (출구발브를 잡은채 압력계를 보며) 590기압입니다.

부부장: 음, 초과압력 90이라...다른 변화는 없소?

인철: 압력파동은 심하지만 아직은... (땀을 씻는다.)

부부장: 음...아직도 기별이 없단 말이지. 인철동무, 동무가 약속한 3일은...

인철: 이제 두시간밖에 남지 않았지요.

부부장: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원인을 찾아내어 동무자신이 납득되어야 한다는거요.

인철: ...

부부장: 정치적문제와 달리 과학기술에선 다수가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천금같은 시간을 내여준 당의 믿음에 인철동무가 보답하지 못한다면...

금희: (레시바를 끼고 분석작업하다가 걱정스럽게 남편을 쳐다본다.)

인철: 후...극한점까지 뚫아오르느라하면 결말이 나겠지요...

부부장: 극한점이라니? 몇기압을 넘두에 두는거요?

인철: 적어도 초과압력 150까지는 걸어봐야겠습시다.

부부장: 응? 여보 부국장동무, 우리곁에 단잠든 술한 사람들이 있다는걸 잊지 마오.

인철: ...

부부장: 사람이 실수하는 순간을 해부해보면 균형에 대한 감각이 마비될 때더란 말이요.

인철: 이거 너무 긴장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부부장: 허허... 하긴 운명적인 배를 함께 타구 반대로 노를 저어선 안되지. 그래 내가 좀 도울 일은 없소?

인철: 압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압축기실에서 만부하를 걸도록 해주십시오.

부부장: 음 알겠소. (나간다.)

△ 주인철 발브를 돌린다.

△ 아츠러운 고압소리

금희: (종합진찰기의 계기를 보며) ...초과압력 120... 125... 130... 여보, 압력파동이 심해요.

인철: 알고있소. 10분간만 견지해봅시다.

△ 초침시계소리 확정된다.

△ 심장박동소리가 쿵쿵 배음된다.

△ 부부장의 말소리 귀전에 들려온다.

말소리: 부국장동무, 우리곁에 단잠든 술한 사람들이 있다는걸 잊지 마오...

금희: 여보, 무슨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요? (수건을 내준다.)

인철: 응?... (수건을 받아 땀을 훔친다.)

△ 침묵속에 부딪치는 두 눈길...

인철: 여보, 당신은 심장이 튼튼하구만.  
 금희: 하지만 영원한건 아니지요.  
 인철: 건 무슨 소리요?  
 금희: 물질세계에는 영원한것이 없잖아요. 심장 두 물질로 볼 때 단순하지요 뭐. 살면 대사과정, 죽으면 분해과정...  
 인철: 허허... 파시 물질변화를 연구하는 화학 기사답소. 하지만 여보, 물질세계를 이룬 우리 행성에는 영원한것이 있소.  
 금희: 그건 형이상학적견해예요.  
 인철: 아니 난 유물변증법으로 증명할테요.  
 금희: 아이참 당신두...  
 △ 고분녀가 밥보자기를 들고 들어온다.  
 분녀: 애들아.  
 금희: 아니, 어머니(반갑게 덩석 손을 잡는다.)  
 인철: 아니 이밤중에 어떻게...  
 분녀: 허허... 밤참을 가져왔다.  
 금희: 밤참이요? (보자기를 풀어보고) 야 순두부! 깨고추양념!...  
 분녀: 허허... 사흘밤이나 패고있는데 이 예민 그저 마음뿐이구나.  
 금희: 어머니! 정말 고마와요.  
 인철: 참 아버지는요?  
 분녀: 걱정말이라. 온종일 안절부절 못하더니 방금 단잠에 들었단다.  
 인철: 그래요?  
 분녀: 그런데 이건 뭐가?  
 금희: 종합진찰기예요! 의사가 환자를 검진하고 병을 진단하는 기계나 같은거예요.  
 분녀: 음, 이런 훌륭한 기계가 있으니 위험한 시험두 마음놓고 하는구나.  
 금희: 네 그래요, 어머니!...  
 분녀: 참, 이 정신봐라. 애 동팔아, 그만 갑자르고 어서 나오너라.  
 △ 기타를 든 오동팔 나오며 굵석 인사한다.  
 인철: 응? 동팔인 어떻게?  
 동팔: 경제선동을 나왔수다. 형님 요전날엔 정말 안됐수다. 형님이 이런 고생을 각오하고있는줄도 모르고...  
 인철: 동팔인 한동네에 살면서 코흘리개 시절부터 날 꼼짝히 따랐지. 그래 무슨 노래를 불러주겠나?  
 동팔: 고문아바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겠수다.  
 분녀: 허허 임자는 그저 말끝마다 고문아바이구만.  
 동팔: 그게 뭐 잘못됐나요?  
 분녀: 잘못되긴. 제 령감을 취하는데 싫다할로 친이 어데 있을라구.  
 △ 모두 웃는다.  
 △ 동팔 기타를 치며 노래부른다.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새 세기를 창조하는 승리의 주인...

△ 모두 낮은 음성으로 따라부른다.

자유기발 휘날리며 나아가나니  
 온 세계를 진감하는 단결의 웨침...

분녀: (눈굽을 짖으며) 허허...이 노래가 우리 비료공장 로동계급들속에서 나왔다는걸 알고있는 사람들이 이젠 얼마 안될게다. 그땐 정말 핑장했지...

동팔: 그걸 모를 사람이 어데 있어요?

분녀: 글썽 너희들은 썩 후에 태를 끊었으니 이 노래의 진가를 다는 몰라.

동팔: 네?

분녀: 하루는 류안비료 하조장에서 일하고있는데 갑자기 모두 피신하라구 하길래 왜 그러느냐구 물었더니 왜놈들이 마사농구간 합성탑을 살려가지구 시운전하는데 아차하면 사방 백리구간이 날아난다구 하질 않겠나?

모두: 그래서요?

분녀: 그래서 난 령감이 걱정되어 막무가내로 달려가봤더니 령감은 이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고압시험을 하고있더라 말일세.

동팔: 예. 그건 바로 이 노래속에 로동계급의 굳센 담력과 뛰는 심장이 있기때문이에요. 그렇지요? 형수님.

금희: 네 옳아요.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최근에도 로동계급속에서 나온 《승리의 5월》과 같은 노래를 우리 인민들이 많이 불러야 한다시며 조국해방 50돐 경축행사를 로동계급의 도시에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분녀: 어쩌면 우리 로동계급의 심정을 이처럼 잘 알아주실가?

인철: (시계를 보며) 저 어머니, 밤도 깊었는데 이젠 돌아가보세요.

분녀: 괜찮다. 내 걱정말구 어서...

금희: 여보, 10분이 지났어요. (레시바를 켜다.)

인철: (발브를 잡고) 한계점까지 올려봅시다.

△ 인철 발브를 돌린다.

△ 동팔 옆에서 조력한다.

금희: 초과압력 145...147...149...

△ 진찰기에서 신호종이 울리며 빨간 불이 번쩍인다.

금희: 여보, 위험신호예요.

분녀: 아니 뭐?...  
 인철: (계기를 보며) 극한점이요. 1분간만...

△ 초침소리, 숨가쁜 초진장...

△ 동팔 종이를 찢어 출구발브에 대어본다.

△ 파르르 떠는 종이장

분녀: (초침소리에 와뜰와뜰 놀라며 진정 못하

다가) 애야 일없잖나?

인철: (이마의 땀을 훔치며) 일없어요, 어머니.

분녀: 예구... 세상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비료 만드는 사람들의 고생을 만분의 1이라두 알아본다 해두... (수건으로 인철의 땀을 훔쳐준다.)

금희: (과동그래프를 찢어주며) 여보, 이것보세요, 상단부에 ...

인철: 상단부? (받아보고) 알겠소. 압축기실에 차단신호를 보내오.

금희: (마이크에 대고) 압축공기 차단! 차단하세요. (조종단추를 누른다.)

인철: 동팔이, 비상배기변을 틀라구.

동팔: 예, 알았수다. (뒤에 가서 배기변을 돌린다.)

△ 고압배출소리

인철: (그래프를 보며) 예감이 틀림없군. 여보, 압력과동원인을 찾아낸것 같소.

금희: 네?

△ 인철 급히 안전바줄을 몸에 감는다.

금희: 여보, 어찌자구 그래요?

인철: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소.

금희: 뭐라구요? 수백도 고열속에 들어간단 말예요?

동팔: 인철형님, 그건 위험하우다.

분녀: 애야, 기다렸다가 날이 밝아서 보자꾸나.

인철: 어머니, 우리가 약속한 3일은 이제 한시간밖에 남지 않았습시다....

금희: 내벽이 달아오른 철판인데 어데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인철: 걱정마요! 기껏해야 신발이 좀 타겠지...

△ 이때 탑우에서 신발이 툭 떨어진다.

금희: 어마나! 이건 방열구두가 아니예요?

△ 모두 의아해서 합성탑우를 쳐다본다.

동팔: (어느새 알아보고) 아니 고문아바이가?!

기도: (충계를 타고내려오며) ...신겨라.

인철: 아버지?!...

기도: 《염통》속에 이상이 생긴게 틀림없다.

인철: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기도: 뚜껑우에 앉아서 소리를 가늠했지.

인철: 뚜껑우에서요?

분녀: 령감두 윈... 잠든줄 알았더니 어느새 벌써...

기도: 어서 들어가보자꾸나.

인철: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얼마든지...

기도: 종이장두 맞들면 가볍다 했거늘... 따라오너라.

△ 기도 충계우로 올라간다.

△ 동팔 어느새 기도의 걸음새와 한본새로 뒤따른다.

기도: (뒤를 돌아보며) 넌 뭐냐?

동팔: 오동팔이우다. 고문아바이,

기도: 넌 아직 일러...

동팔: 고문아바이, 종이장도 맞들면...

인철: (덧신을 신으며) 동팔이, 걱정말구 기라나 타라구...

동팔: 기타요?...  
 인철: (시조로)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주먹을 쳐들어보이고 락판에 넘쳐 올라간다.)

금희: 여보...

동팔: 인철형님.

△ 모두 뜨거운 걱정속에 충계우를 쳐다본다.

△ 우렁찬 대합창의 메아리가 울려온다.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새 세기를 창조하는 승리의 주인

분녀: (계속되는 노래속에 눈굽을 찍으며) 윈담두 크지, 뚜껑을 타고갔아 엿듣다니...

금희: (목메여) 우리 세대가 선대들한테서 넘겨받아야 할건 바로 그 정신이예요.

동팔: 옳수다. 형수님, 바로 그 심장이지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린다.)

부부장: (나오며) 아니 시험을 왜 중단했소?

금희: 이상이 생겼습시다. 부부장동지, (그래프를 내준다.)

부부장: (받아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요?  
 응? 이 부분의 파장이 왜 이 모양이요?

금희: 확인하러 들어갔으니 이제 끝...

부부장: 뭐요? 아니 고열속으로 사람이 들어갔단말이요?

△ 이때 충계우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기도: (허둥지둥 내려오며) 부부장동무, 부부장동무, 이 일을 어쩔 중습니까?

부부장: 고문아바이, 왜 그러십니까?

기도: 《염통》안에... 이 《염통》안에 균열이 생겼수다.

모두: 뭐라구요?

부부장: 균열이 가다니요?

분녀: 윈, 이런 끔찍한...

기도: 어허이구, 끝내... 끝내 일을 저질렀수다.  
 하루가 새로운 이매에...

부부장: 진정하십시오. 아바이, 그래 균열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기도: 한기장은 잘 되지요. 사람두 파식하면 체하기 마련인데 초과압을 기껏 먹여왔으니...

분녀: 세상에 이 일을 어찌누...

동팔: 차 이거 참...

△ 불에 그슬린 주인철 내려온다.

인철: (충계란간을 잡고 비칠거리며) 아...

금희: (달려가서 부축하며) 여보...

부부장: 인철동무...

인철: 부부장동지, 원인을 찾았습니다. 압력과동이 왜 생기는지 인제야 알았습니다.

부부장: 수고했소. 인철동무, 어디 상한데는 없소?

인철: (머리를 가로저으며) 그런데 때가 늦었지



요. 한해전만 알아냈어두 이다지도 가슴이... (가슴을 쿵쿵 두드린다.)

금희: 여보, 진정하세요...

부부장: 음... 후회란 언제나 때늦은 법이지...

인철: ...전 의리도 량심도 없는놈이었습니다.

부부장동지,

부부장: 어쨌든 원인을 찾아낸건 큰 성과요. 이제 확실한 자신심을 가지게 됐으니 말이요, 빨리 필요한 대책을 세워봅시다. (홍분하여 나간다.)

인철: 아버지, 면목이 없습니다. 저의 실책이 이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를줄은 몰랐습니다.

기도: 당초에 네가 이런 후과를 예상 못했던 말이나? 온 공장이 암모니아에 명줄을 걸고있는데 《염통》을 잡아냈으니...

인철: 아버님, 그렇게 아니라 저 균렬은 이미전에 생겨난겁니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확산되었을뿐이지요.

기도: 확산됐다고? 아니 그럼...

인철: 저 균렬은 설계상 오차로 생긴... 제가 저지른 최악의 산물입니다.

기도: 그건 무슨 소리냐?

인철: 놀라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 합성탑은 제가... 책임지구 우리 설계가들이 설계했습니다.

기도: 뭐라구 네가?! (뒤걸음친다.)

금희: ...

동팔: 인철형님, 그건 무슨 소리요?

분녀: 인철아...

인철: 10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히 저희들에게 비료생산 심장부인 암모니아합성탑 설비를 사오도록 과업을 주시면서 돈을 아끼지 말고 제일 좋은 설비를 들여오라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기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인철: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설비계약을 추진하자고보니 그 나라에서 너무도 엄청난 값을 요구하기에 도저히 용단을 내릴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몇년동안을 끌면서 가격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당에서는 이 문제를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으로 간파하고 그에 대처한 새로운 방도를 제시해주었습니다.

기도: 음 그래서.

인철: 저희들은 결심을 달리하고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그놈들과 맞서 똑같은 설비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우리의 합성탑설계를 완성했습니다.

모두: ...

인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저희들을 친히 연회장까지 불러

주시면서 년간 얼마나 낼수 있는가고 물으시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부하를 걸면 종전보다 수십만톤을 더 낼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이 대답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가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도: 음... (신음소리 낸다.)

△ 뜨거운 음악이 울린다.

인철: 얼마전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몇번이고 록음테이프를 돌려가며 들으시다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되뇌이시면서 저희들에게 비료생산 실태를 다시금 물으시었습니다.

기도: 우리 장군님께서?

인철: 그이께서는 비료공장 전반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나서 친히 술한 자금을 내시여 설비보수에 필요한 자재들과 현대적인 종합집찰기까지 마련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기도: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인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설계한 합성탑이 제구실 못하기때문에 취해주신 조치라는걸 전 오늘에야 깨닫게 되었으니...

금희: 그래서 당신이?! ... 왜 이제야 그 말을 하세요?...

인철: 나의 죄의식때문이였소. 난 우리가 설계한 창조물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있었소. 놈들의 기술적허세를 1대1로 꺾어보자는 야심만 앞서다보니 자본주의상품경제의 취약성을 간파하지 못했던말이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설계가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위험한 고압 시험을 마음놓고 진행하지 못했을거요.

금희: 그건 억측이예요. 이 땅에 살고있는 우리시대 사람들치고 비료는 쌀이고 쌀은 공산주의라는 진리앞에 심장을 내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철: ...

기도: 그러구보니 잘못은 내게 있었구나. 원인을 찾고 만부하를 걸대신 부실해도 제새끼는 고와뵈운다구 어루만지지만 했구나. 그러니 《염통》이 숨은 쉬어도 제구실을 못할수밖에...

동팔: 인철형님, 귀뿔두 모르면서 형님을 괴롭힌 날 용서하우다.

인철: 동팔이, 아버지, 이제는 원인을 찾아냈으니 약한 부분을 튼튼히 보강하여 만부하를 걸어봅시다.

기도: 암, 걸어야지. 걸구말구!... 나라일에 그렇게 바쁘신 우리 장군님께 비료문제에까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되겠냐?

동팔: 옳수다. 고문아바이, 이 합성탑에 우리  
 심장의 높은 압을 겹시다.  
 인철: 동팔아,  
 동팔: 인철형님! (뜨겁게 손을 잡는다.)  
 부부장: (나오며) 인철동무! 방금 위대하신 장  
 군님께서 합성탑에서 균열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  
 시었소.  
 모두: 네? 우리 장군님께서요?!

부부장: 위대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이제는 원인을  
 찾았으니 약한 고리를 든든히 보강하여  
 만부하를 견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  
 하시면서 나는 그 동무가 위험한 고압시  
 험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는가를 가  
 능해보았습니다.  
 당에서 키워낸 수령님의 제자, 수령님의  
 전사들이 다릅니다. 그 동무처럼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아글타  
 글 애쓰는 수천수만의 심장들이 있기에  
 우리 수령님의 심장은 영원히 우리와 함  
 께 고동치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철: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 (주저앉으며 격  
 정을 터뜨린다)  
 기도: 인철아, (끌어안으며) 우리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이처럼 훌륭하게 키워주셨구  
 나!...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받아안은 우  
 리의 앞날은 얼마나 창창한것이냐!...

인철: 아버지,  
 기도: 인철아,  
 인철: 위대하신 장군님! 세계를 이루고있는 물  
 질변화는 어길수 없는 법칙으로 되었어  
 도 저희들의 신념만은 변함없습니다. 여  
 기 비료공장심장부에 세찬 숨결을 지퍼  
 주신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저희들은 한몸 그대로 피방울이 되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심장을 영원히  
 고동치게 하겠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장군님!!  
 △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  
 네》 노래 방창속에 막이 내린다.

## 그날의 봄진눈까비

남필현

진눈까비  
 진눈까비  
 파원의 포전길에도  
 높이 세운 전망대 지붕에도  
 소리없이 내리니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생각...

못밧을 그날은  
 3월도 스무하루  
 내 고향덕엔 진눈까비 내렸네  
 그이 입으신 봄가을외투에도  
 가슴아프던 진눈까비  
 야속하던 진눈까비

밤새껏 내린 곳은 눈비로  
 빠진 승용차 밀어내시며 젖은 옷자락  
 내리는 진눈까비에 더 젖어도  
 수령님 북청회의교시  
 북변땅에 관철하자고

발걸음 옮기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어서 오르자고  
 어서 주인들이 앞서라고  
 등판에 오르시여  
 저 룡선 끝까지 파원을 넓히라고  
 예지의 그 눈빛으로  
 산발을 굽어보시던 그이

둘배나무 한그루 없었던 불모의 땅에  
 무릉도원 펼쳐보자고  
 파원이 전망성 있다시며  
 이제 도로를 잘 포장하면  
 비료내기도 좋고  
 파일운반도 좋다 하실 때  
 울렁이는 이 가슴의 걱정을  
 움트는 새싹이 담았더니  
 내리던 진눈까비가 새겼더니

그래서  
 그날의 진눈까비  
 잊지 못할 그 사연 전하여주며  
 언제나 이 가슴에 내리고내리며  
 열정의 땀으로 녹이던 나날속에  
 백리파원이 펼쳐진 오늘

배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온통 파일산으로 뒤덮은  
 좋은 때 풍요한 날에  
 장군님 모시고싶어

봄이 오면 꽃이 피어  
 가을이면 열매익어  
 그리운 마음 더해가는 세월속에도  
 이 가슴에 내리는 진눈까비  
 그날의 봄진눈까비

## 쇠물을 두고서는 외 1 편

리익주

쇠물을 두고서는  
다르지 않더라  
회의장 높은 연단에서 하는 말과  
제집 밥상에 마주앉아 하는 말이

다르지 않더라  
영웅로장이 하는 말과  
인민반회의에 모여앉아  
너인들이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사사로운 편지에도  
첫 머리엔 쇠물뽑는 이야기  
서로 나누는 혼담도  
쇠물로 인연이 맺어지거니

쇠물을 뽑아 영웅이 되고  
쇠물을 뽑아 당을 받들며  
한생 쇠물과 함께  
삶을 빛내이는 제철지구사람들

쇠물은 용해공의  
열정의 상징이라 하시며  
우리 수령님 보안경을 드시고  
오래오래 바라보시던 쇠물

하기에 쇠물이어  
너는 우리의 량심  
버리고는 못사는  
우리의 삶이며 보람

그래서 휴양소에 갔다가도  
날자를 채우지 못하고 달려오고  
자식을 키워 대학에 보내도  
야금을 배우라고 보내는 마음들

그 마음 진정 다르지 않더라  
쇠물을 두고서는  
가족들과 마주앉아 하는 말과  
회의장 높은 연단에서 하는 말이

## 교대시간

용광로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용해장의 교대시간이 되면  
마주서는 두 반장  
어제날의 기능공과 견습공이라네

기능공의 손탁에서 자라난 견습공  
오늘은 한교대를 책임진 반장  
어제날의 스승과 마주서는 교대시간이 되면  
그는 엄하고도 까다롭게 군다네

인계대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따진다네  
열풍온도는?  
로의 가동상태는?

쇠장대는 손가까이에 세워있는가  
저장고의 광석량은 얼마나 되는가

탄산수는 통마다 그득 차야 좋다면서  
물통까지 흔들어보고야 인계를 받는다네

허나 한덩어리 지철이 쇠물도랑에 들어붙어도  
하나의 공구가 제자리에 없어도  
그는 인계목록을 놓고 따진다네  
엄한 선생이 학생의 숙제를 검열하듯

기능공 늙은 반장은  
이럴 때가 제일 기쁘다네  
로속에서 강철들보만이 아닌  
용해장의 기동감을 키우던 견습의 나날  
제가 하던 말을 다시 듣게 되는  
용해장의 교대시간

이런 날이면 늙은 반장은  
마음놓고 용광로를 넘겨받더라

# 나는 언제나 병사

박근원

## 나의 초소

얼마만이냐  
정다운 나의 옛 초소여  
너를 떠나던 그날 심은 다박술도  
이제는 키높이 자라 아지를 펼쳤구나

군복을 벗고  
내 찾아왔다고 탓하지 말라  
너를 떠나  
반백이 된 오늘까지  
언제 한번 잊은적 없는 나의 초소여

너를 떠나던 마음  
그리워 아쉬웠다면  
석탄을 캐도 마음은 든든했고  
당사업을 배우던 나날에도  
초소의 낮과 밤이  
나의 성장을 지켜주었음을  
내 잊지 않노라

내 오늘은 장군님 보내주신  
인민대표단의 자격으로 초소길을 걷노라  
조국의 믿음  
인민의 기대를 헛되이 한적 없는  
조국수호의 첫 전호여

장군님 주신 총대를 쥐고

이 초소에 서면  
애어린 책상물림도 거인이 됐더라  
그날의 나같은 열여덟살이  
전쟁의 포성을 눌러닫고 살아

눈비 오고  
때없이 포연서리는  
초소의 전호턱에 가슴 대이면  
온 조국을 안고 숨쉴수 있더라  
군복입은 한 심장이  
조국의 낮과 밤을 지켜살수 있더라

그 마음 알기에  
그 수고 알기에  
우리의 장군님 인민군절 이 아침  
인민의 뜨거운 인사를 안고  
우리를 보내주셨나니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핀 꽃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지지 않은 꽃  
군민일치의 영원한 꽃향기  
오늘도 온 나라에 넘쳐나니  
얼싸안은 그 얼굴이  
온통 웃음이로다  
정녕 그 티없는 웃음에 들려  
내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구나

## 한길우에

기다린듯  
마주 달려와 경례를 붙이는 장령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건강하십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나의 대답 끝나기 바쁘게

-만세! 만세! ...

병사들의 환호성

온 고지에 차넘치는 환호성

그 뜨거운 걱정속에서

장령과 나의 시선  
허공의 한점에서 부딪치는 순간  
아, 마주선 장령이  
옛 전우일줄이야  
-아니, 1분대장이 아닌가?

그도 천만뜻밖인듯  
선자리에서 움직일줄 모르다가  
이윽하여 소리친다  
-이게 누군가? 2분대장!

주위에 다른 사람들 있다는것도 잊고  
마치 두사람 위해 모든것이 있는듯  
장령과 나는 서로 부둥켜안고

맞비비는 두 심장

-이자야 이렇게 나타나다니...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장군님 받드는 길에 함께 있지 않나?  
또다시 부등켜안은 전투적포옹  
마주 댈 심장의 뜨거운 박동  
하나의 의무를 지켜사는 생의 맥박

-잊지 않고 찾아주어 고맙네

-아니 나의 초소  
우리 초소를 떠나 산날이 없었네

그렇더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그 누구나 초소에 살고  
제대를 모르고  
마음의 군복은 벗을줄 몰라  
우리의 총대는 조국을 지켜  
그리도 강한것이야라

## 초소의 문화오락시간

조국의 전초선을 들었다놓는  
힘찬 병사의 노래소리  
격동에 찬 병사의 시  
기백넘친 병사의 춤

아 옛 추억을 불러오며  
어제날 병사도 어서 오라 이끄는  
초소의 문화오락시간

병사의 보람찬 하루가 총화되고  
병사의 랑만에 찬 래일을 안겨주는  
초소의 문화오락시간

부르는 노래에 당의 믿음 뜨겁고  
웁는 시에 병사의 신념 넘치고  
흥겨운 춤에 병사의 기백이 있어  
초소의 문화오락시간은  
병사의 심장을 터놓는 시간

내 30년전 그날  
여기서 부르고 읊으며 터놓던  
병사의 노래  
병사의 시  
병사의 춤  
그것은 오늘도 나의것

하기에 내 오늘  
스스럼없이 뛰어드니  
아들또래 병사들은 말하는구나  
아바이당일군이  
어쩌면 신통히도 젊은 병사같다고

나이 많고 군복을 벗었다 병사아니라  
그 마음 노래, 시, 춤에 비끼여  
어길수 없는 내 삶의 일파에  
나는 사노라

## 전호여, 언제나 너와 함께

전호여 다시 한번 안아보자  
젊은날 이 심장의 체온도  
스며있는 전호여

너를 그리안고  
눈비오는 낮과 밤  
조국과 심장으로 말하는 법도  
내 배웠노라

총대를 쥐고  
전초선의 이 전호가에 바친  
청춘시절이 없었다면  
내 어이 맑은 하늘아래  
부끄럼없이 머리들라

조국을 위해 한목숨바칠  
성스런 맹세가 깃들어있는곳  
총전 당원의 삶을 빛내리라던  
선서의 구절도 때없이 외워보던

그 시절의 맥박이 스며있는곳

그때처럼  
그때처럼 내 오늘  
너의 전호가에 가슴 대이니  
네가 나를 그리안는듯  
이처럼야 정에 겨우나

그렇더라 전호여  
심장을 바쳐  
조국을 사랑할줄 안다면  
언제나 정이 통하는곳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아  
언제나 낯설지 않은곳

전호여 나는 너를 떠난적 없으랴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너와 함께 사는 한생  
나는 언제나 병사여라

## 군대명절을 맞으며

손영복

래일은 4월 25일, 군대명절 날이다.

낮동안 직장에서 인민군부대를 찾아가 하게 될 예술소품런 습과 인민군원호품준비로 분주히 보내고 퇴근길에 나서고보니 거리는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어있었다.

꽃피는 계절이어서 빨간 꽃, 노란 꽃들이 한껏 망울을 터치고 향기를 풍기는데다 거리와 건물의 곳곳에는 인민군창건절을 경축하는 포스터들이 내걸리고 축복의 인사마냥 축기들이 저녁미풍에 가벼이 날리고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어린 흥그러운 명절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강변을 에돈 조용한 거리를 걸어가노라니 마음이 즐거운 속에서도 생각은 점점 깊어만 간다.

안도의 밀림속에서 창건을 선포한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혁명무력.

세월을 거슬러 돌이켜볼수록 우리의 혁명군대를 창건하시고 불패의 강군으로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뭉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다.

크지 않은 이 나라에 그렇듯 강력한 불패의 무력을 건설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앞에서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우리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었을것인가.

나의 귀전에는 지금도 당창건 50돐을 경축하는 열병의 광장에서 울려 퍼지던 궁지에 넘친 인민군병사들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쟁쟁히 들려오는듯만 싶다.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보라 우리는 무적의

지도자동지군대

활화산처럼 분출되는 흠모와 신뢰, 억척같은 맹세를 담아 주석단을 우러러 **《김정일** 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던 인민군장병들.

그때 우리 열병식대오를 보며 얼마나 큰힘을 느끼고 얼마나 크나큰 긍지를 느꼈던가.

그날의 그 광경을 다시금 눈앞에 그려보며 걸음을 옮겨놓던 나는 앞에서 법석이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바라보니 문수유원지입구에서 인민군대에 입대하는 병사를 가운데 세우고 그의 동무들과 부모들이 사진을 찍느라 웃고 떠들고 있었다. 요즘 자주 보게 되는 풍경이었다.

나는 내가 입대하던때의 생각이 나서 그들이 사진찍는 모습을 웃음짓고 바라보다가 그 신입병사의 영광을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그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집앞에 오니 바로 우리 현관앞에서도 그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있었다.

갓 타입은 군복에 빨간 령장을 단 입대병사를 둘러싸고 동네아주머니들이 꽃다발도 안겨주고 무슨 보꾸레미도 쥐여주며 떠들어대고있었다. 아마 동네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금시 떠나려는참인듯싶었다.

그 애송이병사가 우리 옆집 아들 현철임을 알아본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로 말하면 집안의 외아들 일뿐아니라 장래의 예술가로 온 학교가, 온 동네가 인정하고 있던 학생이었다. 그가 유치원 가방을 달랑거리며 다닐적부터 우리와 나란히 하여 같이 살았기에 잘 아는바이지만 그의 부모들은 몸이 연약한 대신 감각이 예민한 그를 미래의 손퐁금수로 키우기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현철이는 어머니의 영향하에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 감탄할 정도로 온 마음과 넋을 다 바쳐 손퐁금을 배웠다.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이 있어 그는 드디어 손퐁금과 바이올린 독주에서 전국경연무대에서 손꼽히는 학생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의 발전을 두고 온 동네가 기뻐하면서 장래를 축복해준 것이 불과 얼마전 일인데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타날줄이야.

내가 놀람과 의혹을 숨기지 못하자 현철이의 어머니는 리해가 된다는듯 웃음을 지은채 군복입은 아들이 대견하기만 한듯 어깨를 가벼이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제 자식이 재능있는 예술가로 되는것도 기쁜 일이지만 오늘날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 장군님의 병사로 되는것이상 더 큰 영광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가치없는 한마디 말에 나는 순간에 모든것을 리해할 수 있었다.

그들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때에 와서 무엇을 생각하였으며 무엇을 바랐는가를.

장군님의 병사로 되는것 - 그것은 총대로써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전조선에서 길이기에 현철이는 그것을 자기의 행복으로, 영예로, 가장 큰 소원으로 받아들인것이 아닐가.

장군님이 없으면 조국도 없고 자기의 행복도 미래도 없다는 신념, 장군님은 곧 조국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녔기에 어린 시절부터 소중히 키워온 희망도 마다하고 장군님을 위해 자기를 바칠 맹세를 안고 군복을 입은것이리라.

하긴 이런 심정을 지닌 청년이 어찌 현철이뿐이랴.

당의 품속에서 자란 우리 세대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이

런 심정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혁명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그때에도 그랬고 그후에도 해마다 전국방방곡곡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장군님의 병사로 되기를 갈망하여 입대를 열렬히 탄원하고있는가.

군대의 강하고 약함은 결코 무기나 기술장비수준으로만 계산할수 없다. 아무리 월등한 무기를 가졌다해도 신념이 없는 고용살이식 군대는 백전백패를 면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만 계시

면 우리는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이 저 병사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유치원아이들로부터 오랜 혁명의 길을 걸어온 로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굳게 자리잡았기에 우리 인민군대가 것처럼 강하고 우리 인민 또한 그렇듯 강한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나에겐 한갓 중학생으로만 보아왔던 현철이가 더없이 훌륭한 청년으로, 애송이가 아니라 릉름한 병사의 모습으로 눈앞에 안겨왔다.

이렇듯 든든한 심장을 가진 《구대원》들이 강철의 대오에

자기 발걸음을 맞추겠이니 우리의 혁명무력은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누구도 굴복시킬수 없는 불패의 대오로 승승장구할것이다.

이런 신심을 새로이 받아안으며 나는 떠나는 현철이를 바라왔다. 그는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수 없는 웃음이,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병사로 된 행복과 긍지가 넘쳐나고있었다.

병사여! 그대의 영광은 축복하노라!

## 수필

# 류다른 명절

아침이다. 수도는 이른아침부터 끓었다. 집집의 문들이 분주히 여닫기는 소리, 빠른 발걸음 소리, 너훤 어디 가니? 우린 어디 가 하며 속삭대는 소리, 그속에서 타악기의 장단처럼 울리는 삽날의 달그락소리... 마당에서는 서로 동료를 찾는 아이, 어른들의 목소리가 고층살림집창문을 향해 달아오른다. 거리쪽에서는 행진곡을 깔고 격조높이 울리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삽과 곡괭이를 멘 한차림새다. 로동자, 사무원, 학생, 가두녀인들까지 떨쳐나섰다. 씩씩한 발걸음이다. 몸에선 봄날의 싱싱한 아침대기가 풍긴다.

나도 급히 신들메를 조였다. 온몸은 산발을 날아넘을만큼 가볍다. 그 가벼움은 결코 짧은 분위기만으로 생겨난것이 아니다. 참으로 사람이 자기를 자각케 하는 계기를 얼마나 많은 생활의 갈피마다에서 찾아보게 되는것인가.

어제저녁이었다. 퇴근하여오니 집안은 전제없이 흥성거렸다. 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애는 무엇을 하는지 아래웃방을 오르내리며 부산을 피운다. 안해는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는데 크고작은 그릇에는 도라지

며 고사리 등 산채들과 떡쌀까지 담겨져있었다. 지집관에서는 고기익는 냄새가 입맛을 자극했다.

《허, 무슨 명절갈군.》

가방을 받아들던 아들에게 픽 웃으며 고개를 쳐든다.

《태일이 명절인데요 뭐.》

딸애가 전실벽에 걸려있는 달력앞으로 뽀르르 달려가더니 4월 6일 아래부분을 짚었다.

《요것 보라요.》

나는 딸애의 손끝에 짚여진 글자를 읽었다.

《식수절!》

나는 처음 듣는 말처럼 다시 외워보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일체를 쳐부신 조국땅에 첫 나무를 심으신 날을 기념하여 해마다 이날이 오면 온 나라가 떨쳐나 조국의 산과 들에 나무를 심는다.

오래동안 맞고보낸 이날이지만 아이들이 던진 《명절》이란 낱말은 나로 하여금 형언키 어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했다.

나는 4월안에 새겨진 이런 명절을 찾아보았다. 보건절, 체신절, 탄부절, 조선인민군절... 그 모든 날들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에 의하여 사회의 일정한 부문이나 인민경제의 한 부문에서 경

## 리정수

축하는 기념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직종, 직업에 따라 즐기는 이런 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 제도에서 사는가 하는 긍지도 큰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온 나라 인민이 나무를 심는 오늘의 식수절을 맞고보니 지금껏 이날을 기념식수를 하는 날로만 생각해온 자신이 돌이켜졌다.

정말 하나의 단편적인 생활을 통해 인생의 참뜻을 깨닫는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순간일수도 있고 일생동안일수도 있고 깨닫지 못한채 생을 마칠수도 있다. 그러니 아이들의 말을 듣고, 즐거운 들놀이이라도 가듯 전날부터 그 차비를 서두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망각속에조차 떠오르지 않았던 지난날의 일들이 번개 불처럼 떠오른것은 우연한 일이겠는가.

중학시절 나는 그림공부를 좋아하였다.

어느날 텔레비존으로 전후복구건설시기 대동강호안공사에 펼쳐나선 대학생들의 투쟁모습을 본적이 있었다. 그때 청류벽을 거쳐 대동강상류쪽에 솟아있는 대성산이 낯설어보였다. 높지 못하고 뾰족한것이 대동강을 그릴 때마다 그려넣던 모

양과 달라보이는것이였다.

미술은 대상에 충실해야 한다는 화법상요구에 비추어볼 때 초학도인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다음날 옥류교와 대동강유보도를 오르내리며 여러 위치에서 투시해보았으나 확실히 화면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달랐다.

그후 대성산에 등산갔던 나는 산모습이 달라진 원인이 전후 수많은 자란 나무들이 숲을 이룬때문임을 알수 있었다. 그때조차도 나는 정말 산천이 달라졌다는 감흥을 받았을뿐 그 천지개벽한 력사에 대해선 알려하지 않았다.

출판물과 영화들에 변모된 전국 각지의 모습들이 일제식민지통치시기나 전후 재더미만 남은 때의 모습과 대비적으로 실리면 어느데가 달라진곳인가를 호기심에서 찾아보았을뿐이였다. 그것이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식수절을 맞는 지금에 와서 크나큰 자책과 함께 생생히 돌이켜질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지금 저 아래웃방을 오르내리며 분주탕을 피우는 저 애들이 철없던 시절의 내가 아니겠는가. 너무도 평범히 맞고 보낸 날에 대한 참의미를 저애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 내가 깨달았다면 나는 저들에게 래일에 하는 일이 결코 들놀이와 같은것이 아님을 무슨 말로부터 시작하여 깨우쳐줄것인가.

나는 집안이 답답한 감을 느꼈다. 해는 아직 서견하늘에 걸려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나는 탑제거리를 지나 문수봉으로 향했다. 문수봉정각이 보인다.

문수봉! 비단에 수놓은것처럼 아름다운 평양준평원의 한 봉우리다. 옛날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탄까지 묻혀있었으나 일제의 칼부림에 벌거숭이가 되고 토막치듯 헤쳐졌다는 문수봉.

문수봉의 지난날을 생각하니 귀전에는 침략자의 란도질을 받아 흐르는 진물을 이 나라에

피줄처럼 뻗어간 강물우에 뿌리며 끝없이 흘러가던 기나긴 때목의 수난에 찬 호곡이 들려오는듯싶다. 그 호곡을 불너올로 태우던 백두대령의 우등불. 그 우등불가에서 울리던 《사향가》의 은은한 노래소리...

울창한 수림이 저녁미풍에 설레인다. 나는 부근부근한 흙을 밟으며 산정길을 걷는다. 싱그러운 숲내가 폐부속깊이 스며든다. 한창 물오르기 시작한 오리나무, 가중나무, 벗나무 숲너머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심으신 이갈나무들이 보인다. 불시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미소가 우렁이 떠올라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그 미소는 문수봉에 나무를 심으시며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의 영상으로 잇닿아진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봄날의 훈향에 절고 땅김이 서려오는 문수봉에 나무를 심으시며 이제 이 나무가 크게 자라 무성한 숲을 펼칠 때면 우리 조국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될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그 락원이 이 땅우에 펼쳐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이 살고 인민이 행복을 누리갈 조국을 위해, 그 조국에서 살아야 할 주인들의 가슴에 애국의 념을 심어주시기 위해 모래흙과 버력만이 밟히는 이 문수봉에 오르시여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몸소 나무도 심으시였다. 그 숭고한 애국의 마음이 뿌리를 내려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이라고 어느 시인이 가슴치며 노래한 이 땅에 푸른 숲 우거진 산천과 오곡백과 주렁진 풍요한 들만이 펼쳐졌고 줄쫓탄을 퍼부어 성한 벽돌 한장없이 만들어놓고는 《백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인 미제에게 조선사람의 본태를 보여주며 공원속의 도시, 공원속의 공장들이 일떠섰다. 그 마음으로 변혁하는 조국의 력사와 함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어왔는가.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고 깊으신 뜻이었으니 그

뜻은 우리 삶의 보금자리였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싶었다. 문수봉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때 안해는 너무 늦지 말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지 그 중요성을 알고 그 러느냐고 하자 안해는 조용히 말했다.

《첫 식수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성의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 애들이 이 땅에 처음 제 손으로 나무를 심는 날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고싶어요.》

나는 무어라 대답을 찾을수 없었다. 안해의 마음은 벌써 더 멀리 나가고있었다. 아마 수많은 집집의 창가마다에 어려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역시 다 그러하리라.

문수봉혁명사적비가 눈앞에 안겨온다. 나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가갔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가문의 번성과 행복의 상징으로 집뜨락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한다. 허나 우리는 온 나라에 애국의 마음, 충성의 마음을 심는다. 어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심었고 오늘은 나와 우리 자식들이 심고 가꾸어야 할 마음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건국의 첫 날에 문수봉에서,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우리 인민에게 심어주신 애국의 마음.

이 아침 나는 그것을 본다.

대렬이 다가온다. 씩씩한 걸음, 우렁찬 노래소리, 힘찬 구호, 조국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하자는 대형선전화가 산처럼 솟아 움쉴 다가온다.

즐거움에 잠기려는 그런 날이 아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불바다를 헤치고 찾아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더욱 부강하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빛내여갈 충성과 효성어린 마음들이 산과 들로 굽이쳐가는 류다 른 명절이다.